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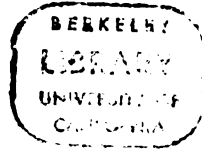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9 호 (342)

차 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기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국가를 창건하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따라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스물두해가 된다.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어머니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더욱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혁명적대고조의 장엄한 환경속에서 이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적로정을 총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실로 지난 20년동안 우리 인민은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따라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공화국의 20년은 영광의 20년이며 투쟁과 승리의 20년이며 창조와 전진의 20년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7페지)

돌이켜보면 공화국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지나온 모든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혁명사상을 이땅우에 구현하고 꽃피우기 위한 간고하고 자랑찬 혁명의 길이였으며 투쟁과 전진, 창조와 변혁의 력사로 엮어진 영광의 길이였다.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옳은 해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 특히 15성상에 걸치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고 우리 인민정권의 억세고도 깊은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의 앞길에 새로운 많은 난관들이 중첩된 복잡한 환경속에서 인민정권을 제때에 창건하시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시였으며 그것을 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는 사회주의국가, 《주체의 조국》으로서 날과 더불어 더욱 륭성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큰 희망과 신심을 안고 그 기치하에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로정—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공화국의 오늘과 같은 륭성발전과 그 무궁한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의 경사스러운 민족적

명절, 공화국창건 스물두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번영과 행복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이께 끝까지 충성다할것을 더욱 굳게 결의다지고 있다.

* *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동자, 농민의 진정한 국가—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오직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인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전취할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는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며 정확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대중을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킨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주권문제해결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주권전취의 혁명적방도와 새로 세워질 정권의 형태와 성격, 그 계급적본질을 정확히 규정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직접 창건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정권이 차지하는 위치를 옳게 설정하며 국가주권의 공고발전을 위한 제반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한다. 이때까지의 인류해방투쟁사는 그 어데서나 로동계급이 자기 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며 그것을 령도할수 있는 현명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정치적지배를 확립할수 있으며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식민지철쇄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독립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수 있은것도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과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뒤엎고 로동자, 농민의 진정한 국가를 세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폭력을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전취를 위한 기본방도로 제시하시고 몸소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던 첫시기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로동계급의 혁명적주권전취를 위한 이 기본방도는 포악한 제국주의통치계급의 반동적본성, 당시의 혁명정세, 선행시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교훈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경험을 전면적으로 종합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내놓으신 로동계급의 혁명적주권전취의 유일하게 정확한 과학적방도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혁명적로선이였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가장 빨리 앞당기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다. 그것은 또한 식민지나라 로동계급이 식민지적 폭압기구를 혁명적으로 분쇄하고 자기의 진정한 주권을 전취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주권전취의 근본방도를 명시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조국의 해방과 자기의 주권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탁월한 령도로써 가장 포악한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기구를 때려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파쑈폭압기구를 혁명적으로 폭파하시였을뿐아니라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인 국가주권을 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이 당면한 임무로 나서고있던 당시 우리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맑스-레닌주의국가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작성하시였으며 그것을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로선에서 인민정권의 성격과 함께 그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과업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혁명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모든 반제반봉건적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한 정권으로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전복과 민족해방을 당면임무로 하고 로동자, 농민뿐만아니라 모든 반제반봉건적계층들의 리익을 옳게 반영한 민주주의적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빛나게 구현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 사회경제적조건을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로선이였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에 세우게 될 인민정권의 형태와 성격, 그 임무를 천재적으로 밝힌 위대한 로선이였다.

이 로선은 조선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결속하여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기치,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그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력량이 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하게 된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것으로서 주권을 전취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로선을 제시하시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몸소 세우신 인민혁명정부는 장차 우리 나라에 창설될 새 형태의 인민정권의 원형으로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또한 장차 우리 나라에서 새 국가건설의 핵심이 될 혁명적골간을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줄 아는 단련되고 세련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으며 인민정권을 창건하기 위한 혁명적골간이 준비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혁명적골간의 준비는 로동계급의 주권문제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예속에서 주권을 가져본적도, 정권을 운영하여본 경험도 없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성을 띤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그리고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끝까지 관철하며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철두철미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줄 아는 단련되고 세련된 수많은 혁명투사,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국가정권을 수립하고 그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한없이 귀중하고 다방면적인 경험들을 수많이 쌓으시였다.

이렇듯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주권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며 장차 우리 나라에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세울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인민정권을 세우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식민지통치기구는 전복되였으나 새로운 국가주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여야 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사업이였다.

세계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미제와 그와 야합한 국내반동세력들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여기에다 각종 기회주의자들이 좌우경적구호를 들고나와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혼란시키려고 하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이 모든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참다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조국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의 침략적야망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에 대처하여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당의 정치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울데 대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당면과업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로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지식인들, 지어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7페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방침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일제식민지통치의 결과 반제혁명과업과 함께 봉건적관계를 청산하는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하였던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한 유일하게 정당하며 과학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 독창적방침에 기초하시여 1946년 2월에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으며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시여 1947년 2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설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빛나

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인민위원회는
그이의 령도밑에 자체의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
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
자들은 처음부터 조선인민의 민주주의
적독립국가건설을 반대하여나섰으며 남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
시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애
국적력량을 탄압하고 지주, 예속자본가
및 민족반역자들을 긁어모아 반동적괴
뢰정권을 조작하여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조성된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
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립법
기관을 설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헌법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적인 구국
대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조직동원하
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와 같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북반부
에서 이룩된 제반 사회경제적변혁에 기
초하여 그리고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
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속에
서 창건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
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
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
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4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실
로 근반세기에 걸치는 자주독립국가건
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지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
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
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
자들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자주독립국가의 슬
기로운 민족으로 되였다. 공화국의 창
건으로 우리 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
가의 기치밑에 새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
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
리 인민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
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철
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
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는 자기
발전의 지나온 진행정에서, 특히 위대
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나 또한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였던 전
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자기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월성을 힘있
게 보여주었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
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게 됨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
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
길의 시초를 열어놓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공화국의 영예와 존엄을
빛나게 지켜냈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또한 자기의 사회주
의적자주독립국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진국적관도에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
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였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제
국주의반동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
는 준동을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
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
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그 위력의 장성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 공화국기치밑에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오래동안 제국주의 예속에서 신음하던 동방에 새로운 사회주의의 위력한 보루가 축성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불패의 국가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공고발전—이것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은 피로써 쟁취한 자기의 독재국가를 불패의 무기로 공고발전시켜야만 제국주의세력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혁명의 온갖 원쑤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공화국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공고발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로 나서는 국가활동의 지도적지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였기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나가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정치에서 언제나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시고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공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사법정책 등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모든 정책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제반전략전술적방침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가장 정확히 규정하고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였으며 대외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하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나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로선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나라의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로 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형편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해방직후에 벌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특히 전후 재더미우에서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의 륭성발전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의거하여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쌓음으로써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공화국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였다. 또한 과학문화분야에서도 주체를 튼튼히 세운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사업과 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찬란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개화발전시키게 되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언제나 자체의 힘으로 적들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강력한 방위태세를 갖추게 하는 자위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무력적기초로 되는 조선인민군을 제때에 창건하시였으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시고 그 어떠한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마련하여놓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함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리론을 국가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믿음직하게 옹호보위하며 관철하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에 상응하게 공화국정권의 대내외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정확히 실현하심으로써 극소수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진압하고 절대다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문화교양자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로 제기하시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또한 수령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이 관철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함께 방위적기능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변화된 새환경에 맞게 국가, 경제 기관들

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창조적인 조치들을 취하시였으며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를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에 대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도가 아래에 더욱 접근하게 되였으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며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서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모든 문제를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무궁무진한 열의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우리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인민을 위하여 더욱 철저히 복무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의 지도수준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정무원들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보다 깊어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력사적조건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명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명시하여주시였으며 그 길로 우리 인민을 인도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해결의 원칙적방도,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의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문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문제등은 모두다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이며 국가활동의 지침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공화국정부의 대외적기능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하시였으며 전반적세계혁명을 비상히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실로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그를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함으로써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주동적으로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세기적변혁을 이룩

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오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의 보금자리를 보고있으며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그 기치밑에 조국땅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열의를 다 바치고있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우리 공화국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인민이 주권을 틀어쥐여야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번영하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불패의 보루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더욱 용감히 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은 60만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어머니조국으로 되고있다. 지난날에는 나라없는 인민으로서 이국땅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정치적무권리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오던 수많은 해외조선동포들이 오늘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공민으로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한결같이 우러러받들고 민족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이며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공화국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의 반항을 철저히 진압하는 동시에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다그쳐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과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길을 따라 굳세게 싸워나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모두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싸워나아가자.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

로 동 혁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가장 정확히 이끌어오시였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인간개조문제에 맑스-레닌주의적해명을 준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선행고전가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전취와 사회주의혁명의 수행방도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 관한 문제 등과 같이 주로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 문제에 대한 리론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삼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인간개조문제는 해명되지못한채로 남아있었다.

이 문제는 오직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시되고 완성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사람들을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키우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대한 과학적해명으로 된다.

이 리론은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를 천재적으로 밝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뿐만아니라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문제,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문제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다같이 정확히 풀어나가는 근본방도를 명시해준 위대한 사상이다.

실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뿐아니라 전사회를 공산주의화하는 천재적혁명리론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현실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이 독창적인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추진시켜야 한다.

1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면서 사상혁명의 계급적본질과 그 력사적필연성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상혁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자기의 사상대로 개조하며 그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만 자본주의사상독소를 뿌리뺄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되살아나지 못하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혁명에 마땅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49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가르치심에서 사상혁명은 로동계급이 착취계급을 전복하고 정권을 쥔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남아있게 되는 자본주의적사상독소들을 뿌리빼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계속혁명의 과업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사상혁명은 착취계급이 이미 계급으로서 청산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계속되는 계급투쟁의 주되는 형식을 이룬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자본주의적사상독소를 철저히 뿌리빼버려야만 자본주의가 되살아나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낡은 사상독소를 철저히 뿌리빼고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그 영향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만 사회주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비록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되였다 하더라도 내부에 아직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있고 적대적요소들이 준동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되여야 한다.

사상혁명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가 가지는 계급적특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계급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독소를 뿌리빼는것과 함께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게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개조하여 사상생활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력사적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여도 사회를 관리하며 기술을 움직이는 주인인 사람들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1페지)

사회주의는 한편으로 낡은 계급사회가 도달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준의 생산발전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상의식을 요구한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은 바로 이 두 측면의 과업을 다같이 훌륭히 해결하여야만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상을 그에 상응하게 개변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사회는 공고한 토대우에 설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칙을 생활에 구현할수 없다.

의식개변문제는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사상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개변할수 있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을 조

성해주지만 사회주의하에서도 의식개변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착취계급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주의사상은 오직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낡은 사상독소를 점차 뿌리빼는 조건에서만 형성되며 공고화될수 있기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의식속에 뿌리박힌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의 낡은 사상독소는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띠며 그것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령역에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동지적협조와 단결의 강화를 끊임없이 방해하며 새로운 사상의 발생발전을 저해한다. 새로운 사상은 오직 이와 같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날카롭고도 장기적인 투쟁속에서만 승리하며 공고화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상혁명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의식의 령역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생활의 전령역에서 낡은 사상독소를 뿌리빼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넘어갈수 있는 사회적전제를 마련할수 있다.

사상혁명은 특히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낡은 사상잔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들을 모두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미 이룩한 사회주의전취물을 공고히 할수도 없으며 빨리 앞으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0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경제관계들이 없어진 다음에 사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은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들이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지배적이였던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일반적생활원칙인 집단주의사상과 량립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낡은 사상 잔재로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근로자들의 동지적협조와 공동로동에 대한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된다. 근로자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 건설되는 사회주의는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들과 온갖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반동사상독소들을 말끔히 닦아내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급속히 발전할수 있으며 공고화될수 있다.

따라서 사상혁명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여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만약 주권을 쥔 로동계급이 사상혁명문제, 각계각층 군중의 혁명화문제를 잘 풀고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간다면 공산주의에로 빨리 나갈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은 걸음마다 난관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특히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직 세계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다른 지역에는 자본주의제도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499페지)

오늘 우리 당앞에는 두가지 큰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그 하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다.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짓부시고 조국을 통일하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머리속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들을 말끔히 가시고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필승불패의 힘으로 꾸려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의 과업을 밝히시면서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의 과업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독소를 빼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를 길러내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결국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은 부단한 교양과 투쟁,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에 나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선전교양에 의하여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고 혁명에 끌려들어가는것이며 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혁명투쟁을 시작하게 되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동안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련되며 집단과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이 사회와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는것은 아니다. 혁명적세계관은 끊임없는 교양과 투쟁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형성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은 교양, 투쟁,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첫째로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게 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부패상을 미워하게 되고 그로부터 증오심을 맨 처음에 가지게 된다.

이러한 증오심으로부터 다음으로는 이 낡고 부패한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겠다는 사상을 가지게 된다. 때려부시려면 무엇이 나와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때려부신 다음에는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해야 된다는 사상이 나온다. 그때에는 벌써 혁명적세계관이 수립되는 단계로 들어가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근본문제는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해석침투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9페지)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사상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하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공산주의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를 길러낼데 대한 철저한 혁명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만 진정으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혁명투사, 참다운 조선의 공산주의자를 길러낼수 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우리 나라 사회발전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백전백승의 과학적사상이며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곧바로 이끄는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사업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는 백과전서적인 위대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근본리익과 념원을 가장 심오하게 반영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할수 있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그것을 자로 하여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들을 가려내고 철저히 분쇄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속에서 수령의 교시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진심으로 받들고 심장으로 옹호하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확고히 수립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우리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그것들을 철저히 뿌리빼버림으로써만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계급적원쑤를 극도로 증오하는 정신을 배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모든 일군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교양사업을 강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모두다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사람들을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당생활과 사회단체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정치생활을 잘하며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을 집단주의사상,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상혁명의 가장 중요한 투쟁대상인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에게는 개인주의, 리기주의가 나타날수 없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집단과 조

직을 사랑하고 정치적생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제도와 자기 당을 사랑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공산주의사상을 가질수 있다. 또한 그러한 사람만이 계급적원쑤를 무한히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는 누구보다도 로동계급과 자기 인민을 사랑하는 동시에 계급적원쑤를 극도로 증오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만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와 그의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 그 2중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반동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뿐만아니라 놈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 견결히 싸우는 강한 투쟁정신을 길러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재산을 적극 애호절약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품성을 길러주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전체 근로자들이 우리의 모든 재부가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고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조금이라도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애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0페지)

국가와 사회 재산을 망탕 다루며 살림살이에 주인답지 못한것은 공산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며 자본주의사상의 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근로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재부를 귀중히 여길줄 알며 그것을 끊임없이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우리는 국가사회재산을 함부로 랑비하며 나라살림살이를 되는대로 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하기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며 당정책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맡겨진 혁명과업을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하지 않고 되는대로 하는 현상 등을 반대하여 날카로운 투쟁을 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알뜰한 살림군으로, 진정한 애국자,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공산주의적도덕분야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락후한 생활인습과 도덕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덕을 발전시키며 전사회에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게 하는것은 사상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도덕의 소유자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인민들속에서 아름다운 도덕과 풍습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밖에는 모르는 사람으로 아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도덕을 잘 지키며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을 존중히 여깁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76페지)

로동계급이 주권을 쥔 사회주의사회에는 부르죠아도덕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도덕이 지배하게 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근절된 사회주의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과 동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국가와 사회 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아끼고 보호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살며 일하는 원칙이 작용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이러한 도덕원칙은 사람들이 낡은 부르죠아도덕과 락후한 생활인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면 될수록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여간다. 따라서 새로운 공산주의적도덕은 낡은 도덕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전면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급속히 추진되여 나라의 문화적재부와 공공시설이 날로 늘어나는 오늘 특히 근로자들속에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습성을 길러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학교, 병원, 공원, 철도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알뜰히 거두지 않거나 군중규률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공중도덕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습성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모처자를 사랑하고 늙은이를 존경할줄 알며 혁명동지를 극진히 보살펴주며 생활에서 검박하고 태도에서 언제나 겸손하도록 적극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인민생활에 무관심하고 인간성이 없는 현상, 학습을 싫어하는 현상, 당 및 국가 기밀을 루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면서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의식속에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는 동시에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꾸준하게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그리고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소유한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데 적극 힘써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한사람이라도 건져서 공산주의로 같이 나가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요구는 의식개변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사람들의 의식개변은 낡은 사상독소를 빼고 새로운 사상을 넣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꾸준한 교양사업과 함께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사상리론적량식을 끊임없이 넣어주기 위한 교양사업과 낡은 사상 잔재를 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머리속에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수립될수 없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 있어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특히 사상투쟁을 옳게 진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나쁜 사상독소들은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빠질수 없으며 더우기 강한 사상투쟁이 없이 저절로 빠질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사상혁명은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을 목적으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계급투쟁이다. 그렇기때문에 사상혁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코 낡은 사상과의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낡은 사상에 대하여서는 그 사소한 표현과도 타협하지 말고 강한 투쟁을 벌릴 때에만 그것을 뿌리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낡은 사상에서 해방하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투쟁은 비판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비판으로 투쟁을 벌리고 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비판을 벌려서 투쟁을 하고 투쟁을 통하여 개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도를 새롭게 천명한것이며 사상혁명의 과업과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교시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은 폭력적방법으로 적대분자들을 청산하는 투쟁과는 달리 비판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판을 벌려 투쟁하고 투쟁을 통하여 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사상혁명의 이러한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비판, 투쟁, 개조의 방침에는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한사람이라도 건져서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시려는 어버이 수령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판, 투쟁, 개조의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비판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판은 반드시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 없어야 하며, 비판에 대한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감투》를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비판에 대한 이러한 원칙적요구를 옳게 지킬 때에만 비판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결함을 진실로 뉘우치게 하며 비판을 통하여 동지들에게 가장 좋은 방조를 줄수 있다. 또한 비판이 이렇게 될 때에만 사람들이 비판을 꺼려하지 않고 그것을 습관화할수 있으며 비판을 동지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의 표시로 알고 그것을 사업의 개선을 위한 힘있는 무기로 리용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벌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혁명적조직생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조직생활을 통한 비판은 사상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을 떠나서 사람들은 혁명가로 성장하고 세련될수 없으며 사상투쟁을 벌릴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속한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하여 조직생활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항상 조직내에서 사상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근로자들속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특히 일군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속에서 강한 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의 성과는 지도일군들자신이 어떻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군중에게 모범을 보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혁명화는 기층조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우선 세포, 초급단체, 작업반과 분조, 가정을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 전당과 전사회의 혁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독소들을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 근로자들의 통일단결을 일층 강화하고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학습을 더욱 심오히 하자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심오히 함으로써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은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에 찬 40여년간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더욱 심오히 학습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40여년동안 공산주의운동을 위하여 싸웠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여러번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서 나타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서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투쟁을 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0페지)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조선혁명의 지난 40여년간의 력사는 바로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이다.

불멸의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조국의 독립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력사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인민정권을 세우시였으며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시고 인민군대를 창건하시였다. 그리하여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완수되였으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창설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

해방전쟁시기에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섬멸적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다 파괴되였던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중첩되는 온갖 난관을 타개하시면서 인민대중을 천리마의 대진군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력사적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시는 한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남북조선인민을 확고히 인도하고계신다.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실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탁월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계신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기여하신 불멸의 업적과 거대한 공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한없는 존경을 받고계신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와같이 불멸의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40여년간의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는것을 더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시킴으로써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위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서 거대한 작용을 한다.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은 우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혁명투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문제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해방후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수령의 혁명활동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그 정당성이 여실히 확증된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그리고 그것을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구현한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만 조선혁명에 관한 확고한 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도 그것을 완강히 극복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다.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학습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승리해온 력사이며 조선혁명을 오늘의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아로새겨진 력사이다. 그이께서는 일관하게 강의한 혁명적원칙성과 불요불굴의 투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만난을 헤치며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깊은 배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위대한 모범으로 일관되여있다. 수령께서는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상론하시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이께서 보여주신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확고한 계급적원칙성,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성 등을 체득하게 되며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의 탁월한 모범을 따라배우게 된다.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과 그 실천적방도를 가르쳐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과의 투쟁을 벌리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자본주의의 반동적본질과 제국주의의 야수적인 본성을 똑똑히 깨닫게 함으로써 착취와 압박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계급을 끝없이 증오하며 낡고 썩은 통치제도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려는 혁명의식을 가지게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자면 우선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본성과 제국주의, 자본주의 제도의 부패상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을 가지며 이러한 증오심으로부터 원쑤를 때려부시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들어서며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신 다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높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견결히 투쟁하는 필연적인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매개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움에 있어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들이며 혁명적세계관형성을 위한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요구들이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과 그의 본질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는 것은 곧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그것을 부단히 완성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고귀한 귀감으로 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은 이와 같이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의 충실한 계

승자로,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조선의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우리의 후대들을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이 땅우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간고한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를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확고한 립장과 각오를 더 굳게 다지게 한다.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은 특히 우리의 후대들을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체득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대를 이어 혁명을 끝끝이 떠메고 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후계자로 키울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간고한 혁명적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에게 착취사회의 본질과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을 똑똑히 인식시킬수 있게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 세계반동파들을 종국적으로 타도하고 매장할 때까지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여 싸워나아가는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학습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현세대뿐만아니라 후대들까지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높은 자각적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부단히 촉진시킨다.

수령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높은 덕성에 대한 심오한 파악,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여주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보다 높이 북돋아준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이 더욱 충만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적극성과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한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끝없는 흠모, 그이를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은 절대적인 것으로 되고있으며 실생활을 통하여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계속 앙양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는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점령못할 요새란 없으며 해결못할 과업이란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학습이 심화됨으로써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사람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와 정신도덕적면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를 부단히 심화시켜나갈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우리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심오히 학습하여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단체들은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공산주의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1페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영예로운 의무이며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앞에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심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는것이다. 수령의 혁명활동을 체계적으로 따라배움으로써만 우리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와 높은 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할수 있고 우리 당과 우리 혁명, 그리고 오늘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깊이 인식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자라나시였고 혁명사상을 키우신 그이의 혁명적가정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이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는 그이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한 위대한 력사적시기였으며 그이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고 승리에로 이끄신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적시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5페지)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령께서 몸소 이룩하신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빛나는 투쟁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귀중한 재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쌓으신 고귀한 경험과 업적들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심으로써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보위하여야 하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여야 한다.

현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시켜 그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거점이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력사를 일목료연하게 보여주는 도록과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 그리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이 갖추어져있다.

또한 연구실에는 실장, 강사들을 비롯한 준비된 선전일군들이 배치되여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직접 조직지도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운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강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강사들은 각이한 수준과 직위 그리고 서로 다른 혁명초소에서 일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해설침투시키는 영예로운 임무를 직접 담당수행하고있다. 따라서 강사들은 누구보다도 정치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하며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당조직들은 강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강사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그들을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상사업을 맡아보는 동무들자신이 먼저 혁명화되여야 하며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동무들자신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강사들에게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천재적로작들 그리고 교시들을 깊이 연구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특히 강사들속에 김일성동지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과 그이의 초기혁명활동으로부터 항일무장투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시켜 거기에 일관되여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전면적으로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강사들을 위한 강습, 방식상학, 경험교환회, 세강합평 등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조직하여 그들의 학습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강사들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심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그들의 학습지도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강의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는것이다.

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혁명력사를 전

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시키며 학습문제에 대한 리해력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사들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학습지도방법이 좋지 못하거나 강사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할 때에는 학습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러므로 강사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한편 학습지도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강사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단체들과 당기관들은 당교양사업의 내용과 방법들에 대하여 당회의에서 토의하며 그 결정집행을 위한 지도검열사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경험들을 제때에 일반화하며 당교양사업에서의 무계급성과 무사상성 그리고 온갖 형식주의와 독경주의를 퇴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17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실속있게 조직지도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위원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첫째가는 과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책임일군들의 관심밑에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조직들과 책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해당한 지도대책을 수시로 세워야 하며 강의를 체계적으로 참관하고 좋은점은 일반화하며 부족점은 바로잡아줌으로써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운영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운영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만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으며 학습진도와 출석률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그 운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만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또한 수령의 혁명력사학습을 심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비롯한 수령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문헌들과 학습자료들을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학습하도록 하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문헌으로서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물론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학습을 정확히 조직하며 그 내용을 통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내용을 통달한다는것은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일관되어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워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

의 혁명활동략력》학습을 실속있게 조직지도하고 그에 대한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학습에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학습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은 반드시 실천활동과 결부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결국 혁명을 잘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혁명전통교양을 더 심도있게 하여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갈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으며 형제적맑스-레닌주의당들과 함께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쉴없이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0~31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전진도상에 있다.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한편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숭고하고도 무거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결속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계속 심오히 학습함으로써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명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 교육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발전의 강령적지침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리론의 창시는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정치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은 문명한 인간으로 만들며 특히 후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키워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교육강령으로 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세울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가장 선진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나라로, 《교육의 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교육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교육분야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여러가지 기회주의적사조가 뚫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맑스-레닌주의원리에 근거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교육학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교육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교육사상이다.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교육의 창조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교육사상이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교육리론의 일반적원리를 자기 나라의 교육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그것을 가일층 발전시킬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반영한 위대한 교육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교양사업은 응당 우리의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수행에 실제적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27페지)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철두철미 우리 후대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불요불굴의 혁명가로,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있어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만 사회주의교육을 급속히 발전시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혁명가,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키워낼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교육에서의 주체확립은 사회주의교육으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자기 나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무장시킬수 있게 하며 그들을 자기 나라의 기후풍토와 자연부원 그리고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잘알며 자기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훌륭한 공산주의투사로, 쓸모있는 민족간부로 교양육성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것은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온갖 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감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의 자주성과 독자성과 자립성을 굳건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교육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는 목적은 결국 민족적자부심과 신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잘하자는데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잘하는것이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세계혁명앞에 지닌 기본임무입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먼저 조선혁명을 잘해야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29페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우는것이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매개 사회주의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여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이룩되는것만큼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될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매개 나라가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나라와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유능한 민족간부를 훌륭히 육성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적인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으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세계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이룩된 다음에도 교육을 포함한 민족적인 문화의 전통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될것이며 그 우수한 전통은 계승될것이라는 불멸의 사상을 내놓으시였

다. 수령의 이 위대한 사상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세계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과업해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실로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교육사상과 리론을 확고한 로동계급의 계급적로대우에서 더욱 심화발전시킨 강령적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혁명적본질과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불멸의 사상적기치이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으로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교육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교육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당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봉건적, 부르죠아적 및 온갖 기회주의적 교육사상의 침습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교육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교육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교육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의 교육과 부르죠아사회의 교육목적은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모순됩니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모순을 반영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해당 사회제도에 기초하고있는 모든 교육은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며 따라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은 교육분야에서 반드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교육분야에서의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은 사회주의교육과 부르죠아교육,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과 온갖 기회주의적교육리론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

교육분야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제도와 교육의 계급적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교육과 부르죠아교육사이의 근본적인 대립과 모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제도사이의 적대적인 모순관계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제도의 성격은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주권이 로동계급의 손에 있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은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지만 주권과 생산수단이 소수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은 지주, 자본가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수령께서는 사회제도와 교육의 계급적성격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근거하시여 사회주의교육은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계선이 쭉 갈라진 교육,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을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위한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전재적으로 밝히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자체의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하며 가장 선진적인 로동

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당적지도는 사회주의교육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견지하며 교육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의 혁명적본질이 있는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분야에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를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교육의 목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당면한 문제만아니라 장래운명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를 명백히 제시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되였다.

이 문제는 오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을 키워내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도록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 곧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교육학의 원리이며 기본입니다.》(우와 같은 책, 504페지)

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위대한 교육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사회주의교육은 바로 이 과업을 수행하는 사상혁명, 문화혁명의 중요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는 천재적 교육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수령의 이 독창적인 교육사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특성과 기본임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규정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에 근거하여 설정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의사에 따라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상, 문화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학교교육기관들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높일수 있다.

학교교육기관들이 수령께서 천명하신 교육의 목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의 자질과 고상한 도덕적품성의 소유자로 교육교양하여야 대를 이어가면서 로동계급의 혁

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사람들의 사상발전과 인격형성의 특성,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탁월한 교육사상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당면과업해결에서뿐만아니라 공산주의미래를 예견한 불멸의 교육사상이다.

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이 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에 있어서 사회주의교육이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그것은 당사업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의 이 위대한 사상에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건설되며 따라서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요인도 다름아닌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에 있다는 그이의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사상이 반영되여있다.

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바로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케 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인 확고부동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게 하는 천재적교육사상이다.

2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튼튼한 립장에 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27페지)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교육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교육내용의 근본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명으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교육교양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과 후대들에 대한 교육은 결국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귀착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교육교양하는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선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불굴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유일한 길이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을 인식하고 변혁하는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에 가장 충실한 혁명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으로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혁명리론,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고매한 덕성은 모든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할 사상정신적풍모의 숭고한 전형이며 그들이 따라배워야 할 최고의 귀감이다.

따라서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내용의 근본을 이루며 초석을 이룬다.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교양하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불굴의 공산주의자로 되게 할뿐아니라 학교교육의 내용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학교교육기관들에서는 또한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주기 위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교육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현대적인 과학기술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창조적인 교육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이 창조적인 교육원칙은 사회주의교육이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상교양과 기술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훌륭히 육성하며 혁명과 건설에 교육이 더 잘 복무할수 있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함께 그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교육교양하자면 교수를 당정책화하며 학생들속에서 집단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과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등 선진적인 교육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께서 천명하신 교수를 당정책화할데 대한 방침은 아직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던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것으로서 사회주의교육내용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모든 교수를 당정책화함으로써만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진수를 깊이 깨닫게 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수령께서는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공부를 잘하는것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기 조직을 사랑하며 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는데 버릇되게 교양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방도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명한 방도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손에 있는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우리 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어릴때부터 탁아소, 유치원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학교에서 소년단, 사로청 등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사람들의 세

계관확립과 인격형성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학교에서의 조직생활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학교에서의 조직생활과 집단생활은 후대들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할수 있게 하며 집단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체력을 단련할수 있게 하며 공동생활속에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소유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수령께서 밝혀주신 후대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인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쓸모있는 역군으로 키울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주의교육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과학적인 방도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방도들은 사회주의교육내용을 가장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급속한 발전과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방도이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여주신 교육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도 등은 서로 밀접히 련관된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는 천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 사상이며 리론이다.

3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은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남김없이 확증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혁명의 량식인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리론을 비교적 깊고 폭넓게 가르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필요한 산 지식을 넣어주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구현하는 행정에서 우리의 교육기관들과 일군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교육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려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수립되였다. 또한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서고 학교교육기관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이 현대적인 실험설비들로 굳건히 꾸려지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교육기관들은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하는 믿음직한 민족간부육성의 기지로, 사상혁명의 중요한 수단으로, 문화혁명, 기술혁명의 거점으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교육제도를 세울수 있었고 우리가 교양육성한 일군들로써 나라와 인민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민족을 문명한 사회주의민족으로,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나라로, 《주체의 조국》, 《배움의 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배려가 있음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교육사상과 리론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선행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은 교육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당대의 사회력사적제한성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 대한 완벽한 리론을 내놓을수 없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환되고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많은 인민들이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일떠서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완성하는가 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해독적작용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교육사상의 진수를 고수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완성하는 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지체할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제기한 이 절박한 문제는 오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은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견결한 혁명적립장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교육강령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수령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에 후대육성사업과 교육사업에서 이룩하신 찬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더 없이 귀중한 공동의 재부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사상과 리론은 온갖 기회주의적교육리론과 반동적부르죠아교육리론에 치명적타격을 주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게 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과 교육의 목적,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사상, 문화 혁명의 중요한 무기로서의 학교교육기관의 위치와 역할, 교육의 내용과 방도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리론을 집대성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또하나의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교육사상과 리론의 혁명적본질과 그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의 탁월한 교육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교원들자신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친위대, 결사대로 교양육성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천재적교육사상과 리론을 훌륭히 구현하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수령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리론이 공화국북반부에서 보다 활짝 꽃피게 할뿐아니라 전국적범위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계획화방침

윤　기　복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65년 9월 23일 국가계획위원회당총회에서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교시를 주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계획화의 실천적경험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획화사업의 중요성과 그 개선의 필요성을 밝히시고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내놓으시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천명하신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계획화의 근본문제들에 처음으로 완벽한 해명을 준 고전적로작이며 인민경제계획화실천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며 이 원칙은 계획화에서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나라에 맞게 계획화를 완성하여나가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6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됨에 따라 조성된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계획을 일원화하고 세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계획화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유일하게 옳은 계획화방도라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이 제시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것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더욱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계획화의 중요성과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혁명적본질 및 우월성을 천명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바와 같이 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243페지)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계획화가 없이는 인민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할수 없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경제활동이 유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만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하고 인민생활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계획화사업을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간주하시고 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오시였으며 계획화 체계와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위대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누구도 내놓은 일이 없는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가장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은 사회주의계획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가장 창조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인민경제의 계획화실천에서 혁명적변혁으로 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란 온 나라에 뻗쳐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254~25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계획의 일원화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사회주의경제를 유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움직여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민경제계획을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대로, 우리 나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대로 세우게 함으로써 계획을 철두철미 당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계획화사업이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게 한다.

계획을 일원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에 국가계획위원회의 현지주재기관으로서의 지구계획위원회들이 창설되였으며 지구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와 시(구역), 군 국가계획부를 내오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모든 기관, 기업소의 계획부서들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복종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계획기관들에도 각각 종속시켜 그것들을 계획세포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국가가 나라의 계획화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집행할수 있는 정연한 일원화체계가 확립되였다.

계획을 일원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모든 계획을 정연한 일원화체계에 따라 정확히 맞물리고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독창적인 계획화방도를 가르쳐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을 세부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60페지)

계획의 세부화는 당의 정책적요구와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발전의 전반적균형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린 계획을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세부계획화의 본질적요구는 계획의 구

체성과 균형성을 보장함으로써 당정책을 정확히 구현한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지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계획화함으로써 사소한 자연발생적요소도 없애고 경제발전의 계획성을 확고히 보장할것을 전제로 한다.

계획의 세부화에서는 또한 인민경제의 부문간, 부문내부간, 지역간 그리고 기업소들간의 경제적련계를 반영하는 모든 균형들을 단일한 국가지표에 의하여 기업소별로 직접 맞물리게 된다.

인민경제계획의 법적성격을 강화하는것은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계획의 세부화는 구체적으로 설정된 모든 계획을 례외없이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계획과제로, 법적과제로 규정해줌으로써 기관, 기업소들사이에 일체 도의적인 계획을 없애고 계획화에서 엄격한 국가적규률을 확립할수 있게 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기본문제들이다.

계획의 일원화가 없이는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일원화의 우월성을 나타낼수 없다. 계획을 일원화하고 세부화하는 조건에서만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경제활동의 세부분에까지 미치게 할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모든 고리들을 구체적으로 맞물려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전환시킬수 있고 당의 의도와 경제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한 동원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다.

이 모든것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인민경제계획화에서 대안체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계획화사업을 철저히 중앙집권적방법으로, 강력한 국가적규률에 의하여 진행할수 있게 하며 군중의 창조적열성을 적극 발휘시키고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바로 그 혁명적본질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은 사회주의계획화의 본질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체계는 계획화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한것으로서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의 창의창발성,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군중로선을 옳게 배합한 가장 위력한 체계입니다.》(우와 같은 책, 25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힘있는 계획화수단으로서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은 위대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획화사업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적요구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계획화방도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거대한 우월성은 무엇보다먼저 계획화에서 국가적요구와 생산자들의 의견을 잘 배합하여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는 현실적이고 동원적이며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이 바로 되려면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앨뿐만아니라 계획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통제를 강화하여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주의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5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국가계획기

관들의 주관주의를 없앨뿐만아니라 생
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
를 없애고 전반적인 국가적리익의 견지
에서 국가의 요구와 생산자들의 의견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계획화체계에서는 될수록 보
장은 적게 해주면서 생산은 많이 할것
을 요구하는 국가계획기관일군들의 주
관주의, 관료주의와 될수록 보장은 많
이 받으면서 생산은 적게 하려는 생산
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와
의 모순이 있었다. 다른 한편 국가계획
기관일군들은 전반적나라살림살이와 경
제발전전망을 알지만 구체적인 현실조
건과 생산예비를 잘 모르는 반면에 생
산자들은 구체적현실과 생산예비는 알
지만 나라의 살림살이형편과 경제발전
전망을 잘 모르는 모순이 있었다. 이것
은 전국가적, 전인민경제적 립장에 선
동원적이며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지장을 주게 되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국가
계획기관일군들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를 없앨수 있게 한다.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는 옳은
계획을 세우며 작성된 계획을 성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계획화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설
비상태, 자재의 보장, 로동력, 생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수
준 등 생산의 모든 요인들을 구체적으
로 알고 세밀하게 타산하여야 한다. 그
런데 이 모든것을 제일 잘아는 사람은
생산자대중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
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
이 발양시키며 그들을 계획작성과 그
실행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계
획화사업을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만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
획을 세울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
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계획을 성과적
으로 수행할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국가계획기
관일군들로 하여금 생산자대중속에 깊
이 들어가 생산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생산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게 함
으로써 국가적요구와 객관적현실의 결
합을 확고히 보장한다. 이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생산을 지도하는 사
람이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그들자신의것으
로 만들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또한 계획
화사업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전면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
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바로 경제
분야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는 가장
옳은 길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552페지)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의 강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필
수적요구이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그를 보장하는 가장 훌륭한 방도이다.

사회주의국가는 나라의 모든 경제생
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있다.
나라의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
고 계획적으로 지도하는것, 이것은 프
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직능의 하나
이다. 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지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균형
적 발전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계획
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
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더 강화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만 사회주의경제를 유일한 계획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일수 있고 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있
으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나
갈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계획화사업
을 단일한 체계에 의하여 진행하게 함
으로써 계획화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
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경제활동의

세부분에까지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게 한다.

이와 같이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계획화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요구와 객관적현실에 맞는 참말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계획화방도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확고히 담보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에 옳은 균형을 보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을 보장하는것이 계획화사업에서 기본이며 또 그것이 계획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종합적균형과 세부균형에 의한 전반적균형의 옳은 설정, 적극적균형에 의한 높은 속도의 보장 등 균형설정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질적요구이다.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이 법칙으로 되여있다. 사회주의제도가 공고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는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옳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균형과 함께 세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에 근거하여 축적과 소비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간, 공업과 농업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간의 균형 등을 정확히 유지할수 있게 하며 경제발전의 총적방향을 규정해준다.

이러한 종합적균형들은 부문내부간, 기업소호상간, 기업소내부 생산공정간, 생산의 제요소간의 균형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는 세부균형에 의하여 확고히 안받침되여야만 현실화될수 있다.

만일 큰 수자나 종합적인 지표만 확정하고 기업소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맞물리지 않는다면 전반적균형을 옳게 유지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나라살림살이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계획화하여 인민경제의 종합적지표들과 함께 세부지표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맞추게 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확고히 보장하고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계획화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기풍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으며 사람들의 호상관계는 동지적협조와 단결로써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획화사업도 응당 생산자들호상간, 기업소호상간에 서로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긴밀히 협조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내놓은 새로운 계획화체계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작전국으로 하고 산하 계획기관들과 계획세포들을 팔다리로 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정연한 체계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같은 단위의 계획기관, 계획세포들이 호상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상하합심하며 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화체계는 계획일군들과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높이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여기에서 계획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며 계획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만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계획기관들이 당과 정부의 경제작전국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으며 당정책집행에서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나아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67~268폐지)

계획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며 계획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당의 경제정책집행에서 계획기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여기에는 또한 혁명적인 계획화 체계와 원칙뿐만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시고 계획화실천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우리 계획일군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의 높은 신임과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계획기관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경제작전국이다. 전투에서의 승패가 작전계획을 잘 세우는가 못세우는가에 따라 좌우되듯이 우리 계획기관들이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의 향상 등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의 성과적관철여부가 크게 좌우된다.

계획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계획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속에서 인민경제의 계획화사업을 직접 맡고있는 우리 계획일군들의 책임은 참으로 무겁다. 계획일군들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여야 하며 누구보다도 혁명정신이 강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야 한다. 계획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높아야만 당의 계획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계획일군으로 될수 있으며 경제작전국으로서의 계획기관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우월한 사업체계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일군들이 의연히 낡은 방법대로 사업한다면 새 체계의 참다운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없다.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만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우고 모든 계획세포들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잘 움직여나갈수 있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계획화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며 그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계획화방도이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계획화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한것으로서 사회주의계획화발전에서 혁명적인 전환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체계는 계획화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우리 나라 계획화체계에 있던 불합리한 점들을 없애기 위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계획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리론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자기의 머리로 자기 나라의 계획화체계를 완성하여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25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사상과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계획화의 독창적인 방도를 제시하시고 계획화의 리론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통하여 종전의 계획화 체계와 방법에 내재하던 불합리한 점들을 없애고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의 보장문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군중로선의 결합, 혁명적인 계획화체계와 과학적인 계획화방법의 유기적인 결합 문제 등을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계획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계획화사상이 천명됨으로써 계획화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능을 높일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비로소 창조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높은 계획성과 철저한 균형성을 보장하는 원칙과 방도가 밝혀졌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의하여 전반적인민경제발전과 모든 지방,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이 보다 계획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되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군중로선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그 혁명적원칙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계획화분야에서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킬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으로, 강력한 무기로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발기와 직접적인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완성된 새로운 계획화방도는 사회주의계획화분야에서 원칙적이며 일반적인 의의를 가지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기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자체의 거대한 우월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은 우리의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였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빛나는 승리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제발전에서의 높은 계획성과 확고한 균형성의 보장, 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의 강력한 추진,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의 비약적발전,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공고화 등 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달성되고 국방건설이 빨리 추진되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운영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과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다.

계획화사업에서 전국적일원화체계가 서고 군중로선의 원칙이 관철됨으로써 당의 의도가 계획일군들과 생산자대중속에 거침없이 침투되고있다. 수만종에 달하는 원료, 자재, 설비들의 생산과 공급사업이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계획화되고 구체적으로 맞물리고있으며 계획지표와 그 수행에 대한 법적성

적과 책임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에 대한 계획적지도와 기술관리, 자재 및 후방 공급 등 경제관리의 모든 측면이 더욱 째여지고 계획규률이 강화되였으며 온갖 예비들이 전면적으로 동원되게 되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도 새로운 전변을 일으킬수 있게 하였다. 주관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가 현저히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계획화사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여 호상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계획과제를 넘쳐수행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 긴장된 투쟁속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실천적경험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위대한 계획화방도라는것을 확증하여준다.

사회주의계획화와 전반적경제관리에서 혁명적변혁을 일으킨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실로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촉진하는 위력한 무기이며 모든 국가계획기관, 계획세포들이 앞으로도 계속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위대한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공화국북반부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반석같은 기지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하여야만 수령께서 제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위대성과 창조성을 옳게 파악할수 있으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어떠한 애로와 난관에도 굴함없이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계획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를 비롯한 모든 로작들과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 관철에서 높은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계획화사업에서도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은 항상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의 힘을 발동하여 계획화사업을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기관, 계획세포들과 그 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가계획작성과 그 집행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국가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누구도 그것을 어길 권리가 없다. 모든 부문 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은 국가가 제정한 계획작성 절차와 방법론, 일정을 철저히 지키며 국가세부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계획규률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계획화방도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 제5차대회전으로 무조건 점령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김 원 국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농촌지도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는 명확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농촌문제에 대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하시여 정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에는 농촌사업에 대한 종합적이며 통일적이며 직접적인 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지역적단위와 거점을 꾸려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농촌사업의 바로 이러한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서 가장 적합한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천재적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지로, 지역적거점으로 확고히 전변되였다. 모든 군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지방경제가 종합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군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사업에서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천재적리론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1페지)

농촌지도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을 설정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농촌경리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조건에서 농촌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통일적지도로 되여야 하며

당과 국가는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을 완전히 책임지고 직접 지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과 국가는 모든 농민들속에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시키고 그 집행을 옳게 조직할수 있으며 농촌에서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지도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을 설정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농촌사업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사업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것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 농민구성의 복잡성, 농촌경리의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 등과 관련되여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여있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것은 이여의 요인들과 함께 특히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되여있다. 분산성은 농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농촌사업의 대상은 전국각지에 널려있는 농촌마을들이며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널려 일하며 살고있는 농민들이다. 농촌의 이러한 분산성은 농업이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인 토지가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조건에서 농민들의 작업장이 널려져있지 않을수 없고 그들이 또한 소집단을 무어 널려 일하고 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의 분산성이 완전히 제거될수 없으며 항구적성격을 띤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가 협동화된 결과 농촌의 분산성이 훨씬 퇴치되였으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있으며 장차로도 계속 그러한것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농촌에서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이 특징을 고려하여 거기에 맞게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농촌사업을 조직지도함에 있어서 항구적성격을 띠는 농촌의 분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지역적단위와 거점을 옳게 설정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전반적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지역적단위를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농촌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직접적인 지도를 보장해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전반적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역적단위와 거점설정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그것이 농촌사업과 지방사업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 알맞춤한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주시였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알맞춤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내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에는 지역적단위와 거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지도대상과 지도력량 및 수단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지역적단위의 크기를 알맞춤히 설정하는것은 농촌사업에 대한 옳바른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지역적단위의 크기에 따라 지도대상의 수와 사업량이 규정되며 지도의 효과가 좌우된다. 지도대상과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직접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하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종합적발전을 이룩할수 없으며 지도력량과 물질기술적 및

문화적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해당 지역안의 자연지리적 및 기타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지도단위를 설정하는것은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유리성을 가진다.

또한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는것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지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지역적단위와 거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따라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은 모든 조건들을 다 알맞춤하게 갖추어야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나라 군을 튼튼히 꾸리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의 전형으로 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면을 폐지하고 작은 리들을 통합하여 그 규모를 크게 하시였으며 군을 농촌에 대한 말단지도단위로 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농촌에서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명시하시고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여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비상히 촉진할수 있게 하시였다. 청산리, 강서군, 그리고 창성군에 대한 그이의 력사적인 현지교시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튼튼히 꾸려지고있는 우리 나라 군은 농촌지도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 되기에 가장 알맞춤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 되고있으며 거점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군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합하다.》 (우와 같은 책, 61~62폐지)

우리 나라의 군은 그 규모에 있어서 20여개정도의 협동농장들과 약 1만정보의 농경지를 가지고있으며 그 단위의 범위내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타 조건들에서 차이가 심하지 않다. 군에는 군사업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의 경제문화발전과 군내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원만히 조직지도할수 있는 여러 기관들과 준비된 일군들이 있다. 또한 군에는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지방산업공장, 상품류통기관 등 농촌경리와 군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과 여러가지 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으며 학교, 병원, 영화관, 책방, 도서관 등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도 다 있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이며 과학적인 예견성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군들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졌다.

실로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현재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언제나 나라의 먼 앞날의 발전전망까지도 헤아려보시는 그이의 천재적이며 과학적인 예견성을 보여주는것이며 농민들도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가야 한다는 철저하게 혁명적인 립장을 보여주는것이며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모범으로 되는것이다.

* *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서의 우리 나

라 군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앙의 정책도 그에 따라 세워지는 도의 방침들도 다 군을 거쳐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갑니다. 군은 그야말로 당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말단단위이며 당의 정책을 농촌에 침투시키는 정치적거점으로 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3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에서 기본적이며 주되는 내용은 군이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지도를 보장하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군이 정치적거점으로 된다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당정책을 대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시키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 주민들의 생활에 접근하고있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다.

농촌과 로동자구 주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며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지도기관들의 지도밑에 당의 정책을 집행한다.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를 보장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게는 군을 통하여 실현된다.

정치적거점으로서의 군의 모든 사업은 군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당위원회는 군내 모든 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8페지)

군당위원회는 군내의 경제발전, 문화건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에서의 당조직사업과 정치사상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다. 군당위원회는 수령께서 주신 교시를 유일한 자로 하여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보장함으로써 이 기관들로 하여금 농촌에서의 경제, 문화 사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게 하며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여 해당시기 주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하며 군내의 전반적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한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농촌에서 모든 당조직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 모든 근로자들이 다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정치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중요한 역할은 농민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며 농촌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로동계급이 농촌에서 자기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계급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치적거점의 지도적력량인 군당위원회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 적대분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음모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며 농촌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단결할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진행한다. 군당위원회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사업을 지도하는 한편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

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져나가기 위하여 투쟁한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농업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오는 부르죠아사상독소를 철저히 막아버리며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촌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꽉 들어찬 붉은 일색으로 만들어 적대분자들이 발을 붙이고 준동할수 없게 하며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군이 농촌사업의 정치적거점으로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군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정치적거점으로 될뿐만아니라 경제적거점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됩니다.

지방공업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나가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업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3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우리나라에서 군이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단위로, 거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경제를 발전시켜야 지방에 잠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며 국방력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게 빨리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을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단위로, 거점으로 설정하심으로써 지방경제를 전반적인민경제와의 유기적련계밑에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독창적인 길을 열어주시였다.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지방공업의 발전이다. 지방공업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 특히 지방적예비를 동원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게 함으로써 전반적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지방공업은 지방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손쉽게 건설할수 있으며 생산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고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그것은 공업을 농촌에 더욱 접근시키며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강화할수 있게 하며 농업의 관리운영수준을 공업의 관리운영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며 농업생산의 장성을 촉진한다.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는 변화된 새로운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농촌에 접근시켜 전국각지에 창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이 요구하는 공업적토대를 짧은 기간에 쌓을수 있게 하였다. 전원회의후 전국도처에 지방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며섬으로써 우리 나라 군들은 자체의 튼튼한 공업적토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점차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단위로, 거점으로 전화되게 되였다.

군은 농촌경리의 발전을 직접 조직하며 지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

신데 기초하시여 1962년초에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게 하시고 군을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시였다.

협동경리에 대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와 관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없애고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농촌경리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일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업생산의 장성과 협동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 특히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의 강화는 농업의 공업화과정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업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더욱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게 하였으며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밑에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영향과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가 강화되고 협동농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조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과정을 촉진할수 있게 되였다.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단위로서의 군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지어주는 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지어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5페지)

일정한 지역적단위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지어주는 거점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농촌의 반전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는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에서 생산되는 소비품과 일부 생산수단을 농촌에 공급하며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과 부업생산물을 도시와 공업에 공급하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도시와 농촌간의 이러한 경제적련계를 지어주는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된다. 군은 농촌에 공업상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공업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 군은 또한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와 공업의 식량 및 원료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며 농민의 수입을 늘이고 농촌경리의 발전을 추동한다.

이것은 군이 공급기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촉진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군은 도시와 농촌사이의 경제적련계의 거점으로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 계속 남아있게 될것이라는 사상을 처음으로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진척되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난다 하여도 군이 대상하고있는 농촌과 로동자구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은 될것입니다. 농촌마을들은 널려져있기때문에 앞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모든 농촌리에 공급기지를 둘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에 들어가서도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남아있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34페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이 다 없어지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진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한계는 필연적이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 농촌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은 더 잘 보장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사회에서 군이 놀게 될 역할을 예견성있게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지도에서의 지역적단위이며 거점인 군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진행정에서 끊임없이 발전공고화되여나갈수 있는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군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또한 농촌문화혁명의 기지입니다. 군은 농촌에서 봉건적잔재와 뒤떨어진 생활풍습을 없애고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생활풍습을 개변하며 농촌에 선진적인 사회주의문화를 들여보내는 거점으로 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34페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농민대중을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농민들에 대한 크나큰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

농촌에서의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군은 농촌에서 봉건적잔재와 뒤떨어진 생활인습을 없애고 농민들의 생활풍습을 개변하며 농촌에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사회주의생활양식을 들여보내는 거점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군들에는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져있으며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우선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특히 군소재지의 모범적역할을 통하여 농촌문화혁명의 수행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 농민들은 큰 도시에는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군소재지에는 다 자주 다닌다.

그러므로 군소재지를 잘 꾸리는것은 농촌에서의 문화혁명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화건설에서 군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군을 문화혁명의 기지로 튼튼히 꾸리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훌륭한 본보기로 되게 하시였다.

이처럼 군은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여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게 함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촉진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단위로서, 농촌주민들에 대한 공급기지로서 계속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로 군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사명을 지니고있는 지역적단위이며 거점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과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군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전

면적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군을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단위로, 기지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군들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을 긴인민적운동으로 꾸릴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지방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어야 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더욱 확고히 올려세우는 동시에 상업류통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군소재지들을 잘 꾸리고 농촌의 전반적인 교육, 문화,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군들이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군사업을 강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의 농촌사업지도를 계속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8페지)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모든 역할을 전면적으로 높이며 군앞에 나선 제반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군사업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군당위원회의 역할여하에 달려있다.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 군의 참모부로서 군사업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시키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지도일군들이 앞장서나가도록 하면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문화건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군인민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내의 모든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수령의 교시,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그리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는것이다. 군당위원회가 수령의 교시에 기초하여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지도를 주며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도록 한다면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과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될것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훌륭히 관철되여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 특히는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의 직접적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군당위원회가 농촌당조직들을 발동시키고 모든 당원들과 천리마기수들, 열성농민들을 발동시켜 사상교양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린다면 우리의 모든 농촌을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붉은 인색으로 더욱 확고히 전화시킬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인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우리의 농촌을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더욱 부유하고 문명하며 살기좋은 사회주의농촌으로, 지상락원으로 꾸려나가자.

민족해방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다

고 영 일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이 혁명적폭풍속에서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날마다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현시기 앙양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지위를 정확히 평가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제기되고있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것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경험과 현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세계혁명운동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제기되고있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현시기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이께서 밝히신 원칙적문제들은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을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킴에 있어서와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에서 일어난 위대한 력사적변화와 세계혁명에서 민족해방운동이 놀고있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지위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며 세계평화의 강유력한 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30페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 있다.》(우와 같은 책, 52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민족해방운동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세계혁명의 2대혁명력량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평가는 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일어난 력사적인 변화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민족해방운동의 규모가 비상히 확대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민족해방운동의 불길은 아세아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전세계적규모로 확대되였으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를 짓부시고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탄압당하여온 수억만의 피압박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공

으로 되였으며 어제날 식민지대륙으로로 짓눌려있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혁명적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투쟁의 대륙으로, 반제투쟁의 결전장으로 전변되였다.

투쟁에 떨쳐나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저주로운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계급적력량관계도 더욱 변화되였다. 혁명적인 로동계급이 장성하였고 농민대중이 더욱더 각성되었다. 로동계급이 장성되고 그 대렬이 늘어남에 따라 일련의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들이 조직되였다. 그리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는 민족해방혁명을 담당수행하는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져가고있으며 이 혁명력량들은 독자적으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나아가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 있는 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장성강화되고 로동자, 농민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은 민족해방혁명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길에 들어섰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세계무대에서 사회주의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주며 세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조성하여주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목적과 지향으로 하여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피압박인민들사이의 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피압박인민들사이의 전투적련대성의 강화로 하여 민족해방력량은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민족해방운동반전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들은 현시기 민족해방운동이 선행시기보다 비할수 없이 거대한 힘으로 장성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세계혁명운동에서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2차대전후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강화된 민족해방운동은 현시기 세계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민족해방운동이 세계혁명발전에서 노는 역할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가장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2～13폐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그 멸망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10월혁명에서 첫타격을 받은 제국주의는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사회주의체계의 형성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앙양되고있는 민족해방운동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은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림으로써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재촉하는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 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에 기초하

고있는 동시에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에 기초하고있다. 식민지적착취가 없는 제국주의는 존재할수 없으며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은 제국주의존립의 기초로 된다. 지구륙지면적의 71%와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무진장한 부원이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오랜 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인민들의 피혈을 빨아내고 부원을 긁어내면서 성장해왔으며 살쪄왔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해마다 수백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그리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수세기동안 서방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생명선으로 되여왔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로 깊이 몰아넣고있다.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생명선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어져가고있으며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전면적으로 붕괴되여가고있다.

현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이 현시기 제국주의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민족해방투쟁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더욱더 죽음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에서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에 의하여 현대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이 치명상을 입고 이 지역에서 마지막 시각을 살고있으며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제 더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동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다. 따라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될 때 놈들은 종국적으로 멸망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일어난 력사적인 변화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객관적현실은 현시기 민족해방운동이 거대한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분석이 가장 과학적인것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새롭고 독창적인 평가는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로 된다.

종전까지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주로 국제로동계급의 후비군으로만 간주되여왔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시작하던 첫시기까지만 하여도 민족해방운동은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그 력량도 오늘과 같이 강대한것으로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독자적인 력량으로 장성되지 못하였던 민족해방운동은 오로지 국제로동계급의 후비군으로 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족해방운동이 선행시기에 비할수 없이 장성강화되였고 세계혁명운동에서 노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시기의 력사적조건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를 새롭게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민족해방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민족해방운동이 종전과 같이 국제로동계급의 후비군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분석은 또한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부르죠아사환군들의 반동《리론》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부르죠아사환군들은 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일어난 객관적변화를 무시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단순한 민주주의운동, 소부르죠아운동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의 하나로 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를 과소평가하려 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이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현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된 력사적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민족해방운동이 반제민주주의적과업을 그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계혁명의 견지에서는 단순한 민주주의운동, 소부르죠아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하나의 흐름에 결합된 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온갖 기회주의적《리론》에 심대한 타격을 주시였다.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분석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민족해방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종국적인 승리에로 이끌어나아가는데서 제기되고있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압박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버리고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을 해방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선전을 폭로하며 그들이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내주리라는 환상을 철저히 깨뜨려버리는것이 필요하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1페지)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에게 스스로 독립을 선사할수 없다. 놈들은 반혁명적폭력으로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식민지에 대한 제놈들의 지배를 강화하고있다.

반혁명적인 폭력이 제국주의자들의 필수적인 통치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잡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피압박민족들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으며 혁명적폭력으로써만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지배를 뒤집어엎고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죽음에 가까와갈수록 더욱더 횡포해지며 악랄해진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므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

메리카 인민들은 잠시도 반제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지구상에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억압받고 천대받던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세계무대에서 놈들이 놀고있는 반동적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현시기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규정하시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미제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민족해방투쟁에서 미제에 선차적으로 공격의 예봉을 집중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사상은 현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주타격대상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자기 인민의 힘으로 민족해방혁명을 벌려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의 주체적혁명력량이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수 없다.

오직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결히 싸워나갈 때 제국주의의 그 어떤 아성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다.

민족해방운동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적립장으로 된다. 철저한 주체적립장에 서서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갈 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자기의 힘으로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겨나갈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달성하였으며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따라서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이 혁명투쟁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여나아가는것은 민족해방운동의 종국적인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경험과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의 사회경제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정치적독립을 달성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인민들이 나아갈 방향과 그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0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제국주의식

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주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만이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고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

민족해방투쟁의 결과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민족국가인민들은 자기 력사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것이다.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하루속히 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며 사회를 계속 변혁하여나아가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종전의 식민지에서 물러서려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인 신식민주의의 수법으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이 나라들이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투쟁을 계속해나가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된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모든 예속적조약과 협정 및 군사동맹을 파기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한다. 특히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간파하며 그를 철저히 폭로분쇄함으로써만 놈들의 새로운 침략적올가미에 다시 걸려들지 않을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길로 빨리 나갈수 있는것이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길로 나아갈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과업들은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압박인민들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이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반제반미혁명력량을 수배, 수십배로 강화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성과적으로 격파하는 불패의 힘으로 될것이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8페지)

《전세계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 응당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들의 혁명투쟁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이 지역 인민들의 공통적인 처지와 공통적인 목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공동위업에서 굳게 단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속에 인위적인 알륵과 대립을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해방력량의 긴밀한 뉴대와 전투적단결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민족해방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때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악랄한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민족해방운동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할 때 민족해방투쟁은 더욱 힘있게 발전하여나아갈수 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길수 있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세계혁명운동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민족해방운동의 철저한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주심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나아감에 있어서 위대한 력사적기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시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탁월한 공헌으로 하여 그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고계신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무한한 고무를 받으면서 그이를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세계혁명운동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 모시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군사기지화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기본

김 찬 호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원료원천지로, 자본투하지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완전한 군사침략기지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은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과 전쟁정책의 부속물로 되고있으며 남조선전지역은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하고있는 일대 병영으로 변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군사기지화정책, 놈들의 전쟁정책으로 하여 국토가 분렬되고 민족이 분렬된지 25년이 넘도록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무서운 생활고와 정치적무권리 속에서 헤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에 기초한 놈들의 군사기지화정책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오늘과 같은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있는 근본화근이다.

* *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놈들의 아세아침략정책과 세계제패계획의 중요한 일환이다.

제2차대전행정에서 수백수천만 인민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살찐 미제국주의자들은 히틀러가 웨치던 《세계지배론》을 다시 부르짖으면서 군사적강점과 위협, 공갈 등 방법으로 세계도처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으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데로 나아갔다.

침략과 전쟁도발에 열이 오른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아세아를 《제패》해야 한다는 침략적인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였으며 특히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여나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림으로써 이 지역의 무진장한 부원에 대한 탐욕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특히는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붕괴되여가는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수습하려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 지역은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로,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11~12폐지)

제2차 세계대전후 아세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이 출현하였고 이 나라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급속히 장성강화되였으며 그것은 이 지역에서의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미제의 침략적지반을 종국적붕괴에로 이끄는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제국주의세력범위는 크게 축소되였다. 그리하여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적지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놈들은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겪고있

는 군사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이 지역의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는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전초선으로 리용하고있으며 그것을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기본을 군사기지화에 두고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를 상품판매시장,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지로 리용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침략기지로 리용한다. 식민지를 군사기지로 리용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편적현상이다. 그러나 그 군사기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조성된 객관적정세와 군사전략적위치 등에 크게 의존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군사기지화에 기본을 두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뒤흔들리고있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 그리고 조선에서의 력량관계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조성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높아감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힘차게 일떠서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기지로 전변된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더욱더 무모한 전쟁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을 완전한 군사침략기지로 만듦으로써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며 전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그 기본을 군사기지화에 두고있는것은 또한 남조선이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것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을 사회주의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침략기지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있습니다. 그놈들은 조선을 다리로 하여 쏘련이나 중국을 침공할것을 꾀하고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8~79페지)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전략적견지에서 볼 때 남조선은 공화국북반부와 중국, 쏘련 등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거점으로 되고있다.

특히 제2차대전후 일본이 미제의 점령지대로 되고 극동병참기지로 전변됨에 따라 미제는 대륙침략의 교두보로서 남조선의 전략적위치에 더욱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게 되였다.

미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남조선을 일본과 태평양연안에 있는 제놈들의 모든 군사전략기지 즉 오끼나와, 괌도, 필리핀 등으로부터 쉽게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미제에 의하여 재무장된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간의 이른바 《공동작전》을 용이하게 실현할수 있는 위치로 타산하고있다. 미

제는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에서 남조선
이 차지하고있는 이러한 위치로 하여
남조선을 대륙침략의 《관문》으로, 중요
한 군사침략기지로 삼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에서 지
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을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의 대포밥공급지로 되
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현대전은 방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동원을 전제로 하
며 그것도 기동성있게 보장될것을 요구
한다. 특히 방대한 인적자원의 준비와
담보가 없이는 전쟁을 계속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침략, 세계
세패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방대한 인
적자원을 현지에서 충당하는것을 기본
으로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동원함으로써 현대전쟁에서
막대하게 요구되는 대포밥을 충당하려
하고있으며 현실적으로 웰남침략전쟁에
서 그것을 리용하고있으며 캄보쟈인민
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도 써먹으려 하
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강
제로 끌어내여 미제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함
으로써 자기들의 군사비지출을 굉장히 〈절
약〉하며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있다. 또한 그들은 자
기 군대 대신 방대한 괴뢰군을 고용함으로써
마치도 남조선군대가 그 어떠한 민족적리익
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처럼 가리우며 자기자
신들을 그 어떤 〈원조자〉로 가장하고있다.》**
(우와 같은 책, 23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
냄으로써 막대한 군사비를 《절약》하면
서 현대전쟁에 요구되는 많은 인적자원
을 충당하며 그 유지비를 남조선인민들
에게 더많이 들씌우고있다. 미제국주
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군대 대신 남조
선괴뢰군을 유지함으로써 매년 60억딸
라의 막대한 군사비지출을 《절약》하고
있다.

또한 놈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에
서의 인적자원의 동원을 감소시키고 침
략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
마하려 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마치도 그
어떤 《민족군대》가 있는것처럼 묘사하
면서 제놈들을 《원조자》로, 《구원자》로
가장하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
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군사
기지화에 기본을 두고있는 까닭이 어디
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
부터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
니라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며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려
는 목적을 추구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301페지)

놈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그
것을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대륙을 공
격하고 침략하기 위한 군사침략기지로,
전략적요충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수
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
책의 기초로 되는것은 미제의 군사적강
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군사적강점에
기초하여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만
들고있으며 남조선의 방대한 괴뢰군을
육성하고 군사시설들을 신설확장하고있
으며 경제의 군사화를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군사적강점
을 남조선괴뢰도당과 체결한 이른바
《조약》 및 《협정》들에 의하여 《합법화》
하고있으며 그를 영구화하려 하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조약》과 《협정》들을 통
하여 6만이 넘는 저들의 침략군대를 남
조선에 장기적으로 주둔시키고있으며
70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실
제적인 통수권을 틀어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이미부터

방대한 침략적인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있었으며 최근에 와서 그것을 더욱 증강하는데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요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이른바 《감축》이니, 《일부 철수》니 뭐니 하는 기만적소동의 막뒤에서 더욱더 많은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집중시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을 들고나옴으로써 세계인민들의 여론을 기만하고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는 한편 조선에서 긴장상태격화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전조선과 아세아 침략을 손쉽게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감축》이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리행》에서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비행기, 함선을 비롯한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무력증강에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에서 또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남조선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그 군사장비를 현대화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강점시초부터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책동으로서 청장년들을 강제징집하여 식민지고용군대로 만들었으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증강하여왔다.

미제는 침략과 전쟁 정책에 광분하면서 아세아에 대한 《원조》총액의 40%를 남조선에 투입하고 그 80%이상을 군사장비의 공급과 괴뢰군유지비에 돌리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남조선괴뢰군은 조직편성, 작전지휘, 훈련, 군사시설의 관리, 군사예산편성 등 모든 면에서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의 통제를 받고있다.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기 위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은 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놈들은 괴뢰군병사들의 제대를 중지하고 복무년한을 연장하며 후방예비사단들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는 등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깡그리 동원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 1～2년동안에 남조선에서는 거의 10만명에 이르는 괴뢰군병력이 늘어났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현지고용병을 더욱 증강할 목적밑에 이른바 《향토예비군》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200만이 넘는 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넣고있으며 그 완전무장을 서두르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되였다.

남조선의 전지역을 직접적인 군사행동지대로 준비하는것, 이것은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에서 중요한 특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요구에 따라 오늘 남조선에서는 이르는곳마다에서 군사비행장, 항만, 로케트기지, 전략도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신설확장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89페지)

일반적으로 군사행동지대를 준비하는것은 침략전쟁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및 경제적 준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행동지대로 꾸림에 있어서 특히 군수물자와 병력 수송의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들을 긴급확장하며 신설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놈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분계선과 내륙지방을 련결시키며 전략적군사기지들과 후방기지 및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지구》를 련결시키려 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1968년도에

시작한 《고속도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처음에 예견하였던 750억원의 《건설자금》을 그후 1천억원으로 대폭 늘이였으며 현재 서울—부산간의 도로건설에는 연 2천여만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이밖에도 놈들은 항만과 비행장들을 확장 또는 신설하며 통신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군사행동지대를 완비하려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군용철도, 도로, 항만을 비롯한 각종 군사기지들을 확장 또는 신설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전면전쟁을 도발할 경우 제놈들의 본토와 일본으로부터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침략무력과 군수물자들을 짧은 시일내에 전선에 수송하기 위한것이며 또한 그것은 《공수작전체계》와 군사작진의 《립체화》체제를 도입하며 《불의의 공격전》에 적응케 하려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그들은…군사적강점과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실권을 틀어쥐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자기들의 군사적목적에 종속시키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자 소위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와 침략전쟁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제부문의 기업체들을 이른바 《국영기업》의 형태로 장악하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경제전반을 통제하고 군사적목적에 복종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함으로써 남조선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더욱더 늘어나는 물질적수요의 일부를 현지에서 충당하려 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통하여 전시조건하에서 방대하게 요구되는 일반소비품, 식량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군수물자들을 현지에서 기동성있게 동원할것을 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경제의 군사화에 요구되는 방대한 화폐자본을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수탈하고있다. 지난해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로부터 1960년의 5.4배에 달하는 811억원을 직접적군사비로 수탈하였으며 금년에는 또다시 지난해보다 93억 6천 5백만원이나 증대된 1천 5억 4천 4백만원을 직접적군사비로 수탈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와 군수품의 현지조달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통치의 정치적지주로서의 매판자본을 육성하고 현반동통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지반을 마련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마치도 남조선경제가 《번영》하는것 같은 환상을 조성할것을 목적하고있다.

오늘 남조선매판자본가들의 대부분은 미제의 군수품조달을 통하여 치부하여 벼락부자가 된자들이다. 매판자본가들이 미제침략군에 조달하는 《군납품》만도 매해 평균 3천만딸라를 훨씬 넘으며 괴뢰군에 대한 군수품조달은 괴뢰정부의 《국방비》중 물건비와 설비비에 해당하는것만도 년평균 약 1억딸라에 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징발하여 군사기지화정책과 전쟁도발정책을 강화하면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여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과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결탁시키고있다.

남조선괴뢰군과 일본의 정규무력인 《자위대》를 결탁시키는것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군사기지화정책수행에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있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의 제놈들의 군사정치적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침략의 《돌격대》로 적극 리용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중심으로 미제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침략적군사동맹에 묶어세우려 하고있다.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버릇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에 적극 침투하고있으며 미제와 결탁하여 더욱더 무모한 침략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은 실로 하나의 완전한 병영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미제의 침략전쟁준비에 복무하는 군사적부속물로 화하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고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였으며 인민들은 온갖 정치적자유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빼앗기고 테로와 폭압 밑에서 신음하고있으며 수천년래의 민생고에서 허덕이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0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기본으로 되고있는 군사기지화정책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경제는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으며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날로 강화되는 파쑈적폭압밑에서 무서운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다.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된 남조선경제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있으며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은 미제의 전쟁정책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심한 자금난과 원료난, 판매난을 겪고있으며 날로 파산몰락당하고있다.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도당의 농경지상탈과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촌은 황폐화되였으며 남조선농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다.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전쟁도발책동의 일환으로서 남조선에서 군사기지화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그에 요구되는 방대한 군사비를 남조선인민들의 어깨우에 들씌우고있다. 놈들은 매해 인민들로부터 수탈하는 《조세》액을 증가하고있는데 지난해에는 1961년의 10.3배에 달하는 거액의 《조세》를 수탈하였다. 올해에는 그것이 지난해에 비하여 또다시 42% 나 증대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지난해에만도 임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종 형태의 세금으로 수탈당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농민들로부터 매년 100만석이상의 알곡을 직접세로 빼앗아가고있으며 각종 가렴잡세로 농민들을 수탈하여가고있다.

오늘 남조선농촌에서는 농가의 95%가 각종 채무에 얽매여있는데 그 부채총액은 1961년의 81억원으로부터 730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매 농호당 평균 3만여원에 해당한다.

남조선농촌에서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목숨을 이어가고있는 절량농가는 1954년에 약 45만호였는데 1969년에 그것은 전체 농가의 90% 즉 225만호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눈뜨고 볼수 없는 심한 령락과 빈궁, 기아에 허덕이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 그로부터 출발한 군사기지화정책은 남조선전역을 무서운 테로와 군사파쑈폭압속에 몰아넣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7페지)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의 모든것을 징발하여 제놈들의 전쟁정책을 강화하며 전쟁정책에 장애로 되는 일체 진보적요소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야만적인 군사파쑈독재를 세우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으며 그들을 극도의 공포와 정치적무권리 속에 몰아넣고있다. 놈들은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력량을 탄압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은 남조선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불만을 크게 자아내고있으며 그들을 더욱더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서게 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에 기초하고있는 군사기지화정책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의 근본화근이며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청산하고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며 자기의 손에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틀어잡음으로써만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있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정책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반미구국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그 어떤 악랄한 책동으로써도 남조선에서 급속히 자라나는 혁명력량을 말살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반드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야말것이며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통일된 조국땅우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근로자 제9호 (루계 34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8월 25일

발 행 • 1970년 9월 1일

ㄱ—03472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 (343)

차 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 속에서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과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되는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한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영웅적로동계급과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풍년진야를 이루어놓은 협동농민들,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지금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으로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준동을 박차고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해지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위신과 권위를 가진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우리 당이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영광찬란한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은것은 오직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그이께서 당과 인민을 언제나 정확히 이끌어주셨기때문이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기간의 불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필승불패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전투적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아가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혁명적당의 창건은 근본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을 가져야 조직된 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이러한 혁명적당은 계급의 최고뇌수이며 심장인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혁명의 객관적요

구와 계급조직의 필연성을 깊이 헤아리고 로동계급의 근본요구와 지향, 사상의지를 하나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맑스-레닌주의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은 오직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기에 가장 공고한 토대우에서 창건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기간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실천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투사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꾸리시였으며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시였다. 또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교양하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져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제때에 창건되고 처음부터 공고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이였다.

해방후 당창건의 성스러운 위업앞에는 허다한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국내외의 반동들을 긁어모아 친미반동정당들을 조작하고 혁명력량을 탄압하기에 미쳐날뛰였으며 공산주의대렬안에 끼여든 종파분자들이 남조선에서 아무러한 대중적지반도 없이 사기와 음모적 방법으로 《공산당》간판을 내걸고 자기 파의 세력을 긁어모으는데 몰두하고있었다. 한편 북조선에 있던 종파주의자, 지방할거주의자들 역시 자기 파의 지반을 꾸리고 《령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날뛰였다.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 당을 창건하는 문제는 오직 오랜 기간에 걸친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였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신망을 지니고계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면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각지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그루빠들을 망라하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원칙에 엄격히 서시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하시였다.

이리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과제로 나섰던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위업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우리 당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이다. 바로 우리 당은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여 근로인민의 선진투사들로써 조직된 당이며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뭉친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이와 같이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으로서 창건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자기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변화되는 사회계급관계, 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 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기초

우에서 제시하신 대중적당건설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의 력량은 빨리 늘어났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농민과 인테리 등 광범한 근로대중가운데서 혁명실천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받아들여 혁명가의 대오를 끊임없이 늘여왔으며 인민대중을 분렬시키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력량을 비상히 확대강화하여왔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키우신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고 해방후 일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벅찬 투쟁속에서,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속에서, 전후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수많은 혁명가들을 자기 대렬에 망라한 대중적정당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은 강대한 혁명적당으로 장성발전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특히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가장 정확하게 이끌어주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먼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지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53폐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한 투쟁을 벌려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혁명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주의를 비롯한 반당반혁명적사상조류를 철저히 극복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초미의 문제로 나선 력사적과업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반당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을 폭로분쇄하며 종파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초시기부터 력사적인 고질로 내려오던 종파오물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냈다.

또한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교조주의, 사대주의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생겨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확고부동한 통일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건설과 혁명투쟁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짧은 기간내에 자기의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할수 있은것은 또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성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수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왔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당내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그들의 당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고야마는 높은 당성을 지니게 하였다. 이리하여 당원들의 전반적사상정치수준과 선봉적역할이 빨리 높아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 조직들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그 전투력을 강화하는 투쟁은 당핵심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핵심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모든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묶어세우면서 당의 통일을 지켜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3폐지)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혁명가들을 핵심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정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우리 당이 대중적정당으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당핵심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당의 질적공고화를 촉진하였으며 당의 기본핵심력량인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핵심을 키우고 그 대렬을 늘일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당핵심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이 창건된후 자기의 대렬을 급속히 늘이고 공고히 하여 오늘과 같은 강대한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시면서 우리 당 건설행정에서 나선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강력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튼튼히 키워주셨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줄기차게 이끌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혁명을 옳바르게 령도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310페지)

당은 해방후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파괴책동이 그처럼 악랄하였던 어렵고 혼란된 정세에서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튼튼히 세우고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를 꾸려놓았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당과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미제날강도들을 때려눕히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당은 전후시기 헤아릴수 없이 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과업을 짧은 기간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은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세워놓았다.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이 빛나게 완수된후 당은 수령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실로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되였다.

지난기간 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이 빛나는 성과와 불멸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총비

서이시며 조선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주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의 정책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은 현재와 가까운 앞날만 보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라의 먼 앞날의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였으며 대중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정책을 세운 다음에는 그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은 이로부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불굴의 강의성을 가지고 내세운 정책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았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혁명의 매 단계와 매 시기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 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당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대외활동 등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심에 있어서 항상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였을뿐아니라 장래 발전전망까지도 과학적으로 타산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당면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뿐아니라 다음단계의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도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빠른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예리한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을 가지시고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새롭게 나서는 성숙된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 그 누구도 수행해본 일이 없고 또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진 일이 없는 새롭고 어려운 과업에 우리 당이 부닥쳤을 때에도 자기의 정확한 진로를 알고 확신성있게 대중을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정책수립에서의 예리한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으로 하여 우리 당은 언제나 가장 원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을수 있었고 우리 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단 로선과 정책을 세워주신 다음에는 또한 강의한 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진개력으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당을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맑스-레닌주의혁명위업과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성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무장시키시고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가 조성될 때에도 당이 자기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과 인민을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전투적이며 진공적인 정신으로 무장시키시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확고히 령도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 매 시기에 자기의 혁명적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련이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었다.

참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시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업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조선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또한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당적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세워주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6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각급 당조직들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개선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당적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전당에 전면적으로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부문의 최고령도기관으로서 집체적령도를 실현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높일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우리 당의 사명에 맞게 자기의 령도적기능을 높일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시여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령도방법을 마련해주시였다.

청산리방법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며,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찾아내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고 전반사업을 추켜세우는 등 대중지도의 중요한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힘있고도 우월한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은 청산리방법을 보급일반화함으로써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켰다.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분야에 구현하여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데 기초하여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과학적인 당적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과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실로 지난 기간 조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업적은 우리 당이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 독창적인 방침을 견결히 관철하여온데서 이루어진 자랑찬 결실이다.

3

우리 당은 자기의 대오를 확대강화하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당건설 리론과 방침을 확고히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당건설과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당의 공고화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독창적인 방침들을 명시하여주시였으며 전당이 그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당건설 리론과 방침들을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당자체발전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준엄한 시련도, 모진 풍파도 대담하게 이겨내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선혁명에 대한 령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노는 역할과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김일성동지의 이 사상은 우리 당이 자기의 대오를 확대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전행정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으며 그 모든 성과의 근본담보로 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조선혁명을 령도하는 과정은 결국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보람찬 행정이였다.

우리 당이 자기의 대렬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은 우리 당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그와 배치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극복청산하며 전체 당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투쟁행정이였다. 또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를 모든 혁명단계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행정이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전로정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서만 당의 통일단결을 진정으로 강화할수 있고 그이의 혁명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전면적으로 확증하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로정은 또한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으면서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여온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8～219페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의 전과정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당의 경험을 우리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왔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를 완전히 가시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여왔다.

당자체의 발전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이룩된 그 모든 성과는 바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이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은것도,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들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나갈수 있은것도 바로 자기의 활동에서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온 결과이다.

특히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

부에서 기회주의가 대두하여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주체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확고히 견지해나감으로써 자기의 대렬을 수령의 두리에 더욱더 튼튼히 결속할수 있었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멀리 전진하여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일정에 오른 조건에서도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오직 주체를 확고히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기에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와 빛나는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고 맑스-레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 것은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하여 혁명적군중로선을 견지하여왔다.》(우와 같은 책, 224～225페지)

맑스-레닌주의당의 위력의 원천은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시기부터 일관하여 견지하여오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비상히 강화하여왔고 혁명과 건설에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왔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나 그것을 관철함에 있어서 항상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왔다.

특히 우리 당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언제나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굳게 믿고 대중과 협의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이겨나갔다.

또한 우리 당은 극소수 적대분자를 제외한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수령의 위대한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몸소 창조하신 전인민적천리마운동에서 바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찾았으며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당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전면적으로 꽃피워왔다.

우리 당이 인민에게 복무하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하였기에 우리 당과 인민 사이의 련계는 그처럼 공고화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위업은 그처럼 빠른 속도로 전진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걸어온 전로정은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의 승리의 로정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증시하여온 로정이다.

생활은 우리 당이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과 리론을 유일한 지침으로 자기 대오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나갈 때 우리에게는 점령못할 요새도, 극복못할 난관도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성있게 가르쳐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영광찬란한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다. 이 기간 당은 자기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실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 세차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전조선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야 한다.

이 벅차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이미 실천행정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온누리에 과시한 탁월한 사상이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계관이며 신념이고 의지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사회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박두한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이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더욱 보람차고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줄것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로선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네해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국내외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당의 원칙적립장과 태도를 명시하시였으며 특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세계혁명에 이바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이 혁명적로선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워 승리할데 대한 그이의 철저한 반제반미적립장을 구현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미제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관철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준것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빛나는 전망을 안겨주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이 로선은 또한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어떻게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어떻게 밀고나가야 하는가 등 제국주의와 대치된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었으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된 최근년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은 이 혁명적로선의 거대한 생활력과 그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이 혁명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며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을 가일층 촉진시켜야 한다.

* *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의 혁명적본질은 경제건설에 못지

않게 국방건설에도 커다란 힘을 돌림으로써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는 한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힘있게 밀고나간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것은 한손에는 경제건설을, 다른 한손에는 국방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면서 경제건설을 념두에 둘 때에는 국방건설에 대하여 생각하며 국방건설을 념두에 둘 때에는 경제건설에 대하여 잊지 않으며 두 건설의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똑같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두 건설중 그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다같이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리익과 국방상의 리익을 옳게 결합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하여 국방건설을 소홀히 하거나 국방건설을 강화한다 하여 경제건설을 약화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이 로선은 우선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부합됩니다.》(우와 같은 책, 356~357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국제자본주의포위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진행하게 되는 력사적조건에 의하여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운다음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인민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고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자본주의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국제적규모에서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제국주의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다같이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성된 정세의 요구도 반영하고있다.

오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치렬한 계급투쟁에 의하여 멸망해가는 저들의 운명을 모면할 길을 새로운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광하고있다.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집중하면서 웰남, 라오스, 캄보쟈에 대한 침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 대한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더욱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데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있다. 해외팽창에 눈이 뒤집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소동을 련일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한층더 긴장되여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성된 정세하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시키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일층 추진시킬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이 로선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분렬되여있으며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도록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방침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화발전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혁명의 정세는 날로 성숙되여가고있다.

우리 앞에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자기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우와 같은 책, 195～196페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그 어떤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화국북반부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위력한 혁명기지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남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게 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게 한다.

이와 같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을 더 빨리 추진시킬데 대한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로선이다.

다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은 혁명의 민족적의무와 함께 국제적의무에도 충실할데 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세계혁명의 근본리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혁명적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혁명의 승리는 개별적나라들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공고화되여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된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구성부분이며 그 나라 당과 인민에게 맡겨진 국제주의적분공이다. 그러므로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것은 바로 세계혁명발전에 대한 기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게 할뿐아니라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을 지원할수 있는 경제적 및 군사적 력량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의 정당성은 이 혁명적로선이 바로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를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창조적인 로선이라는데 있다.

이 로선은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것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 편향을 다같이 배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는 로선이다.

제국주의침략책동이 격화되는 오늘의 력사적조건하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는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할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킨 창조적인 혁명로선이다.

종래까지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그들이 생존하고 활동하던 시대의 제한성으로 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킬것인가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줄수 없었다.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제국주의침략을 저지시키고 사회주의전취물과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서고있다. 또한 두 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성된 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과정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 차지하는 위치, 두 건설의 결합의 원칙과 그 방도를 처음으로 밝히시였다. 경제적과업과 군사적과업을 다같이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자위로선,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고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 등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공헌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고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이 혁명적로선이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 혁명의 벗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명확한 과학적판단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새로운 로선》이며 이 로선에는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립장》과 《확고한 반제반미적립장》,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구현되여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조선에서 달성된 커다란 성과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이 가장 정확하고 정당한 로선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고 말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이 우리 혁명의 근본

리익과 세계혁명발전의 근본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로선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힘있게 관철되여왔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특성과 그 발전전망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장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광범한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이 혁명적로선의 관철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곧바르게 령도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면서 그들이 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자기의 정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0페지)

우리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미제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는 그러한 기백으로, 남조선인민을 지원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 정신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로력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소극성, 보수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전진하면서 인민경제내부에 깊이 숨어있는 생산장성의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였다. 특히 우리 근로자들은 《수령의 요구, 이것이 우리의 기준량이며 공칭능력이다.》라는 전투적구호하에 모든 분야에서 지난날의 낡은 기준량과 공칭능력을 마사버리고 새로운 기준량과 공칭능력을 창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였다. 그리하여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날의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류례없이 앙양되고있는 이 혁명적대고조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장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심장깊이 자각한 우리 근로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발현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가 계속 견지됨으로써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이룩되고있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과 이에 기초하고있는 경공업과 농업이 급속히 발전되였다. 또한 중공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는 우리의

군수공업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현대적인 최신기술수단들로 장비하고 무장시켜줄수 있는 힘있는 공업으로 발전되였다. 이리하여 나라의 생산력발전과 인민생활, 그리고 국방상의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켜줄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국방력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의 안전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6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의 생활력은 특히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급속한 향상을 보장하면서도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데서 나타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보다 강력한 군수공업을 마련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위력한 국방력을 꾸려놓았다.

우리 인민은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의 기술장비를 더욱 개선강화하였으며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강철의 무력으로 강화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군대는 영웅적로동계급이 만들어낸 현대적무기와 장비로 무장함으로써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그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데서도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체 근로자들과 로농적위대원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있으며 전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졌다.

이리하여 우리의 인민과 인민군대는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도발책동과 파괴암해책동에 그때마다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고있으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다. 특히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는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침입한 적 《경호함—56》호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무장간첩선들과 우리의 신성한 령공에 불법침입한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비롯한 공중날강도들에 단호한 징벌을 안겼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의 생활력은 또한 이 혁명적로선이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인민을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게 하였다는데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조성된 정세와 혁명의 요구를 심장깊이 자각하고 수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또한 이 혁명로선의 관철을 위한 투쟁과정은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며 그와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짓부시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의 과정이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이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더욱 굳게 통일단결되였으며 수령의 강령적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려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주위에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드높은 혁명적 각오로 충만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헌신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그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로 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합법적 및 비합법적 투쟁을 더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으며 놈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의 거대한 생활력과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근로자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관철하여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와 맞서고있는 조건하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긴장된 정세하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들을 성과적으로 실행하자면 더 한층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이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려면 첫째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이며, 둘째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락후와 침체를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지난날보다 몇배, 몇십배의 노력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나 국방건설분야에서나 할것없이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며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켜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483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우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며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바쳐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끝까지 이악하게 투쟁하는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가적품성이며 혁명적기풍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급적각오와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려면 또한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심각한 투쟁입니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습니다. 혁명의 새로운 전진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우와 같은 책, 486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 당의 다른 모든 로선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반대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의 날카로운 사상투쟁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없다.

애로와 난관 앞에서 동요하고 굴복하며 전진속도가 빠른것을 두려워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억제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고 침체한 반동사상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로선과 추호도 량립될수 없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동사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발양시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계속 높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그에 의거하여 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운동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여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벅찬 일이며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의 관철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이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것은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모든 생산조건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투쟁정신과 혁명적사업방법을 소유하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의무이며 바로 이렇게 하는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결정적고리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더욱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당 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을 기어코 완수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혁명위업을 앞당기며 세계혁명위업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지침

박 장 옥

우리 당과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교시들과 로작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 현시기 근로단체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임무 등 근로단체 조직과 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개선하며 그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당시의 조성된 주객관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근로단체의 조직형태와 임무, 그 활동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해방후 곧 우리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인민정권과 함께 근로단체들을 조직하시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정연한 체계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근로단체들의 조직형식과 임무, 활동방향 등을 정확히 규정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근로단체조직을 개편하고 그들의 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시해주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더욱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세차게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벅차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단체사업을 개선하며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다시금 뚜렷이 가르쳐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비등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근로단체사업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근로단체들의 위치를 정확히 규정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입니다. 당의 외곽단체라고 하는것은 비유해 말하면 복숭아의 씨와 살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씨를 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살을 외곽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있게 여무는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하여야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당을 힘있는 당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의 역할은 이처럼 큰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단체는 광범한 군중에 대한 힘있는 사상교양단체이다.

수령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워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다.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와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동적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벌려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근로단체는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지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단체는 또한 당의 믿음직한 외곽단체이며 인전대이다.

당은 반드시 군중을 조직화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할수 있는 대중적조직인 외곽단체를 가져야만 혁명의 전투적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근로단체는 맑스-레닌주의당활동과 혁명운동발전의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조직된 당의 외곽단체이다. 근로단체는 우선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당과 수령을 튼튼히 보위하고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근로단체는 또한 당이 내세운 로선과 정책을 군중에게 제때에 해설침투시키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한다.

근로단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행정에서 핵심들을 끊임없이 키워 당대렬을 부단히 보충할수 있게 하며 당 및 국가 간부의 후비대렬을 늘일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근로단체가 광범한 대중에 대한 힘있는 사상교양단체로서, 당의 믿음직한 외곽단체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 대중정치조직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침을 뚜렷이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근로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이 할 사업은 어디까지나 근로단체들이 자체로 잘해나가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이 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벌려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근로단체의 목적과 사명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로서 근로단체들이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체로 사업을 능숙하게 벌려야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기 조직의 특성과 사명에 맞게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근로단체들은 우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

여 활동하며 당에서 새로선을 내놓으면 제때에 받아물고 자체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모든 맹원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할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군중과의 사업, 중요하게는 비당원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근로단체들을 내왔습니다. …만일 근로단체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다면 근로단체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것으로 되며 군중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으로 됩니다. 비당원군중을 잘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는것은 근로단체들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혁명과업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근로단체들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들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이다. 근로단체들은 동맹의 특성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그들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고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견지해야 할 제반원칙과 구체적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과 근로단체와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향도력인 당이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근로단체를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원칙을 확고히 구현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여야만 근로단체의 독자적역할을 높이며 그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잘, 더 빨리 건설할수 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근로단체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이 놀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천재적으로 규정해주시고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해주심으로써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갈수 있게 해주시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을 근로단체들의 중요한 혁명임무로 규정하시고 모든 근로단체들이 자기 조직에 망라된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그이께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대한 혁명임무와 근로단체의 기본사명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세차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

행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수령이 내세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빨리 건설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를 길러내는데 있다고 가르치시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려면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전면적으로 벌려야 합니다.…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곧 사상교양을 하며 사상투쟁을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그이의 심오한 혁명리론과 오랜 기간에 걸쳐 간고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토대한 가장 독창적인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것을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곧바로 이끄는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가장 충실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철저한 반제계급의식,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일관된 가장 철저하고도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사상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게 되고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을수 있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나쁜 사상의 영향을 막아낼수 있으며 온갖 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을 옳게 가려내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이처럼 근로대중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 풍모를 갖추게 하는 근본조건이며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근로단체들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그이의 혁명적가정과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학습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교양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정신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근로정신을 길러내는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을 즐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번영을 위하

여, 근로자들자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영예롭고 귀중한것이다.

또한 로동과정에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혁명정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단체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누구나 다 로동에 성실하고 로동에 즐겨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혁명화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혁명사상을 불어주기 위하여서는 책을 읽게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가지는 방법,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는 방법,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는 방법도 있으며 강연회, 학습회, 담화를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대중을 혁명화하려면 근로단체들이 정치사업을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는 사업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은 수령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처럼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군중의 정서와 준비정도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군중을 훌륭히 혁명화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억세게 키우신 풍부하고도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고있는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이다.

근로단체들은 수령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중의 감정과 취미,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들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의 혁명화를 힘있게 촉진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단체일군들은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기간에 걸친 조국해방을 위한 간고한 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시고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정치사업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의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이 자체의 특성에 맞게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근로단체들이 자체의 특성에 맞게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그리고 끊임없이 심화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조직들은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수령께서 자기 조직과 동맹원들에게 주신 혁명과업을 집행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동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을수 없으며 혁명화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은 회의와 동맹생활총화 등에서 동맹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의 표현들,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으며 국가사회재산을 애호관리하지 않는 현상, 사회주의적공중도덕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가정을 혁명화하지 않는 현상

등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통하여 투쟁을 벌리고 투쟁으로 그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개조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근로단체기층조직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가르치심은 근로단체기층조직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을 혁명화하고 작업반, 분조를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방침이다.

근로단체기층조직은 그에 망라된 성원들의 정치생활의 거점이며 혁명활동의 기본단위이다. 근로단체동맹원들의 우결함을 누구보다 잘알고있는것도 기층조직이며 매개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그에 적응한 교양대책을 세울수 있는것도 기층조직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단체들의 기층조직인 초급단체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전사회혁명화를 추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화의 필요성과 내용 그 방도 등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심으로써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주시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핵심이 없이는 혁명투쟁이나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근로단체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혁명투쟁에서 핵심이 노는 역할과 그이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혁명을 령도해오시는 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독창적인 방침이다. 핵심이 있어야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대렬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으며 대중을 발동하여 당이 내세운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또한 준비된 핵심이 있어야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제때에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할수 있다. 핵심대렬이 튼튼해야 근로단체들이 참말로 혁명적인 대중단체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사업에서 핵심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선진투사들을 핵심으로 키워 그 대렬을 끊임없이 늘임으로써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은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고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여있는 일군들과 우수한 동맹원들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핵심 하나가 열을 교양하고 열이 백을, 백이 천을 교양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핵심을 꾸리는데서는 먼저 간부대렬부터

잘 꾸려야 합니다. 간부대렬부터 잘 꾸려놓고 그 간부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나가서 또 핵심을 꾸리게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단체핵심대렬을 꾸리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잘 꾸리는것이다.

근로단체간부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담당수행하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다. 당은 그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군중속에서 당이 의거할 핵심을 키운다. 그러므로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간부대렬을 잘 꾸려야 한다.

근로단체간부대렬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능력있고 군중의 신망이 두터운 핵심들로 꾸려야 한다. 근로단체간부대렬을 잘 꾸릴뿐만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교양훈련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간부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할뿐아니라 강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군중을 교양개조하고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동맹원들가운데서 핵심들을 료해장악하고 그 대렬을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늘이며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근로단체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핵심대렬을 꾸리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 및 방도 등을 전면적으로 명시해주심으로써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는 정확한 지침을 주시였다.

*　　　*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더한층 강화하며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근로단체의 위치가 명백히 규정되고 당과 근로단체의 호상관계,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근로단체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가 천재적으로 명시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근로단체들이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임무와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근로단체조직과 그 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심오한 혁명리론에 기초하여 가장 정확하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한층 발전시키고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오늘의 현실과 우리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근로단체사업을 더한층 강화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근로단체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은 근로단체건설분야에 주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근로단체조직들이 당의 령도를 받는 힘있는 대중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와 혁명적세계관확립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면서 혁명적세계관확립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그이께서 40여년간의 혁명투쟁행정에서 몸소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을 집대성하신데 기초하여 창시하신 천재적인 리론이다.

이것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적인간, 혁명가 육성의 근본문제를 처음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자연과 사회뿐만아니라 인간자체까지 혁명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진행정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적세계관확립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1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혁명적세계관확립이 차지하는 위치,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자기 생명을 혁명에 바칠 결심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개인의 리익을 희생하고 조직의 리익에 복종할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말하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16~41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결국 모든 사회성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심각한 인간개조과정이다.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언제나 혁명가다운 사고, 혁명가다운 행동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적세계관이란 온갖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력사적사명을 지닌 로동계급의 계급적 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을 말한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처지와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할뿐아니라 혁명적으로 개조할것을 지향하는 유일하게 혁명적이고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은 지주, 자본가 등 착취계급과 제국주의, 자본주의 제도를 혁명적으로 전

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과 태도를 가지며 이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는다.

혁명에 대한 로동계급의 이러한 견해와 립장으로부터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것을 혁명위업에 다바치는 열렬한 자기희생정신, 온갖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혁명을 위해 싸우는 강의한 의지, 로동계급의 최고뇌수이며 심장인 수령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사람들속에 혁명적세계관,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근본담보로 된다.

그런데 매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혁명적세계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하였었다.

오직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밝혀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혁명리론과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업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처음으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완성되는가에 대하여 리론실천적으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처음에 지주, 자본가들을 미워하게 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미워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 낡고 부패한 사회제도를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고 적을 때려부신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하나는 적을 증오하는 단계, 하나는 그것을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실천하려는 단계, 다음으로 그것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단계, 이것이 매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적세계관형성의 단계와 그 본질적요구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김일성동지께서 언명하신바와 같이 혁명적세계관형성은 적을 미워하는데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적을 증오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하겠다는 의식이 나올수 없다. 적에 대한 증오심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부패상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것이다. 사람들은 착취사회의 모순과 계급적대립을 체험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적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품게 되는것이다.

적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면 혁명의식이 싹트고 적을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부터 부패하고 모순에 찬 착취제도를 뒤집어엎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면 혁명적세계관을 수립하게 되며 또 이때로부터 혁명에 나서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이러한 혁명적의식이 적을 때려부신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다는데로 나아가면 그는 완전히 공산주의적혁명적세계관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온갖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열렬한 지향과 굳은 신념을 가질 때 완전히 로동계급의 세계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모든 사상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을 처음으로 체계정연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준 고전적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동시에 이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선 공산주의적인간, 혁명가 육성의 력사적과업을 가장 정확하게 실현할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성과 그 본질적요구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지침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그들을 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은 강제에 의하여 혁명에 끌려들어가 혁명가로 되는 법이 없다. 만일 일시적인 충동이나 강제에 의하여 혁명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끝까지 혁명에 참가할수 없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만 혁명에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만 끝까지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할수 있다.

더우기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국토가 둘로 갈라져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뿐아니라 미제가 강점하고있는 남녘땅에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그냥 남아있는만큼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민족해방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우선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혁명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투쟁하는 혁명가로 만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도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혁명적립장에서, 공산주의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할줄 알며 자기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도 가질줄 압니다. 그러나 혁명적세계관이 똑바로 서있지 못한 사람은 혁명적인것과 반혁명적인것,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도 갈라볼줄 모르며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질수 없습니다.》

우리 혁명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조성되여있다. 혁명의 적, 계급적원쑤들은 최후멸망에 가까와갈수록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반혁명적공세를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로골적으로 반항하는 적들뿐만아니라 교묘하게 은페된 적들과도 싸워야 하며 혁명대렬안에 끼여들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기회주의적요소와도 싸워야 한다.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앞에 나서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것이 혁명에 유리하고 어느것이 적에게 유리한가를 날카롭게 갈라볼줄 알아야하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혁명의 리익에 맞게 주동적으로 풀어나갈줄 알아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로동계급지선을 쭉세워 혁명적인것과 반혁명적인것,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을 갈라보고 모든 문제를 혁명적립장에서, 공산주의적립장에서 분석판단하며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만 온갖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법칙을 깊이 파악하고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맡은 혁명임무를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또한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적아를 똑똑히 가려내고 반혁명적요소의 본질을 제때에 폭로분쇄하면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릴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운 사람들은 언제나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도 혁명가의 립장에서 대하며 자기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킬줄 안다.

이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것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항상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지조를 영예롭게 지킬줄 아는 강의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동무들이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닥칠 때도 많을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을것이며 동요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을 믿고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에게는 당중앙이 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 결심을 한 사람이다, 언제나 당과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할것이다, 나개인이 하나 죽는것은 아까울것 없다,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다고 하여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혁명적신조만 가지면 어떤 곤난도 이겨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0~4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게 마련이고 이런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혁명가로 될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미제와 그 앞잡이를 때려부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원쑤의 총칼도,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의한 혁명가를 요구한다. 모든 인민을 다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도 온갖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것을 당정책관철에 다 바치는 열렬한 혁명가를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운 사람만이 혁명투쟁의 모든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동요를 모르며 오직 당과 수령을 믿고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키며 자기의 모든것을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고 혁명적락관에 충만되여 살며 싸운다. 그들은 혁명의 길에 놓인 난관을 전진도상의 일시적난관으로 보며 그 앞에서 오히려 혁명적각오를 더욱 굳게 하면서 그것을 뚫고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운 사람들은 수령의 명도밑에 혁명에 일생을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며 자기의 육체적생명은 끊어질지언정 정치적생명은 끝까지 지켜낼줄 안다.

참으로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일생을 혁명가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으로써 빛내일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워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근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549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혁명적세계관확립의 근본내용을 명시해준 강령적지침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운다는것을 말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떠나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해야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 립장과 방법을 가질수 있고 혁명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옳고 그른것을 똑똑히 가려낼수 없으며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투쟁의 앞길을 용감히 헤쳐나갈수 없습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2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온갖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혁명투쟁 행정에서 옳바른 혁명가의 립장을 견지할수 있으며 정확한 리론과 방법을 소유할수 있다. 그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계시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혁명가들이 항상 견지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립장, 혁명적 리론과 방법을 가르쳐주실수 있기때문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로동계급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줌으로써 이루어지는것이다.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의식으로 무장하게 되며 계급투쟁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소유할수 있게 된다.

계급의 의사와 지향, 계급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는 탁월한 수령은 전체 로동계급대중에게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를 인식시키고 그들을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투쟁의 방도를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또한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변화되는 시대적요구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계급적력량관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매 력사적 단계에서 로동계급이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관점, 리론과 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그것으로 대중을 튼튼히 무장시킨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혁명가들이 로동계급의 옳바른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없다.

우리 시대의 혁명가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곧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계급적원쑤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사회와 자연을 인식하고 변혁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것이다.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옳은 해답을 주는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는 지주,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 온갖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행정에서 그리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전 전선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혁명적립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과 방법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구현되여있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혁명과 세계 모든 나라 혁명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지도사상으로서 모든 혁명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떠나서는 오늘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발전된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전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 혁명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질수 없으며 조선혁명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리론과 방법을 소유할수 없으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조선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근로자들의 혁명화,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혁명위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근본립장과 태도가 바로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는것과 관련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이 얼마나 튼튼히 서있는가 하는것은 곧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얼마나 충직한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의 직접적반영으로서 이것은 수령께서 내세우신 혁명위업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립장의 집중적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에 충실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자기 계급과 자기자신을 위한 투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5페지)

혁명과 자기 계급에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여야 하며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것은 곧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것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며 혁명적세계관이 섰는가 안섰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승리할수 없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자본을 전복하고 전세계적범위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사명을 옳게 자각하고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승리의 한길로 걸어온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조선혁명의 전로정이 실증해주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조선의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계급적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설수 있었으며 수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만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항상 자기의 확고한 계급적원칙성과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그이께 무한한 충성을 다하는것은 지난날에도, 오늘과 래일에도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로동계급, 조선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 무한히 충성을 다하는것을 자기의 더없는 영예로, 최대의 의무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계급적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초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심장속에서 흘러나오는 혁명적립장, 계급적관점의 집중적표현으로 된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풍모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이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것은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서 근본적인 내용으로 된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실천적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에 나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선전교양에 의하여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고 혁명에 끌려들어가는것이며 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혁명투쟁을 시작하게 되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동안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련되며 집단과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사상교양과 혁명실천, 조직생활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밝혀주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과 혁명실천, 혁명적조직생활을 밀접히 결부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그들을 자각적인 혁명투사로 만드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들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없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사람들은 혁명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알고 의식적으로 혁명투쟁에 나설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실천, 혁명적조직생활과정에서 끊임없이 단련되며 완성된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하루이틀에 형성될수 없으며 또한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행정에서, 강한 조직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의 혁명적의지는 더욱 굳어지고 혁명에 대한 관점, 립장, 태도는 더욱 세련되고 완성되여가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실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인내성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2페지)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벌리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혁명적세계관확립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방침이다.

당정책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수행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혁명실천에서 옳고 그른것을 가려낼수 없으며 모든것을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없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혁명에 충실하겠다고 하여도 당정책을 모르면 혁명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없고 결국 혁명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혁명전통교양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철저한 혁명적관점과 혁명투쟁의 산리론과 방법으로 무장시키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특히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작습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전형이신 수령께서 몸소 혁명적세계관을 이룩하시고 그를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빛나게 완성하여오신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울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이의 초기혁명활동시기,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들고 일편단심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다음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중요한것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본질과 그 부패상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계급적원쑤들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근본조건으로 된다.

더우기 오늘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전복된 사회주의사회에서 그리고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의 부패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더욱더 많이 혁명대렬에 들어서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속에서 계급적원쑤들을 증오하고 적들과 견결히 싸우려는 혁명의식을 높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와 또다시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반동과의 야수적본성을 발가놓고 그놈들을 끝없이 증오하는 정신으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비타협적투쟁정신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과거를 잊지 말게 하며 남반부를 잊지 말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그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동시에 이 모든 교양사업을 각계층의 실지사업, 생활과 결부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 그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는 혁명적량식을 꾸준히 넣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실천, 혁명적조직생활 과정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단련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십년동안 혁명투쟁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었고 난관에 부닥쳐 사람들이 흔들리는 때도 많았으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오랜 투쟁과정에서 혁명적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5페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혁명실천속에서, 강한 조직생활과정에서 더욱 튼튼히 확립된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혁명투쟁행정에서, 혁명적조직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똑똑히 체득하게 되고 그와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벌리게 되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계급의식과 혁명적관점을 더욱 튼튼히 수립하게 된다. 이리하여 혁명실천과 조직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동요없이 자기 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자신의 모든것을 혁명에 다바쳐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혁명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하여 비판을 통하여 투쟁을 하고 투쟁을 통해서 개조하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체 낡은 사상과 관점, 낡은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이리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가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성과로써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수령의 혁명사상 이외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신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더잘 준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 출판물

오는 11월 1일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의 전신인 《정로》창간 스물다섯돐이 되는 날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지도에 의한 당보의 창간은 우리 당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뜻깊은 사변이였다.

당보의 창간으로 우리 당은 자기의 위력한 사상적기수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친근한 벗을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기관지를 창간하신 다음에도 수많은 당적출판물들의 발간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였으며 그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의 전투적기관지를 비롯하여 사상전선의 수많은 초병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의 출판물들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진정한 대변자이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우리 혁명과 국제혁명위업에 이바지한 자랑찬 투쟁업적으로 하여 내외의 광범한 독자들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고있으며 당적, 혁명적 출판물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

1

우리 당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에 이미 조선혁명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한 고리로서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출판물을 창간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시기 조선혁명의 종국적목적과 당면한 투쟁임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투쟁강령을 작성하시면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여러가지 대중정치선전선동수단, 그중에서도 특히 혁명적출판물과 같은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투쟁에서 혁명적출판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역할을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이 낡은 사회의 상충부를 폭파하고 전사회구조를 혁명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혁명위업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대중의 정신력 즉 그들의 정치사상적무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는것은 혁명적출판물이다. 혁명적출판물은 혁명조직의 활동에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되며 대중을 의식화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힘있는 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첫시기에 내놓으신 혁명적출판물에 관한 위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적출판물을 창간하고 발전시킬수 있게 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출판물에 관한 위대한 사상에 기초하시여 1926년 겨울 무송에서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비합법적신문인 《새날》을 직접 창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때로부터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새 기원이 열러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문 《새날》을 발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커다란 성과와 풍부한 경험 그리고 우리 나라 혁명적출판물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기초하시여 1930년 여름에는 신문 《볼쉐위크》, 잡지 《농우》를 창간하시였으며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과 조선인민혁명군 대내 정치신문인 《서광》, 《종소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고 지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혁명적출판물들의 창간은 자기의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적출판물을 가지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고 지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처음으로 자기의 전투적인 사상적기수를 가지게 되었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혁명투쟁에서 참다운 벗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신 혁명적출판물들은 철저하게 주체가 서고 당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출판물들이였다.

이 혁명적출판물들은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시기에 발간되였던 출판물들의 본질적인 약점들을 완전히 극복한 새형의 맑스-레닌주의적출판물들이였으며 창간첫날부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전투적기치로, 항일무장투쟁의 위력한 사상적기수로 되였다.

이 혁명적출판물들의 특징은 그것이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창간되고 지도되여 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출판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공산주의적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대중성 등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출판물의 특성을 완전히 구현하였으며 당시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고있던 모든 선진적출판물들의 지도적중심이였으며 국제혁명운동과 진보적출판물의 발전에도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준 출판물이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출판물들이 걸어온 길은 그이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으로 광범한 군중들과 유격대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모두가 위대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도록 교양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이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일관하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 로선과 방침들을 전면

적으로 해설선전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특히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출판사업에서 그를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조선혁명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우고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부르죠아민족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혁명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시종일관 일제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과 취약성에 대하여, 놈들의 온갖 기만선전의 허위성에 대하여, 지주, 자본가 제도의 착취적본성에 대하여 생동한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준렬히 폭로규탄하였으며 놈들과는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으로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을 무장시켰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창간 첫날부터 자기 활동의 전기간 대중을 의식화하고 혁명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실현하는데 충실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조선인민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며 정든 고향땅을 등지고 이국땅에 와서까지도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것은 바로 다름아닌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 있다는것을 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처지와 밀접히 결부하여 생동하게 해설선전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철저히 각성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조직에 튼튼히 결속되어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실하도록 교양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또한 광범한 인민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몸바쳐싸우도록 교양하였다.

실로 혁명적출판물들은 자기 활동의 전기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전투적기치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어떠한 악페에도 물들지 않은 새세대의 공산주의자, 조선의 혁명가들을 키우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함에 있어서 집단적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밑에 혁명적출판물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는 과정에 출판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여 관철한 경험, 출판물의 선전선동조직자적역할을 높이며 그 전투적당성과 로동계급성, 대중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경험,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과 비합법적조건하에서 출판사업을 진행한 경험 등 끝없이 귀중하고 다방면적인 경험들을 수많이 축적하였다. 또한 혁명적출판물의 발간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이 일대 고조를 이룩하고있던 시기에 혁명적출판물

이 지도적지침으로 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견결한 혁명정신, 혁명적출판물에 구현된 유일사상체계, 혁명적출판물의 주체성, 그 공산주의적당성과 로동계급성, 대중성과 진실성, 혁명적출판물이 이룩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 업적과 경험 등은 우리 당 출판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루며 해방후 당적출판물의 발전을 위한 끝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 출판물들에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합법적출판물들을 지체없이 창간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 당적출판물들을 시급히 발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빨리 당보를 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각지방당단체들과 인민들은 무엇인가 해보려 하고있는데 우리 당의 로선을 잘 알지 못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고있습니다.…

적지않은 군중은 지금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릇된것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당면과업은 군중을 시급히 교양하여 그들이 반동들과 적극 투쟁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혁명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는 오직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간고하고도 오랜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몸소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고 지도하여오시면서 우리 당 출판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빛나게 해결하실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 사회 건설에서 당적출판물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근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당적출판물들을 제때에 창간하시였으며 그 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적출판물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으며 해당시기의 중심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어버이수령께서는 당보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의 중요한 기사, 사론설들의 중심사상과 서술체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그 제목과 위치까지 지적해주시였으며 기자, 편집원들이 쓴 하나의 평범한 기사를 놓고도 밤을 지새워가시면서 친히 손을 대주시고 그 내용과 문풍을 바로잡아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기자, 편집원들을 친자식처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을 훌륭한 당적출판보도일군으로, 당의 붉은 문필전사로 키워주시고 혁명의 옳바른 한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당적문필전사들의 취재집필활동과 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서는 사소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육친적인 지도와 끊임없는 보살핌이 있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들처럼 해방직후 모든것이 곤난하였던 평화적건설시기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또한 수많은 난관이 중첩되였던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

적출판물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 출판물의 중요한 특성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출판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출판물에서 당성이 완전하게 표현되도록 보장하며 그 대중성과 인민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확보함으로써 출판물들의 진실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입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1960년판, 562~563페지)

우리 당 출판물들은 수령의 이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우리 당 출판물이 걸어온 길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성, 견결한 반제적립장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확고한 당적원칙성은 우리 당 출판물의 중요한 특성이며 그 근본표징이다.

출판물의 전투적당성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그 구현인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적극 해설선전하고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발전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등대이며 라침판이다. 우리 당 출판물들에 있어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적극 해설선전하며 철저히 집행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으며 이것을 떠나서 출판물의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출판물들이 그러하였던것과 같이 언제나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인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사회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여왔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혁명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당에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였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특히 당사상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선전자, 철저한 집행자이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판사업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리익의 견지에 서서 우리 혁명의 실천적문제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취급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관철에 충실하였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특히 1955년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한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출판사업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하였으며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당 출판물들은 또한 김일성동지의 위

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 영웅적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자, 선전자, 조직자였다.

오늘 우리 당 출판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적극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기수로 되고있으며 그 내용과 형식의 모든면에서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

혁명의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 출판물의 중요한 특성이며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지난날 혁명적출판물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혁명의 기치, 계급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언제나 우리 혁명의 주되는 대상이며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그의 충실한 2중주구인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고수하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견결한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받들고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투쟁의 거세찬 폭풍이 더욱 힘차게 휘몰아치도록 하는데서 당의 충실한 방조자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출판물이 걸어온 로정은 그대로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그것이 승리하여온 영광의 력사이다. 그것은 또한 철두철미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당적출판보도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그 승리의 력사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당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고 지도하여오시는 전과정에 출판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혁명과 건설에서 선전사상의 옹호자이고 전파자이며 사회여론의 대변자이고 조직자이며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당적출판물의 위치와 사명을 독창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출판물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 사상사업과 출판보도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일익을 맡고있는 출판보도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신것이다.

당적출판보도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출판물들이 부르죠아적출판물들과의 계급적선을 명확히 가르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상적무기답게 출판물의 공산주의적당성을 높일수 있게 하는 유

일하게 정확한 길이며 그 로동계급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적출판물들에서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며 주체성의 원칙을 구현할데 대한 새로운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과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60~561페지)

당적출판물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은 당적출판물에 관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근본초석을 이루며 우리 당 출판보도정책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당적출판물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적출판물들에서 반드시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에 관한 사상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출판물들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직접 계승하고있다는것을 밝히시면서 당적출판물들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창조된 자기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할 때만이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당적출판물들이 자기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적출판물들이 자기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취하며 그것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인가를 명시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적출판물의 집단적 선전선동자, 조직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 사상혁명의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당적출판물의 전투적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그리고 당적출판물들이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주목을 돌리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힘있는 사상적기수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적출판물들이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당적출판물들의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대중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복무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출판물들의 고유한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본성적요구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더욱더 전면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로 된다. 당적출판물은 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영웅적위훈에로 조직동원하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당적출판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킴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

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보람찬 혁명의 시대,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있는 장엄한 력사적시대인 현시대의 특징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그에 상응한 5대륙의 진보적 기자들과 출판물들의 전투적 사명과 역할을 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특히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출판물들과 기자, 언론인들 앞에는 오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자유와 해방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미제국주의를 준렬히 단죄하며 전세계 인민들을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결전에 용감히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진보적인 기자, 언론인들이 쓰는 모든 기사, 평론, 정론들은 미제를 력사의 심판대에 제소하는 힘있는 고소장으로, 인민대중을 반미구국항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는 실로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기자들과 출판물들이 자기앞에 나선 시대적사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준 탁월한 문헌이며 진보적기자들의 국제적운동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강령이며 당적출판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현력사적조건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고전적로작이다.

이 로작은 또한 세계혁명적인민들앞에 반제반미투쟁의 명확한 길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그 기치밑에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반제반미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강령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밖에도 당적출판물들이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적출판물의 편집, 출판, 배포에 이르는 모든 행정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당적출판물들에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혁명적문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당적출판물에 관한 이 모든 탁월한 사상과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판보도활동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지침으로 되며 출판물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 ⁂

오늘 우리 당 출판물앞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자기의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출판물들은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우리 당 출판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출판보도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기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사명을 보다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당 출판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어버이수령의 크나큰 배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훨씬 올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투쟁으로 들끓는 가운데 임금인상의 크나한 배려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있으며 온 나라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고있다.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 획기적인 조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의 표시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임금인상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을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매우 높은 수준에까지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번조치는 또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평균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훨씬 많이 올리고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게 올리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좁히고 고르롭게 높이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가급금, 년봉금 제도가 더욱 광범히 적용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기본임금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였다.

인민들의 의식주문제가 이미 해결된 기초우에서 금번 또다시 대폭적인 임금인상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기한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실현하는데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08페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공업은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튼튼한 원료기지에 현대적기술장비를 갖춘 자립적체계가 확고히 선 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농촌경리는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선진농업과학의 성과들이 널리 도입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경제는 인민생활향상에 요구되는 질좋은 여러가지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넉넉히 생산공급하고있다. 도시와 농촌은 보다더 아름답게 꾸려졌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화적이고 흥겨운것으로 되였다. 실로 7개년계획의 성과적추진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는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 긴장된 투쟁속에서 취하여진 전반적인 임금인상조치는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가 찬란히 꽃핀것이며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의 뚜렷한 시위이며 우리 당 경제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이 위대한 성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더욱 커다란 고무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인민적시책들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그이의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를 집행하는데서 시종일관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였다.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수많은 시책들과 함께 금번 또다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킨 획기적조치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을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립장에서 흘러나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생활을 높이며 그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복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을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종국적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제기하시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를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는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가 혁명투쟁을 하고 건설사업을 진행하는것이 궁극에 있어서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난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에게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바로 그것이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수립의 기초를 이룬다는것을 말한다.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이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만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갖은 멸시와 굶주림에 시달려온 근로대중을 하루빨리 잘살게 할수 있으며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장구한 기간 피흘려싸운것도, 해방후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운것도, 오늘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도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모진 착취와 억압, 빈궁과 무권리에 시달려온 우리 인민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보장하려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리념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에는 이처럼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 활동원칙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 이것은 가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체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

명활동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근본원칙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갖은 고생을 다하며 왼쑤들과 싸우는것도 인민을 위한것이고 우리가 굶으면서도 인민들에게 될수록 폐를 안끼치려 하는것도 인민을 사랑하기때문이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시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그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의 더욱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화폐임금과 실질수입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여주시였으며 전후에만도 네차례에 걸쳐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화폐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주시였다.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최근년간에는 낮은 임금을 받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의 임금이 훨씬 높아졌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대중소비품의 값이 계통적으로 인하되였다.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책들을 실시한데 뒤이어 금번 또다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평균임금을 31.5%나 올린것은 우리 인민생활을 더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더우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에 방대한 국가자금을 돌리는한편 싸우는 형제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물질적지원도 주어야 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대폭적인 임금인상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시고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던것이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인민적시책들과 더불어 이번에 취해진 대폭적인 임금인상조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이룩된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밑에 민족경제의 강력한 자립적토대를 축성할데 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심으로써 근로자들의 의식주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는 위력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의 인민경제를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에 의거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종합적인 경제체계로,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발전시키는것은 주체적인 물질기술적력량에 의거하여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며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속도를 끊임없이 높이면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물질적기초로 된다. 국내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야만 소비품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수행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야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장성시키고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관철함에 있어서 언제나 경제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문제를 다같이 틀어쥐고 동시에 해결하는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토대를 닦으면서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함께 푼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여 혁명의 요구를 저버릴수는 없는것이며 일시적인 안일을 위하여 나라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희생시킬수는 없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8～199페지)

생산의 발전과 경제토대의 축성은 인민생활향상의 경제적기초로, 물질적담보로 되며 인민생활의 향상은 생산의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동시에 틀어쥐고 풀어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적생산을 빨리 늘이면서 그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소비를 동시에 체계적으로 장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적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다같이 틀어쥐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과거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물려받았고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 우리 나라 조건에서 우리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면서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추진시키며 소비재생산을 빨리 늘이면서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심으로써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당이 복구기의 간고한 조건에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에 힘을 넣고 여기에서도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문을 중심적으로 발전시킨것은 자립경제의 터전을 닦는것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업을 다같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창조적인 로선을 견지하심으로써 자금을 절약하고 국가축적을 증대시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기지를 급속히 확대하며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그 생산을 따라세울수 있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가지고 자체로 생산한 갖가지 옷감과 일용품, 식료품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꾸릴수 있게 된것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구현되였기때문이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경제적위력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였으며 특히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이 힘차게 추진됨으로써 더욱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국내자연부원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마련되였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우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금번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단번에 31.5%나 올리는 획기적조치는 바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석같이 다져진 자립경제의 토대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의 발현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다같이 해결하는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또한 국민소득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그것을 축적과 소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리용할데 대하여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복리의 부단한 증진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국민소득의 체계적인 장성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국민소득을 훨씬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축적과 소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국방건설의 성과적진행을 보장하면서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칙에서 국민소득을 잘 분배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63페지)

국민소득의 체계적인 장성은 생산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제적원천이며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정확히 유지하는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나라의 경제생활에서 모든 자원과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국민소득을 장성시켜야 국가는 축적에 더 많은 몫을 돌리면서 소비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가질수 있다. 또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옳게 설정해나가야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도 보장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적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에 기초하여 국민소득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는데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리는 한편 그 분배에서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축적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매 시기 최대한의 몫을 당면소비에 돌리게 함으로써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해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면서도 매해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인민생활을 위하여 돌리고있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의하여 조성된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는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한 가장 현명적인 방도였다. 바로 이 혁명적인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국방건설에 방대한 국가자금을 돌리면서 사회주의적생산의 확대를 위한 축적을 끊임없이 늘여 나라의 경제군사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생활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변모시킬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전면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 항상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부문 로동자들의 임금비률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는 동시에 통털어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앞으로도 옳게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3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킬데 대한 원칙은 사회주의분배관계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더욱더 높임과 함께 농민들의 생활을 보다 빠른 속도로 따라세움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보다더 행복한 생활을 다같이 누릴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로 된다.

수령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최근년간만 하여도 대중소비품의 값을 여러차례에 걸쳐 대폭 낮추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훨씬 높이는 조치가 취해졌다.

사회문화적시책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국가적시책들은 그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도록 최대의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개인소득형성에서 기본을 이루는 로동에 의한 분배몫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추가적인 혜택에 의한 인민들의 개인소비몫을 보다 빠른 속도로 장성시켜왔다.

인민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위한 직접

적인 국가예산지출의 급격한 장성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임금에 의한 수입에 거의 맞먹는 혜택을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받고있다. 국가보상에 의하여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식량과 연료가 공급되고있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의 혜택이 더욱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지고 탁아소, 유치원 원아들과 모든 학생들에게는 옷과 신발이 눅은 값으로 공급되고있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준에 접근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훌륭히 관철되고있다. 농업현물세제가 폐지됨으로써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은 온갖 세금부담으로부터도 영원히 해방되고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사회주의농촌에서 살고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투자에 의하여 기본생산시설들을 보장받고있으며 기계설비, 영농기재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국가부담으로 건설된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끝없는 행복은 어버이수령의 높은 은덕과 극진한 배려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를 몸소 풀어주시고 한 로동자의 건강과 산간벽촌의 한 농가의 살림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돌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의식주와 자녀교육,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넉넉하고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여 남새생산을 공업화하게 하시고 도처에 현대적인 닭공장을 세우게 하시여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풀어주시였다. 또한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념려하시여 지방의 자연경제적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몸소 창성군에 그 모범을 창조하시여 전국에 일반화하시였으며, 또다시 지방공업을 대중적운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발기를 하시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아름다운 생활필수품들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배려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모든 인민적시책들과 함께 또다시 그들의 화폐임금을 대폭 인상한 금번의 조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의 발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두다 굳게 단결되여 화목하고 문명하게 살고있으며 다같이 나라의 번영과 자신의 보다큰 행복을 위하여 온갖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고있다.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실업과 기아의 위협을 모르며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다같이 일하며 배우며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며 사회주의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생활인것이다.

지난날 헐벗고 굶주리고 문명세계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인민이 오늘 누리고있는 이 참된 행복은 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수중에 있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된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넉넉하고 생활이 행복하면 할수록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에서 갖은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형제들을 잊을수 없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침략기지로 전변되었으며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 민족적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 기아와 실업과 빈궁의 도탄속에서 신음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날로 륭성발전

하는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동경하면서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를 받으면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이번에 또다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하여야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를 옳게 파악하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으며 대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당조직들과 모든 일군들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와 그 구현인 제반 인민적시책들 특히 금번의 임금인상조치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경제적의의를 깊이 해석침투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당면하게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한다.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 이것은 우리 나라를 공업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가장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반드시 점령함으로써 이력사적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

히 풀고나가며 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열릴 시각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승리자의 긍지 높이 당대회를 맞이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 기계, 세멘트, 목재, 각종 화학제품 등을 더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며 질좋고 다양한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생활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진 조건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질좋은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금번 임금 인상으로 높아지는 근로자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시려는 어버이수령의 높은 뜻을 더잘 실현해나갈수 있다.

경공업부문과 농업, 상업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구매력에 맞게 천과 신발 그리고 철제, 수지 및 목제 일용품을 비롯한 일용필수품과 고기, 남새, 닭알, 과일, 수산물 등 여러가지 식료품을 더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또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물의 원가를 결정적으로 낮추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물의 원가저하는 공업의 내부축적을 형성하는 원천이며 상품가격인하의 기초이며 인민의 물질적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됩니다.》 (《김일성선집》, 제4권, 1960년판, 123페지)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것은 나라의 재정원천을 늘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고 생산물의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어야만 나라의 축적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면서도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제적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낼수 있다. 원가를 낮추어야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이고 그들에게 사회문화적혜택도 더 많이 베풀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금번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이 대폭 높아진것과 관련하여 나라의 자금이 더 많이 지출되는 조건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원가를 낮추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대의 설비, 한개의 자재와 원료라도 극력 아껴쓰며 특히 원자재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더 절약하고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쓰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번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배려와 은덕은 한량없이 깊고 뜨겁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넓은 품에 안겨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은 참으로 행복하며 그러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행복, 이 기쁨을 더없는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오직 수령께 충성다할 일념으로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가르침따라 끝없이 싸워나가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그앞에는 더욱 휘황한 미래가 있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며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정 병 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동력과 그 투쟁대상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남조선혁명의 대상으로 된다고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혁명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은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혁명의 적, 인민의 원쑤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함께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흉악한 매국배족적정체와 계급적본질을 똑똑히 알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의 주구로서, 안내자로서 복무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며 그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9～390페지)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며 그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 남조선혁명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도시의 소부르죠아 및 민족자본가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두사이의 모순에 의하여 산생된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따라서 남조선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내반동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은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인 통치자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도 투쟁의 창끝을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야 하며 반미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미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반드시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또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국내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진행할수 없다. 오직 이

두가지 투쟁이 결합될 때에만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해방도,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나라의 통일위업도 성취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여야 할 근거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지지하며 그에 추종하고있는자들은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입니다.》(우와 같은 책, 38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해방을 가로막고있는 악랄한 원쑤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는데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 의거하고있으며 이들은 미제국주의침략의 길잡이로, 그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있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예속시킴에 있어서 그 나라의 가장 반동적인 계급들을 저들의 식민지적지배의 기둥으로 삼는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비호육성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비호육성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는 매국노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그놈들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의 온갖 전횡과 략탈행위를 적극 옹호하고있다.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무엇보다도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내맡기면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이놈들은 미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놈들은 대중속에서 미제에 대한 환상과 숭미사대주의 사상을 퍼뜨리면서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귀축같은 살인만행, 무제한한 략탈을 적극 비호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모든것을 미제에게 송두리채 내맡기고있다.

또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정책을 적극 지지옹호하면서 놈들의 군사기지화정책수행에 발벗고나서고있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바로 이러한 국내반동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주인노릇을 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발판으로 만들고있다.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정치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남조선을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식민지략탈지로 팔아넘겼다.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원조》를 구걸하면서 남조선경제를 미제침략자들에게 송두리채 내맡김으로써 미제의 예속경제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들었다. 놈들은 수많은 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이고 남조선에서 미제독점체들이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미제의 강도적이며 식민지적인 략탈을 적극 비호조장하고있다.

이놈들의 이러한 죄행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제의 침략목적에 동원리용되고있으며 경제의 기본명맥은 미제독점자본의 손에 들어갔다. 남조선의 중요 《기간산업》은 미제가 장악하고있으며 중요원자재의 80～100%를 미제와 그의 추종국 독점자본에 완전히

의존하고있다. 특히 원자재중에서 원면은 99.9%, 원모와 밀, 원탕은 100%, 기계설비와 부분품은 거의 100%가 외래독점자본에게 얽매여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에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미제의 침략과 략탈의 안내자이며 길잡이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적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며 민족적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동시에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며 그놈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실 때 미제의 식민지통치지반은 허물어질것이며 따라서 놈들은 남조선에 더는 발붙일수 없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의 직접적인 원쑤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남조선에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을 온갖 계급적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해방은 오직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청산함으로써만 달성될수 있다.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악랄하게 억압착취하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있는 계급적원쑤들이다.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제놈들의 무제한한 치부와 향락을 위해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최대한의 리윤추구에 혈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는 매판자본가놈들은 감옥과 같은 작업장에서 로동자들에게 하루12~18시간 지어는 20시간의 긴 로동시간을 강요하면서도 최저생활비의 4분의 1~5분의 1도 안되는 기아임금을 주고있으며 그것마저 온갖 구실을 붙여 잘라먹고있다. 또한 놈들은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는 작업장에서 로동자들을 혹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시로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로동계급을 인간이하의 생활고와 빈궁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목숨을 수없이 빼앗아가고있다.

또한 남조선농촌의 지주계급은 수확고의 50~60%에 달하는 고률소작료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중세기적인 봉건적착취를 농민들에게 강요하고있으며 농촌경리를 피폐령락시키고 농민들을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에서 절량농가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체 농가의 90%에 해당하는 225만호가 절량상태에 빠졌다.

이와 함께 반동관료배들은 제놈들의 권세와 지위를 리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고있으며 온갖 사기와 협잡, 투기와 모략으로 인민들을 수탈하여 배를 불리고있다.

이와 같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인민들을 무제한하게 착취할뿐만아니라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빼앗고 가혹하게 억압하고있다.

놈들은 로동자, 농민들에게서 보고 듣고 말할 자유와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고있으며 제놈들의 무제한한 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사소한 반항도 총칼을 휘둘러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들은 극도의 무권리와 가난속에서 허덕이고있으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호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

본가, 반동관료배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며 제놈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랄한 계급적원쑤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의 계급적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고있는 미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셔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길잡이로 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여야만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성취할수 있다.

* *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대상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총칼을 휘둘러 조작해낸 남조선괴뢰정권에 의거하여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 사실도 더는 숨길수 없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402폐지)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괴뢰정권의 계급적기초를 이루고있다.

남조선력대괴뢰국회의 구성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1948년에 처음으로 꾸며낸 괴뢰국회에서는 지주 42%, 매판자본가 16%, 반동관료배들이 12%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도 모두 친미친일주구들이였다. 특히 1967년에 류례없는 파쑈폭압과 협잡속에서 조작해낸 현괴뢰국회에는 지주, 매판자본가 등 착취자들이 전체 《의원》의 33%, 군사파쑈분자들을 비롯한 반동관료배들과 정상배들이 44%를 차지하고있으며 주민의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단 한명도 없다. 이들은 모두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미제국주의자들에 아부굴종하여 권세를 부리는 인민의 원쑤들이다.

특히 현남조선괴뢰정권에는 지난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학살하였으며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전락한 박정희도당이 들어앉아있다.

또한 남조선괴뢰정권의 권력을 직접 행사하고있는 반동관료배들도 모두 지주, 매판자본가들에 토대하고있으며 과거에는 일제를 섬기고 오늘은 미제에 아부굴종하는 반역자들이다.

따라서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와 그 앞잡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 의거하고있는 철저히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이 실시하는 이른바 《정책》들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정권〉의 이른바 〈정책〉은 모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안일과 향락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인민들을 략탈하고 착취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02페지)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와 반동관료배들에 의거하고있는 반동《정권》으로서 그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들은 철두철미 반인민적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온갖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략탈,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매국배족적책동과 반인민적인 착취를 적극 지지옹호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억압하고있다.

박정희악당은 정권을 탈취한후 오늘

에 이르는 기간 무려 4,000여건의 악법을 조작해내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사소한 요소도,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도, 자주적조국통일에 대한 지향도 마구 탄압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들에 대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백방으로 옹호하고있다.

극악한 파쑈분자이며 교형리인 박정희도당이 조작해낸 《로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로동쟁의조정법》만 보아도 그것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로동자들에 대한 미제와 매판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억압을 《법적》으로 옹호하기 위한것이다.

또한 놈들이 꾸며낸 《농지담보법》도 농민들로부터의 지주의 토지략탈을 더욱 《합법화》해주기 위한것이며 이것으로도 모자라 최근에는 보다더 략탈적이고 반동적인 《농지법》을 조작해내려고 서두르면서 형식상이나마 《농지개혁법》에 규정되여있던 《토지소유상한제》까지 철폐하려 하고있다.

박정희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반인민적인 착취와 억압을 《법》적으로 옹호하고있을뿐만아니라 파쑈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놓고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

놈들은 경찰특무망을 삼엄하게 펼쳐놓고 인민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있으며 매판자본가들의 비인간적인 착취에 대한 로동자들의 사소한 항거도, 지주들의 야만적인 략탈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그 어떤 투쟁도 다 짓눌러버리려 하고있다.

실로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와 그 주구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착취와 략탈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남조선괴뢰정권이 국내반동들의 치부를 옹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 속에서 만연되고있는 부정부패행위를 감싸주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힌 매판자본가들의 로골적인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증대되고있으며 제놈들의 권세를 리용하여 인민의 재산을 닥치는대로 략취하여 배를 불리고있는 반동관료배들의 략탈과 사기, 협잡 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남조선반동관료배들의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는 광범한 인민들과 세계사회여론에 의하여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으나 남조선괴뢰정권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남조선괴뢰정권에 들어앉은 박정희역적놈자신이 부정부패의 두목이기때문이다.

개인의 향락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천추에 용납못할 만고역적 박정희놈은 《정권》을 가로챈후 미제를 등에 업고 매판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로골적인 부정부패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여왔으며 막대한 금액을 횡취하였다. 이미 폭로된 《4대의혹사건》, 《3분폭리사건》, 《정만칠부정사건》, 《위조지폐사건》, 《데트론 밀수사건》, 《사카린밀수사건》 등은 박정희놈의 부정부패행위를 보여주는 몇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대통령》감투를 쓰고있는 박정희역도자신이 바로 이러한 놈이기때문에 남조선괴뢰정권은 반동통치계급들속에서 늘어나는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적극 감싸주고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악법들과 관권을 리용하여 옹호하고있을뿐만아니라 소위 《경제정책》을 통해서도 그들의 착취와 억압을 비호조장해주고있다.

력대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위한 반동적착취계급들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가 실시한 《적산불하정책》과 매판자본 《육성정책》을 추종하여 도시에

서 매판자본을 자래우고 식민지적예속과 착취관계를 강화하여왔으며 농촌에서는 미제의 식민지략탈과 지주놈들을 위한 봉건적착취관계를 극력 보존하여왔다.

오늘 박정희괴뢰정권은 《근대화》요, 《기간산업육성》이요 하는 미명하에 한줌도 안되는 매판자본가놈들에게 온갖 《리권》과 《특혜》를 주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떠들던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기간에만도 재정투자의 50%이상을 군사적목적과 관련된 매판자본기업에 집중하고 민족자본을 대표하고있는 중소기업에 던져준것은 1~2%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원료, 자재, 설비, 동력 등을 틀어쥐고 그것을 매판자본가놈들에게 집중공급하는 반면에 중소기업가들에 대하여서는 공급을 극도로 억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정권은 《중농정책》이니 《농업근대화》니 《농가소득증대》니 하는 따위의 미명하에 경제의 군사화를 위한 농민수탈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지주들의 착취와 치부를 적극 비호하고있다.

놈들이 들고나온 《농가소득증대》라는 것만보아도 이것은 제놈들의 전쟁정책에 필요한 군량미를 비롯한 《군납품》과 재정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지주를 비롯한 착취자들에게 자금을 집중융자해줌으로써 그놈들의 착취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은 미제가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기 위하여 꾸며낸 박정희괴뢰정권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대상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고 비호하는 철저한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의 창끝을 더욱더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리고있는 동시에 그 앞잡이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미제와 국내반동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을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할 때에만 오늘의 저주로운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2페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박정희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전취하여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침략자들에게 남조선의 모든것을 내맡겨 남조선인민들이 온갖 민족적 멸시와 억압을 받게 할뿐만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그우에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매국노이며 인민대중에게 파쑈적탄압을 가하고 애국자들을 박해하며 《이민》이요, 《인력수출》이요 하면서 동족을 외국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종신노예로 팔아먹으며 동족의 피를 미제의 침략정책의 제물로 바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이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의 해방도,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남조선반동계급의 청산과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여야만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주권을 전취할수 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다.

력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식민지통치자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인민대중에 대한 제놈들의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에서 물러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야욕으로 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 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정권은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여러번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미제는 그때마다 제놈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4.19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넘어진것은 사실상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일대 붕괴를 의미하였으나 이때에도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려 하지않고 도리여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에 가장 야만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세우는것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인민들은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없으며 주권을 쟁취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전인민적항쟁을 벌림으로써만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실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승리를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이 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또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철벽으로 다져진 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가 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열렬한 동정과 지지를 받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결탁과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의 로골화

김 경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일본은 아세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발원지로 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또정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있을뿐아니라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23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외침략의 흉악한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망상하면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더욱더 로골적으로 가담하여나서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공모결탁밑에 특히 그 침략의 예봉을 우리 나라에 돌리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과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공모와 결탁은 우리 나라에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 *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직접적 산물이며 그 기본내용을 이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와 일제는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 얽혀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2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서로 일정한 모순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공통된 흉악한 목적으로 하여 공모결탁하고있다.

세계제패의 야망에 사로잡힌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을 강점한 첫날부터 일본군국주의를 되살려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민족해방운동을 억누르는 《돌격대》로 써먹을것을 계획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군사전략적위치, 발전된 공업력, 야만적침략경험과 그 인적자원을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에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을 타산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를 적극 재생재무장시켜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에서 군국주의세력을 적극 부활시키고 그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를 리용하여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혁명력량을 탄압말살하며 날로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는 침략적지반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한편 패전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러한 흉악한 침략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저들의 살길을 찾으려 하였으며 또다시 침략의 길에 나설것을 꾀하였다.

아세아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민족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됨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가고있는 새로운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공모결탁은 극

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어제날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거세찬 혁명적폭풍이 휘몰아치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로,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당하고 멸망의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국주의는 오늘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 등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서 또다시 심대한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제놈들이 겪고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모한 전쟁정책에 매달리면서 악명높은 《새로운 아세아전략》, 이른바 《닉슨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놈들이 떠드는 《새로운 아세아전략》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가장 음흉하고 악랄한 침략적정체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며 그것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른바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전략》이란 제놈들의 침략책동에 일본군국주의세력과 기타 아세아괴뢰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며 이렇게 하여 파산된 저들의 아세아침략체제를 수습보강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려는것이다.

안팎으로 얽어맺아 녹아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해외기지축소》요, 《철수》요 하는따위의 헛나발을 불어대면서 아세아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과 현대적군사장비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아세아괴뢰들과 추종국가들에 대하여 군비를 강화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와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아세아《반공》군사동맹조작책동을 다그치면서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여기에서 큰 《역할》을 놀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전쟁두목 닉슨이란놈은 일본의 사또도당과의 회담에서 이른바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었으며 미일간의 《협동관계》가 아세아에서의 《닉슨주의실현을 위한 열쇠》라고 미변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부추김과 사촉에 따라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에 이골이 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또다시 깨여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놈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과 아세아의 수천수억만 인민들에게 저지른 살인략탈만행을 《영광스러운》것으로 찬양하면서 해외팽창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으며 남조선과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자기의 경제력을 패망전의 수배로 팽창시켰으나 오늘 안정된 시장과 원료원천지를 가지지 못하고 커다란 모순에 봉착하고있다. 국내시장은 생산력의 장성에 비하여 더욱더 좁아지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국내에서 의식적으로 이른바 《유효수요》를 자극하고 설비투자경쟁을 일으켜 시장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그것도 허사로 되고있다. 일본공업은 원료의 지반이 매우 미약하며 특히 철광, 원유, 석탄, 유색금속, 목재 등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으며 그 수요량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최근년간 독점자본의 집중과 합영을 기둥으로 하여 중화학공업발전을 다그침에 따라 원료확보와 생산물실현을 더욱며 해외시장과 대외무역에 의

존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이 공업생산력을 높이고 생산을 강화할수록 과잉생산위기는 유령처럼 뒤따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경제의 이러한 모순을 미제와 적극 결탁하고 그를 등에 업고 해외침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있으며 《군사력의 증강과 확대되는 일본경제의 재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1970년대의 일본의 중심과업》이라고 떠벌이면서 공공연히 침략적야욕을 드러내놓고있다.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도당은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담당하여야 한다고까지 떠벌이면서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가장 충실한 《돌격대》로서 아세아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탄압하는 《헌병》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군사적수단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저들의 검은 배속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특히 미일 《공동성명》에서 사또도당이 남조선이 《일본자체의 안전에 불가결한것》이며 대만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남부웰남도 일본의 《안전》에 관계되며 《극동 여러나라의 안전은 일본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떠들어댄것은 일본전토를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완전한 침략전쟁기지로 내여맡기고 미제의 각개격파전술에 따라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며 그 《돌격대》로 나서겠다는것을 공언한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심지어 저들의 이른바 《방위선》이 아라스카이남으로부터 남조선, 대만을 거쳐 마라카해협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하는 아세아전역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제와 협력하여 《새 질서를 창조》하여야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놈들의 이 오만무례한 폭언은 지난날 아세아인민들을 중세기적인 노예로 만들려던 《대동아신질서》를 되살려보자는것이며 아세아와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저들을 《맹주》로 하는 세력권을 회복하려는것이다.

놈들은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며 《해외에서 군사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일본의 정규무력인 《자위대》를 증강하고 그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발광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한이 만료된 침략적군사동맹인 미일 《안보조약》을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일본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짓밟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개악된 새 조약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공동방위》라는 구실밑에 미제의 새로운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게 되였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공모와 결탁, 저들의 《공동작전체제》는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면서 미제의 침략책동에 가담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0페지)

미제의 직접적인 비호와 조종하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첫째가는 침략대상으로 삼고 정치, 경제, 사상문화, 군사의 모든면에 걸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침략적공모결탁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조선을 침략하고 이를 교두보로 하여 전 아세아를 침략하였던 지난날의 일제의 흉악한 침략정책의 직접적인 재현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식민지체제를 수습하는데서 일본군국주의를 중요한 공

모자로 끌어들이고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밑에 《한일조약》이 조작되였고 사또도당과 박정희괴뢰도당간의 결탁이 촉진되여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치적침투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에서 《한일협정》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일환으로 조작된 범죄적인 《한일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의 정치군사적결탁이 《합법화》되였고 사실상 《미일한삼각군사동맹》이 형성되였으며 일본의 정규무력인 《자위대》의 남조선출병책동과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가 공공연히 감행되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치적침략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해보려는 미제의 침략적목적에 복무하고있다.

《한일협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침투를 《합법화》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침략을 이룩하며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침략기구들과 이른바 《협의체》형식의 결탁기구들을 조작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 이른바 《국교를 정상화》하고 남조선에 침략의 중요정치적거점으로서 《대사관》과 《령사관》을 설치하였으며 《한일정기각료회》, 《한일국회의원간담회》, 《민간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의 수다한 침략기구들을 조작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기구들을 《한일공동운명론》의 구호하에 박정희도당을 지배하며 남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8년 제2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남조선괴뢰도당과 《한일》의 《번영》과 《안전》의 《련관성》을 떠벌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로골적으로 반대하여나섰으며 19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는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각 분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것이라고 떠들면서 남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반공》의 구호하에 《한일협력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였는데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위한 흉악한 공간으로 되고있다. 이 침략기구는 이른바 《정부급》 결탁기구들을 《민간》에까지 확대하여 일본반동들을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부문에 침투시키고있다. 그 침략적정체는 지난해 11월과 최근에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괴뢰도당과 이른바 《안전보장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세검토를 진행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지원》문제를 모의한데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의 정치적결탁과 그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강화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보호자》, 《후견자》처럼 행세하고있다. 사또도당은 미제가 조선인민의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대하여 매년 유엔총회에서 내놓고있는 흉악한 침략적 《결의안》의 《발기국》으로 앞장나서고있다.

뿐만아니라 사또도당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각방으로 직접 지원하는 한편 오늘 엄중한 경제적위기에 직면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구출》하기 위하여 대외채무상환을 일시 연장시킬것을 《채권국가》들에 제창하기까지 하고있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여달리며 아부굴종하는것을 서슴지 않고있다. 놈들은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앞에 엎드려 《금후 불안한 아세

아정세에서 일본에 의거할수밖에 없다.》고 애걸하는데 이르렀다. 이것은 상전과 노예간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정체와 그 비굴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남조선을 다시 삼키기 위한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적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친선》, 《문화교류》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함으로써 온 남조선땅을 썩어빠진 양키식문화와 함께 왜색왜풍으로 뒤덮게 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저들의 추악한 사상문화적독소를 류포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일본숭배사상을 고취시키려 하고있다. 이렇게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는 놈들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침투를 본격화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 대한 침투를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을 상품판매시장으로, 원료원천지로 전락시킬뿐만아니라 정치군사적침투의 경제적기초를 마련하려 하고있다. 일본독점체들은 《경제협력》이란 간판밑에 남조선에 물밀듯이 침투하여 남조선경제를 지배하고있으며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침략적인 《한일협정》에 따라 이미 1969년 10월말까지 남조선괴뢰들에게 《무상》, 《유상》, 《상업차관》 등의 명목으로 6억 534만딸라를 투자하였다.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바로 《한일협정》의 《청구권》자금을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미끼로, 주요공간으로 삼았던것이다. 일본독점체들은 이른바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조선에 낡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설비를 을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팔아넘기고 남조선기업의 설치, 운영, 기술, 원료 등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있으며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에서 특징적인것은 종래의 상품수출단계로부터 민간자본의 직접투자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침투체계를 단일화하며 그 대상을 주로 괴뢰도당의 새전쟁 준비와 경제의 군사화와 관련된 기간공업부문에 집중시키고있는것이다.

이리하여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일본독점자본에게 예속되여가고있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완전한 부속물로 전변되고있다. 일본출판물까지도 오늘 남조선공업이 일본독점체들의 《분공장》적성격으로 점차 전환되여가고있다고 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일본독점체들은 일본에 비하여 5분의 1도 안되는 남조선의 눅은 로동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는데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면 일본독점체들의 남조선에서의 투자리윤은 90%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흡혈귀 일본독점체들이 오늘 남조선침투에 혈안이 되고있는 그 리유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다른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역을 통해서도 남조선경제를 지배하며 남조선을 저들의 잉여상품시장으로, 원료원천지로 만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광물원료, 농수산물을 헐값으로 가져가고 낡은 기계설비, 반제품 및 일용품을 비싼값으로 팔아넘기고있다. 결과 지금 남조선시장에서는 일본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시장은 더욱더 일본경제의 부속물로 되여가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독점체들의 채무노예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출판물은 《남조선이 이미 《일본의 경제권에 편입되고있다》고 쓰고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남조선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있

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새로운 침략전쟁에 가담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와 놈들과 박정희괴뢰도당간의 군사적결탁은 이미 1962년 8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간에 이루어진 《한일군사협조안》에 근거하여 촉진되어왔다. 그리하여 오늘은 《미일한공동작전체제》내에서 일본 《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의 작전분담을 현지에서 《검토확인》하고 그를 《보충완비》하는 등 놈들의 공동군사행동을 위한 실무적결탁을 하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특히 미제의 조종하에 체결된 《한일조약》은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의 길을 전면적으로 열어놓았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간의 군사적결탁을 《합법화》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간에 《삼각군사동맹》이 사실상 형성되게 되였으며 일본 《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은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군에게 각종 신형장비들을 대량 공급하여주고있으며 그 수리를 도맡아하고있다.

한편 일본군국주의두목들은 《미일한공동작전체제》내에서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간의 공동작전행동을 실현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꼬리를 물고 기여들고있다. 놈들은 각종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괴뢰군장비와 시설, 심지어 군사분계선에 대한 《시찰》을 진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놈들은 이미 미제가 조선에서 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할 경우 그에 가담하며 이것을 계기로 전쟁을 아세아대륙에까지 확대하려는 구체적계획까지 다 짜놓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아세아침략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조선과 다른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계획까지 짜놓고있으며 그밖의 다른 지역들에 공공연히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공급기지로 또한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9~70페지)

이미 널리 폭로된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등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짜놓고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조선을 작전지역으로 가상한 각종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남조선강점 《미군감축》설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것을 기화로 남조선에 더욱 깊이 전면적으로 기어들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사또도당은 이른바 《미군감축》으로 남조선에서 종래에 미제가 해온 역할을 저들이 대신하게 될것이라느니, 《일본이 자체로 한국을 〈방위〉하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을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다.

해외팽창에 열이 오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다》고 도발적인 폭언을 하였으며 지어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제공격》도 생각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이 모든것은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조선인민과 전체 아세아인민의 공동의 흉악한 원쑤이며 아세아에서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조성시키고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장본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 *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남조선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2중적식민지로 될 엄중한 위험에 처하여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더욱 큰 불행과 재난이 들씌워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흉계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놈들의 재침책동을 반대분쇄하는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이골이 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편승하여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와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어제날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있으며 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그 저주로운 침략의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편에는 전세계의 수억만의 혁명적인민이 서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만약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무모하게도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제놈들이 일으킨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10호 (루계 34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9월 25일 발 행 • 1970년 10월 1일

ㄱ—03530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 (344)

차 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 일 성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폭풍같은 환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소리 장내를 뒤흔드는 가운데 김일성동지께서 등단하시였다.)

동지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펼쳐준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9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들이 일어난 보람있는 시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대표자회와 전원회의들을 열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았으며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우렁찬 박수)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

을 높였으며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어떠한 모진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확신과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루어놓은 위대한 업적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박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다른 나라의 친근한 벗들이 이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있으며 대회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 대회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이며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을 새로운 더 큰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1. 위대한 총화

동지들!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승리를 총화하고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당대회가 내놓은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으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면서 웅대한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해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는 커다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전체 인민을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특히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하게 하는 한편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일부 조절하면서라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인 큰 힘을 돌려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가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은 1966년 10월에 력사적인 대표자회를 열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원쑤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로선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7개년계획수행을 3년동안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의 사태발전은 당이 취한 이 조치가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맞으며 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대담하고 능동적이며 매우 현명한 조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내놓은 새로운 혁명로선을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두 전선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7개년계획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고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온 나라를 튼튼한 보루로 다져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1.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동지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공업화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였으며 7개년계획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5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가 닦아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된데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옳바른 방침에 따라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은 매우 빨리 발전하여 그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박수)

공업부문에서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올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높아지게 되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13.3배, 소비재생산은 9.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1957~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 걸쳐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늘 우리 공업은 해방전 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12일동안에 생산하고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전반적공업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지마는 그가운데서도 중공업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먼저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공업기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방침이 관철된 결과 총결기간에 우리의 중공업은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으로 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중공업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인민경제의 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인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이 창설된것입니다.

당이 7개년계획기간에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은 결과 해방전에는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6,000톤프레스와 중량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5,000톤급 대형선박을 비롯한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으며 개별적기계설비들뿐아니라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7개년계획기간에만 하여도 우리의 기계공업은 발전소설비, 야금공장설비, 화학공장설비와 같은 100여개의 현대적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하였습니다.

공업의 빠른 발전과 전면적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동력기지도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큰 수력발전소들과 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우리 나라 총발전능력은 훨씬 늘어났으며 수력에만 치우쳐있던 전력공업의 일면성은 없어지고 나라의 동력기지는 질적으로 강화되였습니다.

흑색야금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였습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이미 있던 철생산기지들이 확장되고 서부지구에 새로운 제철소가 건설되여 선철과 립철 생산능력이 높아지고 제철공업의 자립성이 강화되였으며 강철생산과 특히 압연강재생산이 빨리 발전하고 일련의 2차금속가공제품 생산부문들이 새로 창설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흑색금속공업은 선철생산으로부터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이 완비된 강력한 공업부문으로 발전되였으며 인민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금속자재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화학공업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공업화기간에 화학비료생산기지가 강화되고 새로운 농약생산부문과 비날론을 비롯한 합성섬유와 합성수지 생산부문들이 창설되여 우리 나라에는 무기화학공업과 함께 강력한 유기화학공업기지들이 마련됨으로써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습니다.

석탄공업과 광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중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올해에 우리의 중공업은 165억키로와트시의 전력, 2,750만톤의 석탄, 22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화학비료, 4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자립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인민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로서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그리고 국방력강화에서 큰 힘을 나타

내고있습니다. (박수)

경공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7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현대적중앙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중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한해동안에 4억메터이상의 질좋은 천을 생산할수 있는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경공업생산부문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옷감으로부터 문화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경공업기지가 창설되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 생산에서 공업은 더욱더 결정적역할을 놀게 되였습니다.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몫은 1956년에 34%이던것이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공업의 몫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인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인구 한사람당 전력은 1,184키로와트시, 석탄은 1,975키로그람, 강철은 158키로그람, 화학비료는 108키로그람, 세멘트는 287키로그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우리 나라가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앞서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위력한 자체의 중공업기지에 의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이 발전되는데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기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였습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기술개건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당은 제4차대회가 내놓은 방침과 특히 1964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놓은 길을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이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총결기간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리화를 완성한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이미 마련한 관개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관개공사를 계속 널리 진행하여 논관개를 완전히 끝냈으며 밭관개까지 적지 않게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몇해동안에 고이는물뽑기공사에 커다란 국가적힘이 돌려져 우리 나라의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강하천정리사업과 해안방조제공사, 식수조림사업이 널리 진행되여 논밭과 농작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총결기간에 우리 나라에는 어떤 가물이 드나 장마가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정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기계화를 농촌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총결기간에 농촌기계화의 거점인 농기계작업소들이 많이 늘어나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에 농기계작업소가 다 설치되였으며 농촌에 현대적농기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961～1969년사이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3.3배, 화물자동차대수는 6.4배로 늘어났으며 여러가지 새로운 농기계들이 창안제작되여 더 많은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농촌전기화의 과업도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리와 농가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널리 벌어진 결과 오늘에 와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리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모든 농가에서 다 전기불을 보게 되였습니다. 농촌에서 전기는 농민들의 가정생활에서뿐아니라 농업생산에서 기계동력과 열원으로 널리 쓰이고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한해동안에 쓰는 전력은 10억키로와트시에 이르고있으며 그 대부분이 생산용으로 쓰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량에 비추어볼 때 농촌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농촌전기화분야에서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에 비하여 지난해에 논밭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3.2배로 늘어났으며 그 질적구성도 훨씬 개선되였습니다. 또한 농약살포량이 늘어나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으며 효능이 높은 살초제들이 농촌에 적지 않게 공급되였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몇해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례년에 보기 드문 심한 자연재해가 계속되여 농업생산에서 일정한 굴곡은 있었으나 우리는 해마다 높은 수확을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나라에서 이제는 식량문제가 완전히 풀렸으며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들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알곡생산토대가 닦아졌습니다.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닦아져 우리 나라의 축산업은 현대적기술에 토대하여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몇해동안 가금업발전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 해마다 7억개이상의 닭알과 많은 닭고기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철도전기화의 실현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7개년계획기간에 850키로메터 구간의 철도가 새로 전기화되여 중요간선

들에서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박수)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당의 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뚫고나가야 할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받은것은 보잘것없는 식민지공업이였으며 그것마저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전후 3개년계획기간에 전쟁에서 파괴된 인민경제의 복구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나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중공업의 토대는 매우 약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금도 적었고 원료와 자재도 모자랐으며 기술력량도 적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혁명의 대내외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긴장한 정세에서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관철하여나아갔으며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옳게 령도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속도로 달리자!》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당의 공업화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의 정확한 공업화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업

생산물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업화가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공업국가로 전변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결과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2. 문화혁명에서 이룩한 성과

동지들!

문화혁명은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특히 7개년계획기간에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은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앞세웠으며 젊은 세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인민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이미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한데 기초하여 1967년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하여 8살부터 17살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기술의무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9년제기술의무교육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당의 옳바른 교육방침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혜택으로 오늘 우리 나라의 새세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

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능력있는 새 사회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은 새 세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많이 나감으로써 지식있는 로력자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 이것은 우리 당 교육정책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나라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으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현실은 더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이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결기간 대학은 78개로부터 129개로 늘어나고 고등기술학교는 376개나 새로 나왔으며 여기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고있습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1960년에 비하여 4.3배나 더 많은 49만 7,0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매 군에 한개이상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요한 공업지구들에는 공장고등기술학교와 공장대학이 있으며 도마다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 공산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방들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기술인재들과 당 및 국가행정 일군들을 훌륭히 길러내고있습니다.

지방에서 간부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게 됨으로써 지난날 간부원천을 중앙에만 의존하던 제약성이 없어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 지방에 맡겨진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보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진것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지역의 문화수준을 고르롭게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도와 군 소재지를 비롯하여 모든 지방에 널리 분포되여있는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들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 지방들에 현대적기술문명을 보급하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기술인재들과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몇몇 사람들만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건설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무장시켜야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기술인재양성사업과 함께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성인교육사업이 강화되고 방송선전사업과 출판물보급사업이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은 훨씬 높아졌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박수)

총결기간 과학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여러가지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당의 문예정책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없어지고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 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문화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은 극복되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3.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화

동지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였습니다.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면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것은 혁명의 근본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방법입니다. 당은 우리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통일과 단결을 무시하고 계급투쟁만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믿지 않고 함부로 배척하려는 좌경적편향과 적대적요소와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소홀히 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만을 절대화하려는 우경적편향을 다같이 경계하면서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것은 혁명대오를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입니다. 우리 당은 계급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들을 제때에 짓부시고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지난 기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난 우경투항주의사상조류에 발맞추어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마치도 계급투쟁이 없어지며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듯이 주장하여나섰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정주의적사상독소들에 대하여 제때에 강한 타격을 주었으며 그것을 사상적으로 완전히 극복하였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여 반혁명과의 투쟁에 적극 인입하며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습니다. 당의 옳바른 지도밑에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는 계급적원쑤들의 음모책동을 제때에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켰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총결기간 우리 당은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시기에는 착취계급을 완전히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선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그들을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어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려면 사상성과 문화성, 조직성을 높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더욱더 혁명적으로 단련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청소한 로동계급이며 그 발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날 수적으로 그리 많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대렬은 해방후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짧은 기간에 갑

자기 많이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혁명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어제날의 농민, 소상인, 수공업자들과 새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로동계급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당은 로동계급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이고 생산투쟁속에서 그들을 꾸준히 단련하도록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선봉적역할과 근로자들속에서 그들의 혁명적작용이 강화되였으며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은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 본래의 고농은 적고 우리 농민은 주로 지난날의 빈농과 중농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따라서 그들속에는 소소유자적근성과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뿌리깊이 박혀있습니다. 농민들은 로동계급보다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을뿐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들의 사상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나 선진적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의연히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낳게 하는 주되는 조건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사상혁명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습니다.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공동로동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더욱 배양되였습니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도 로동계급에 많이 접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정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새로운 인테리들을 키워내는것과 함께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들의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입니다. 원래 인테리는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착취계급에게 복무할수 있을뿐아니라 로동계급에게도 복무할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거의다 부유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인테리로서 일제의 민족적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대부분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우리 당

온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을 적극 개조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꾸준히 교양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단계에 와서 오랜 인테리들이 누구에게 복무할것인가 하는 이중성문제는 해결되였으며 그들앞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이 일정에 오른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와서 누구보다도 낡은 사상 잔재를 많이 가지고있고 단련될 기회가 적은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그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당의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인테리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고 그들속에 남아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도 성과적으로 극복되였으며 모든 인테리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되였습니다.(박수) 우리의 경험은 오랜 인테리들을 리용할뿐아니라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 사상,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자신을 개조하는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 당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원칙에서 각계각층의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대중의 자각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훌륭히 수행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고리를 대중의 자각적인 발동에서 찾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교양과 개별교양을 옳게 결합시키고 긍정적모범으로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입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

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입니다.(박수)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과 함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온갖 기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미풍이 꽃피게 되였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나가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4.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

동지들!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갈라진 조건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국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총결기간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격화되고 정세가 더욱 긴장되는데 따라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당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정치도덕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인민군장병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꾸준

히 진행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군대안에서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고 군사기술적사업에만 매여달리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군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지금 인민군장병들의 사기는 높으며 그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높은 정치적열의와 견결한 혁명정신, 장병들사이의 형제적단결과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와 같은 전통적미풍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지배하고있습니다.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총결기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한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또한 우리는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들까지도 다 요새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경제체계가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국방공업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보총이나 몇자루 생산하는 보잘것없는 군수공업이 있었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여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였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의 인민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하였을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것입니다. 그러나 정세는 이렇게 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안락을 위하여 혁명의 근본리익을 저버릴수 없었으며 다시는 망국노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바로 그랬기때문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으며 적들로 하여금 감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게 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1968년에 있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지난해에 있은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때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였습니다. 미제날강도들은 우리 나라의 문턱까지 숱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고있었습니다. 사태는 참말로 엄중하였으며 온 세계가 정세발전을 주시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립장을 취할수 있었으며 결국 침략자들로 하여금 우리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물론 지금도 적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매일과 같이 미쳐날뛰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경제가 있고 불패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고 요새화된 강토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5.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전면적확립

동지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나라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촉진된 새 환경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새롭게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에 따라 선진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나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이에 맞게 미처 개편되지 못하였으며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력사적환경이 제기하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는 빨리 밀고나갈수 없었습니다.

새 환경이 제기하는 이러한 요구들은 오직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만 해결될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세우고 완성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입니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낡은 전통과 질서에 깊은 뿌리를 박고있는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사업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실천이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인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서 1960년 2월에 있은 청산리지도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의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

에 구현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청산리지도가 있은 다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 잘 관철할수 있도록 공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낡은 기업관리방법인 지배인유일관리제를 없애고 당위원회를 매개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업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체계를 내왔습니다. 그리하여 당위원회가 매 시기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통제하는것과 같은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하면서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규모가 큰 현대적인 사회주의경리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생산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창발성과 적극성을 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성, 국들을 비롯한 웃기관일군들과 기업소관리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설비, 자재를 비롯하여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우가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지도에서 명령과 호령의 방법, 관료주의적방법은 점차 밀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은 또한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를 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전에 계획화사업과 기술지도와 생산지도가 분리된데로부터 생산에 대한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수 없었던 불합리성은 없어지고 생산지도와 기술지도가 밀접히 결부되여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특히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참말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낡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서 웃사람과 아래사람, 생산자들사이에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단결하며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원칙을 많이 체현한 기업관리형태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당은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하여 새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왔으며 거기에 농업기술자들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리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협동농장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능과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실현하는 기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조직하는것과 함께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옴으로써 우리는 지난날과 같이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으로 농촌경리를 지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박수) 그 결과 농촌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고 모든 경영활동을 더욱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설됨으로써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련계를 더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생산발전에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는 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관리체계를 개편한 다음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화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당은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지구계획위원회들과 시(구역), 군 국가계획부와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를 내왔으며 성, 중앙급 기관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계획부서들로 하여금 계획화사업에서 해당기관에 복종하는것과 함께 국가계획위원회에도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하는 계획의 일원화체계가 서게 되였습니다.

새로운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를 잘 아는 계획기관일군들이 지방과 기업소에서 직접 계획화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정책과 국가의 방침이 계획화의 모든 단위들에 제때에 들어가 똑바로 관철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본위주의와 기관본위주의를 없애고 성, 관리국, 도급 기관들의 계획과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을 모두 전국적인 전략계획에 철저히 복종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동원적이며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였습니다.(박수) 또한 새로운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계획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널리 불러일으키고 생산현장의 구체적현실을 똑똑히 료해하면서 계획화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계획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원만히 보장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새로 실시된 계획의 세부화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가장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들이 직접 전반적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

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지방 및 기업소들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릴 수 있게 합니다. 계획의 세부화를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여 나라의 경제를 아무런 혼란도 없이 높은 속도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맞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는 좌경적인 편향과 정치도덕적자극을 홀시하고 물질적관심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지도에서 지방분권화와 기업의 자유화 방향으로 나가려는 우경적견해를 완전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동지들! 우리는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내놓은 로선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되여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찬란히 꽃피고있으며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날로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의 혁명력량은 불패의것으로 되였으며 우리는 더욱 공고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멀리 달려나아갔으며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커다란 힘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나는 당대회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2.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지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문화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개화발전시키며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1.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

동지들!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립적체계가 선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여놓았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아직도 경제건설분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공업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무엇보다먼저 공업부문들에서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시되여 우리의 공업은 부문구조가 잘 조화되고 새 기술로 장비되였을뿐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자원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으로

되였으며 그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 공업은 아직 부분적으로 완비되지 못하고 작고 부차적인 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자기 위력을 다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몇가지 원료를 아직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공업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살을 붙이는 일을 계속하여 약한 부문들은 보강하고 없는 부문들은 갖추어 공업을 빨리 완비하는 한편 우리 나라 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 이상을 자체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나라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하겠습니다.

철광석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흑색야금공업의 발전전망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아직 콕스탄을 찾아내지 못하여 우리는 지금 형제나라들과의 경제적교류에 의하여 제철공업의 콕스탄수요를 해결하고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그러나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빨리 늘어나는 철생산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콕스탄을 다른 나라에서 다 사들여올수는 없습니다.

제철공업에서 될수록 콕스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립철과 조강 생산을 늘이고 해면철과 환원구단광 생산을 빨리 공업화하도록 하며 전기제철에 대한 연구사업도 계속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높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훨씬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발전과 기술혁명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흑색금속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파묻혀있는 유색금속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도록 유색야금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경금속을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의 발전은 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미 마련된 화학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화학비료생산을 더욱 높이며 여러가지 살초제와 살충제들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지금 있는 화학섬유생산기지와 합성수지생산기지를 확대하는 한편 6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큰 힘을 넣어 경공업에 요구되는 섬유의 70%이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합성수지생산도 빨리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합성고무생산기지를 빨리 꾸려 고무에 대한 수요를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경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화학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대자연개조사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보다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야금공업과 세멘트공업, 화학공업에 요구되는 대형설비들, 대형 타빈과 발전기, 대형보이라를 비롯한 대용량동력설비들, 채취공업과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25톤중량자동차, 300마력불도젤, 대형굴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형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과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선박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5,000톤짜리 랭장운반선과 화물선을 비롯한 대형선박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만톤급이상의 가공모선과 화물선까지 자체로 생산하도록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시되는데 따라 기계공업부문앞에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여러가지 자동화요소와 기구, 계기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며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희유금속과 순금속 소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할것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능설비들을 많이 생산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단능설비공장들을 많이 꾸려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단능기계들의 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작기계생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작기계생산량을 빨리 늘이며 특히 특수공작기계들과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 대형공작기계, 능률적인 단능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는것은 나라의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서뿐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마그네샤크링카생산기지들을 확대하며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면서 그와 병행하여 중소규모의 지방세멘트공장

들을 새로 많이 꾸려 마그네샤크링카와 세멘트 생산량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일용품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일용품은 가지수가 많지 못하며 그 질도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용품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특히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일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입니다.

무엇보다먼저 밭관개를 널리하여 2모작면적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밭관개를 하면 논농사뿐아니라 밭농사에서까지 영원히 흉년을 모르게 될것이며 밭곡식의 정당수확을 훨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미 마련하여놓은 관개시설물을 잘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2모작을 할수 있는 곳을 위주로 하여 3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관개체계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경지면적 1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1톤이상에 이르게 하고 화학비료의 질적구성을 더욱 개선하며 우리 나라 토양과 작물의 특성에 맞는 미량원소비료도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할것입니다. 화학비료시비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들을 널리 리용하여 농작물을 온갖 병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도록 할것입니다.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 커다란 예비는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육종사업과 채종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수확이 높은 우량종자들을 빨리 길러내여 모든 작물들의 품종들을 새로운 우량품종들로 갱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도 널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자연지리적조건이 좋으며 비교적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 좋은 농경지를 새로 많이 얻어내도록 할것입니다.

공업과 농업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과 함께 생산된 농산물과 공업제품이 랑비되고 손실되는 현상을 없애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남새는 매우 많으며 물고기도 해마다 몇십만톤씩 잡고있으나 저장대책을 따라세우지 못하고 가공사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지 못하여 많은 과일과 남새, 물고기를 썩여비리고있습니다. 또한 제품포장을 되는대로 하여 귀중한 농산물과 공업제품을 못쓰게 만드는 현상도 적지 않습니다.

농산물과 공업제품들의 저장과 가공 그리고 상품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이러한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지들에 집군중적운동으로 과일창고들을 지어 과일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하며 이르는곳마다에 과일과 남새, 물고기 가공공장들을 많이 꾸려 과일과 남새,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공업적방법으로 제때에 가공하도록 할것입니다. 크라프트지, 판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포장재를 많이 생산하여 공업제품과 농산물들의 포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통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가 하나밖에 없으며 이것이 철도의 긴장성을 가져오게 하는 주되는 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이천—세포사이의 철도건설을 다그쳐 동서해안을 련결하는 새로운 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하는 한편 북부내륙지대의 동서부를 련결하는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새 철도 건설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구배가 심하고 물동량이 많은 동부와 내륙 지대의 일부 긴장한 철도지선들을 계속 전기화하고 전기화하지 않을 구간들을 내연화하며 렬차의 견인중량과 운행속도를 높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더욱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빨리 늘어나는 무역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상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배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해 및 강하천 운수망을 더 늘이고 철도와 수상 운수의 련대수송을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대외무역수송을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자동차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자동차수송도 더욱 발전시킬것입니다.

동지들!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또한 기술혁명은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어렵고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으나 우리 나라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사이에도 차이가 많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아직 가정적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무엇보다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광산과 유연탄광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도록 하며 우리 나라 석탄생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낮은 무연탄광들의 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림업부문에서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수산부문에서 선박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과 함께 아직도 중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부문의 하나는 기본건설부문입니다.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여 건설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중로동을 없애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는것입니다. 역, 부두, 건설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아직도 다 기계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로동을 하고있을뿐아니라 작업의 신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있으며 이것은 수송수단들의 리용률을 더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여러가지 능률적인 상하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짐을 싣고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흑색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부문들에서 고열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하여야 합니다. 고열이 특별히 심한 부문부터 먼저 시작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화학공업, 유색야금공업, 채굴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서는 아직도 생산과정에 나오는 가스와 먼지 그밖의 유독성물질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일정한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산부문들에서의 기술적개조를 다그쳐 하루빨리 유해로동을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공업부문들과 작업장들에서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며 고열, 가스, 먼지, 습기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며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를 특히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먼저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들과 벼직파를 하는 논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점차 그 성과를 확대하여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현시기 농촌경리의 전면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은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뜨락또르와 자동차 그리고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있으면서도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빨리 전진시키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은 토지정리가 잘되여있지 않는데 있습니다.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포전들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비탈진 밭들을 다락밭으로 만들어 논밭에 기계가 들어가서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에서 기계의 힘만으로는 사람의 로동을 다 대신할수 없으며 따라서 기계로 할수 없는 농사일은 화학의 힘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를 널리 리용하여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인 김매는 일을 화학적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정보마다 투하되는 로력을 평균 논에서는 60∼80공수, 밭에서는 20∼30공수로 낮추어 한 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루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협동농장들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에서와 같이 점차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며 로동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훨씬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박수)

우리 당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할수 있는 조건을 더 잘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습니다. 당의 커다란 배려속에서 오늘 우리 녀성들은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도 많은 시간을 가정일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인 로력적부담을 걸머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을 가정일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수 있게 하여야 하

겠습니다.

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혁명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비능률적인 로동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낼수 있게 될것이며 그들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여질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2. 사회주의문화건설

동지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반동문화를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온갖 반동적문화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저들의 반동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방송,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없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지 않으며 문화건설분야에서 반동적부르죠아요소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민족문화는 점차 갉아먹히며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고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며 나아가서는 혁명과 건설사업이 엄중한 난관과 위기에 부닥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려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문화건설분야에서 조그마한 부르죠아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맑스주의적사상조류입니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것을 덮어놓고 그대로 옮겨놓으며 미화분식하는 경향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섰으며 경제의 규모도 비할바없이 커졌습니다.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내지 않고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인민경제를 제대로 움직일수 없으며 우리앞에 나선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새 전망계획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로력구성에서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를 나온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10%이상에 이르도록 하며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이미 있는 대학들과 고등기술학교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그 양성규모를 늘이며 기술인재에 대한 인민경제부문별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중앙과 도들에 대학들을 새로 더 내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야간 및 통신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인테리대군을 길러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새세대들이 모두 다 기술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조건에서 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학교들의 물질적토대를 더 튼튼히 닦고 교원대렬을 잘 꾸리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늘 공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는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혁명과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의 하나이며 공산주의적교육방법입니다.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따라서 어린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은 그들의 장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이 싹트게 되며 조직적인 생활기풍에 물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자라난 다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도 더 잘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높이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 특히 새로운 기술혁명의 과업은 과학연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도 적극 개척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 있게 론증하여야 할것입니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깊은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이와 함께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혁명적정열로 끓는 오늘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생동하게 그리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잘 형상하여야 할것입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의 전진운동을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박수)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어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 깃들어있는 우리 말은 오늘 남조선에서 엄중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우리 말은 그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잡탕말로 변하여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건장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에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인 문화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3.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동지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 그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결기간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였을따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떠난 공산주의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계급교양을 떠난 공산주의교양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속에서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이며 전체 인민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억세게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사람들을 집단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로동을 즐기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로동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입니다.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 건설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경험은 공산주의교양이 혁명전통교양과 결부될 때 그것은 생동한 감화력을 가지며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절실합니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투쟁경험과 공산주의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박수)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알게 하며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실천과 떨어져있는 인테리들은 늘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책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찾아낼뿐아니라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전투성,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속에서 혁

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실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것,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모든 조직들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여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비판에 대한 그릇된 태도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비판에서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 하여서는 안되며 비판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여서도 안되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비판받은 사람들을 덮어놓고 처벌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비판사업을 깜빠니야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원칙적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혁명적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두가 다 비판속에서 단련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현상들과 제때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교양개조되고 혁명화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국가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사회

주의건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등록실사하고 보관관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재산을 리용처리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경제관리운영에서 낡은 사상이 발붙일 조그마한 틈도 없도록 정연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세워야 할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도덕 규범들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운동으로 새로운 도덕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며 점차 공산주의적도덕규범들을 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당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특히 지도일군들이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여야 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단합되고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정열로 들끓도록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4. 국방력강화

동지들!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고 긴장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한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미일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로서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이 이미 내놓은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견지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손에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손에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면서 적들이 일단 덤벼들 때에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도록 언제나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다 무장하고 전체 인민이 다 적을 미워하며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에는 어떠한 원쑤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의 인민군대는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 직면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격멸할수 있도록 언제나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완성하며 그에 따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과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면 비록 최신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나라에서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여주며 오늘 웰남전쟁의 경험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민군대를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법과 다른 나라의 무기와 군사기술기재들을 기계적으로 본따며 하거나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며 한다면 국방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끼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충분히 참작한 당의 군사전략사상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부족점들을 보충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며 우점들을 더욱 살리는 방향에서 전법을 완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군대의 무기와 군사기술기재들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수준에 따라 군사장비를 현대화하여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의 전투훈련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에 정통하며 우리의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작은 나라이며 갓 발전된 나라입니다. 내놓고 말하여 우리는 군

사기술장비면에서 발전된 나라들과 경쟁을 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비록 군사기술적우세를 가지고있지마는 그대신 우리 인민군대는 그들에 비하여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사이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군사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와 같은 고상한 기풍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특성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바로 자기의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능히 싸워이길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선과 후방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의 국방력은 말 그대로 방위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위협하려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침략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위협과 침략, 이것은 우리 당의 정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평화를 주장하며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평화를 고수하려는 우리의 지향과 념원 그리고 참을성있는 노력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누구를 먼저 다치려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탕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공격이라도 결정적으로 때려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것이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5. 인민생활의 균형적발전

동지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계속 끊임없는 배려를 돌릴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놓았으며 우리가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은 매우 큽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다 인민생활에 돌린다면 우리 인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수 있으며 남보다 못하지 않게 잘살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혁명하는 도상에 있습니다. 미제가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아직 이룩하지 못한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수 없으며 혁명하는 시대의 사람들답게 언제나 검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축적하여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물론 총결기간 우리 당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의 면모를 개변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였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많은일을 하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이 너무나 뒤떨어져있었기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시보다 뒤떨어져있으며 우리 농민들이 원래 너무 어렵게 살았기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아직 로동자들의 생활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하루빨리 농촌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군은 직접 농촌을 지도하며 농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발전과 농민생활의 향상은 군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먼저 농촌에 대한 공

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들에 랭동공장과 과일, 남새 가공공장, 고기가공공장들을 꾸리고 이동식가공설비들도 많이 마련하여 농민들이 생산하는 고기와 과일, 남새를 비롯한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의 공급기지를 잘 꾸리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가공된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을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이 농산물수매사업과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잘하면 농민들의 수입은 더 빨리 늘어날것이며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이 필요한 상품을 마음대로 살수 있을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도록 하는것입니다.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게 되면 농촌근로자들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될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는 더욱 밀접하여질것이며 이것은 농촌의 락후성을 빨리 없애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몇해 동안에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길들을 잘 닦고 아직 뻐스가 들어가지 못한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수도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는 군소재지들은 물론 모든 농촌부락들에까지 수도를 놓아 농촌녀성들이 물을 이고다니는 현상을 없애며 모든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하여 살림집을 계속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도시에서 10만세대, 농촌에서 15만~20만세대씩의 살림집을 짓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벌려 지금 모자라는 살림집과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르는 살림집수요를 해결하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살림집들을 알뜰하고 쓸모있고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응당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중앙난방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더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특히 낮은 로임을 받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훨씬 올리며 일용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모든 소비품의 값을 대폭 낮추며 인민들이 많이 쓰는 대중소비품의 값은 50%이상 낮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들을 증설하고 의료일군들을 늘이며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할것입니다. 특히 군병원들을 잘 꾸리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강화하며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며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3.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동지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총결기간에 남조선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으며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적극화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기간 남조선정세발전에서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이며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으며 그들의 비호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입니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정의의 투쟁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려왔습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전후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어려운 시련속에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왔습니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내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에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였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선거》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와 협잡속에서도 진보당이 내세운《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이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표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절실히 념원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빨리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려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후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1960년 4월에 있은 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놓았습니다.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남조선전역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는 결국 무너지고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습니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짓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4.19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리롭게 전변되였습니다.

4월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지도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렸습니다. 이 당은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의 통일전선적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뭇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진출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부시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군사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력량에 대한 파쑈적인 공격을 감행하여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말았습니다.

5.16 《군사정변》이 있은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 기관들을 페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폭압

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이행이란 있을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우렁찬 박수)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의 력대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인사들이 정권에 들어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으로써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로를 감행하는것은 원쑤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직후에도 려운형선생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선생 역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 참가한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순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력량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쑈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우렁찬 박수)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를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건설을 다그치였습니다.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통일혁명당의 정치적립장과 투쟁목표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이 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리념이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이라는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그 무덤우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매국적《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

혁명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곳에서 당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계속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그것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

층 군중들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발전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쑤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히 리용하는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혁명적폭력은 혁명적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구경은 현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남반부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

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반부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동지들!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을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재난을 가져다주고있으며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위정자들이 파쑈적인 군사정변을 꾸며내고 정권을 가로챈 다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매국배족행위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족적립장으로 돌아설것을 바라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을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남북사이의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의사에 따라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될 때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울것을 남조선당국에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리유로 남북조선총선거를 당장 실시할수 없다면 먼저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나서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라도 실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묵살해버렸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은 오직 《승공통일》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을 말살하고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침략적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쑤들은 이런 황당한 구실을 내걸고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고 꾀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군사시설들을 확장하며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부르짖고있는 《승공통일》이란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은 허황한 망상이며 얼빠진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벌써 25년동안이나 공산주의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여왔습니다.(박수)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았으며 허물수 없는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자는것입니다.

요즘 남조선괴뢰들이 떠들어대고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실현할 아무런 방도도 없는,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모략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화통일구상》이요, 뭐요 하고 떠벌이는 목적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자주적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는데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며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애걸복걸하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자기 민족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며 월남침략전쟁에서 남조선청장년들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내몰고있는 이 매국역적들과 어떻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운운할수 있단 말입니까?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억센 투지를 꺾을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을 반드시 짓부시고야말것이며 조국을 기어코 통일하고야말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4.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변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제때에 옳게 평가하고 옳바른 대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 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이며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오늘도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리롭게, 제국주의와 반동 력량에는 불리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현국제정세의 중요특징은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면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입니다.

최근년간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야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그 처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필사적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니, 《협상》이니, 《교류》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들을 들고나오고있으며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침략정책를 가리우며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의 《평화전략》이란 곧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을 의미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름아닌 《평화》의 미명밑에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또한 《평화》의 미명밑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정치적와해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

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운동이 강화되고있으며 더욱 많은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국안에서도 대중적인것으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있으며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있습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제의 범죄적인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리며 모든 반제력량이 인도지나인민들을 비롯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직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반제력량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여야만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킬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도 바로 이 지역에 혁명하는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이 지역에서 반제혁명운동이 치렬하게 벌어지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반제적립장이 견결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 하는 한편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전쟁을 계속하고있을뿐아니라 라오스에 대한 무력간섭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저들의 침략무력과 추종국가고용병들을 동원하여 캄보쟈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은 인도지나전역에 확대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매일

과 같이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습니다.

미국의 현통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 무슨 정책변경에 대하여 많이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실시하고있는 침략정책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또 결코 달라질수도 없습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그 침략성과 교활성이 더 강화되고있는것뿐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더욱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전반적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처하여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전역에서 전쟁을 확대하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결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한결같이 일떠서 미제의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여기에서는 어떠한 동요와 소극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침략의 장본인이며 따라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없습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세아나라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워이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웠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워이겼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며 지금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습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그리하여 남조선과 대만에서, 남부웰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며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밑에 혁명하는 아세아나라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은 버텨내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아세아에서 쫓겨나고야말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

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아 지금 아세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일어났으며 세계 평화와 아세아나라들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은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비호밑에 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공모결탁하여 태평양전쟁의 불을 질렀으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으로 살쪄왔으며 결국 전쟁으로 망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인류 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는 지금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죄악의 력사는 오늘 또 되풀이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있습니다.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극히 야심적인 계획밑에 추진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습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입만 벌리면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질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년간에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일간의 반동적결탁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공모결탁은 미제가 일본을 기지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손아래 동맹자, 침략적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자기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자기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발광적인 재무장책동과 침략책동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전략의 직접적산물입니다.

일본은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국

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의 더러운 야망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제재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질수 없습니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팽창될대로 팽창되었으며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정책은 바로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실시되고있는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성을 보지 않고 그와 투쟁하지 않으며 일본반동정부를 미화하거나 그와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아세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 해외팽창을 조장하여주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해주며 전반적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국제무대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그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할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박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일본에서의 위험한 사태발전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반대하여 계속 철저히 투쟁할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에 적극 협력가담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음모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미제의 조종밑에 체결된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페기하기 위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반제혁명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날뛰고있으나 이것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짓밟혀진 아세아가 아닙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주인행세를 하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의 수억만 인민들이 힘차게 일떠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영웅적웬남인민을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세찬 불길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타오르고있으며 일본인민들의 혁명적각성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그 어떠한 제국주의세력도 아세아인민들을 정복할수 없으며 그들의 단결된 힘을 깨뜨릴수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아세아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습니다.(박수)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는 모험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아세아인민들의 위대한 혁명력량앞에서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이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혁명하는 나라들, 투쟁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것을 방해하며 혁명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싸우는 아랍인민들,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며 미제의 각을 떠야 합니다.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당면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

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운동을 반전시키고 그와의 긴밀한 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5.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총결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으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이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 한 기본요인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지난날 우리 당 활동의 내외적환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고 사상적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우리 나라에서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긴장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거의 매일과 같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벌렸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되고 외부로부터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침습해들어오게 되자 당안에 숨어있던 수정주의분자들은 양봉음위의 방법으로 당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부활시키려고 양으로 음으로 책동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여 부르죠아분자들과 수정주의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며 당의 통일을 좀먹던 온갖 경향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자들이 퍼뜨린 온갖 반동적 및 기회주의적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꽉 틀어잡았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고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전당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당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동지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총결기간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림으로써 당대렬의 통일을 실현하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이것이 또한 총결기간 우리 당 활동에서의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오래전부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추종하는 비굴한 사상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해방된 다음에도 사대주의는 의연히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강화발전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습니다. 거기에 교조주의까지 겹치다보니 그 해독은 더욱 컸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자기의 주권과 당을 가지게 된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연구하지 않고 남의것만 기계적으로 본따려 하였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때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널리 대두됨에 따라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심지어 그것을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그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렸습니다. 특히 총결기간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였습니다.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며 특히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자기의것은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현상이 없어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혁명가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없어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구현한것입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주체를 세움으로써 오늘 우리는 국제혁명위업에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 자주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열매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총결기간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전당에 간부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집권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언제나 경계할것은 당세도와 관료화되는 경향입니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틀을 차리며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하는것입니다.

당은 총결기간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그들

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안에서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발양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당은 또한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중앙은 도를 도와주고 도는 군을 도와주며 군기관일군들은 리에 늘 내려가 리일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게 하였습니다. 당은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가 방식상학과 시범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생동한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동강습의 새로운 형식을 리용하여 당사업로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현지에서 초급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지켰으며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그에 대한 당의 정책을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철저히 해석침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동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당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간부들과 핵심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도와주도록 하였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웃기관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간부들과 핵심들이 당원들과 군중을 교양하여 움직이는 사업체계가 섬으로써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을뿐아니라 당중앙위원회의 의도가 아래에 빨리 들어가게 되였으며 상하가 더욱 단결되고 기맥이 잘 통하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모든 당원들이 당사업발전을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적극 내고있으며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는 기풍이 서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안에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또 동지들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당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사업에서 거둔 매우 귀중한 성과입니다. (우렁찬 박수)

총결기간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전당에 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당의 옳바른 방침에 따라 전당에 정연한 당원교양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그 내용과 방법이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교양망이 조직되여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운영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다 거기에 망라되여 정상적으로 정치사상교양을 받고있습니다.

빨리 발전하는 현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당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매일 2시간이상씩 학습하며 토요일마다 간부들이 집체적으로 학습하는것을 제도화하였으며 강연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은 특히 모든 현직간부들을 해마다 한달씩 각급 정치학교에서 공부시키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학습은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되고있으며 완전히 생활화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이 서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과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의 통일과 단결은 더욱 의식적이고 자각적인것으로 되였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는 당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과와 경험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입니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

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간부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오늘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부들은 다 좋은 간부들이며 우리는 간부대렬을 기본적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부들의 준비정도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그들의 자질은 당의 요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간부들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지 않고있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간부들이 일이 바쁘다는 구실밑에 공부도 잘하지 않고 당생활도 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부 간부들가운데는 혁명적단련을 게을리 하는데로부터 직위가 높아지면 틀부터 차리기 좋아하고 거칠게 일하며 동지들의 충고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교만해져서 자기 직위를 마치 타고난 벼슬자리처럼 여기면서 행세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부패변질되여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는데까지 이르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누구보다먼저 간부들자신이 철저히 혁명화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상혁명을 옳게 지도하고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우리는 간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주목을 돌려 간부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먼저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험은 어떤 간부를 막론하고 당생활을 게을리 하고 당적통제에서 벗어날 때에는 례외없이 안일해이해지고 교만해지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으려는 경향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모든 간부들이 빠짐없이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은 언제나 당

조직에 의거하여 일하고 생활하며 당조직과 당원대중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을 강한 비판속에서 단련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간부들속에서 원칙적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들에 대한 비판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자기 결함을 제때에 비판할줄 알며 당원대중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일줄 아는 혁명가적품성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속에서 비판사업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간부들이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당정책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자로 하여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할것입니다. 학습은 누구나 다 하여야 하지만 특히 책임간부일수록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책임간부들의 학습을 철저히 통제하며 그들속에서 자각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한달강습체계를 계속 잘 운영하여 모든 간부들이 해마다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그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군들가운데서 공장, 기업소 지배인, 기사장과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직접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일군들로부터 간부양성기관들에 보내여 재교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실지 사업과정을 통하여 간부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모든 부문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간부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간부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간부들을 늘 료해하면서 꾸준히 개별교양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웃간부가 아래간부들을 교양하고 교양받은 간부가 또 자기의 아래간부들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간부들이 늘 교양을 받으면서 남을 교양하는 전당적인 정연한 간부교양체계를 세워야 할것입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간부선발배치사업을 옳게 하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간부선발사업에서 사람들의 정치적표정을 위주로 하면서 그에 실무적표정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지

난날의 고농, 빈농과 같은 기본계급출신들을 간부로 선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선발사업에서 가정주위환경에만 매달리는 그릇된 경향들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하며 어디까지나 본인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를 기본으로 하여 간부들을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간부들을 제때에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후비간부양성체계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현직간부들가운데서 간부후비를 장악하고 잘 키우는것과 함께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당원들 특히 기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핵심로동자들을 간부후비로 많이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후비간부양성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간부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각급 간부양성기관 교원대렬을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잘 꾸리고 교수교양사업을 당정책화하고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그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을 선발배치하며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반드시 그들의 당생활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문건에만 매달려 간부들을 평가하는 주관주의적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본인의 당생활과 실지사업을 통하여 간부들을 늘 검열하며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특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입니다. 당이 힘있고 생기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이며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양시키며 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잘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조직들은 매 당원들의 특성에 맞게 당적분공을 똑똑히 주며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검열하고 그것을 옳게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며 이미 준 과업이 다 수행되면 총화하고 다시 새 과업을 주어 모든 당원들이 언제나 당적분공을 맡고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당회의들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정치활동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과 함께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질적구성을 계속 개선하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사회주의 교양을 많이 받은 새세대들이 나라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으며 그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이 키운 이러한 새세대들 특히 로동계급청년들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당에 적극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대렬의 질적구성을 더욱 개선하고 당의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우리 당이 언제나 혁명적기백이 왕성한 당으로 발전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입니다. 우리는 당세포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당세포들이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더욱 능숙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참모부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간부들과 핵심당원들을 잘 배합하여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 생산현장에서 직접 로동하는 핵심로동자 당원들을 많이 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들에 핵심로동자들을 적절히 배합하여넣으면 우리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강화할뿐아니라 당이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를 박고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며 옳바른 지도대책을 제때에 세울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새로운 로동계급간부들을 많이 키울수 있으며 간부들이 당위원회를 통하여 로동계급적관점과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배울수 있을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조직부는 당대렬을 관리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장악지도하는 부서입니다. 당조직들이 잘 움직이는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가 꾸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주로 당조직부의 역

할에 달려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은 조직부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잘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옳게 지도통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의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배합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조직부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선전선동부는 약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는 의사가 병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하고 약제사가 그 진단에 따라 약을 주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려면 조직부가 당생활을 늘 장악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선전선동부는 결함을 고치는데 알맞는 사상교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며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을 옳게 수행하는 산 전투적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입니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결국 군중을 많이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대렬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입니다. 기본군중을 잘 교양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며 사람들을 믿고 검열하며 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사업원칙입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급적분해를 더욱 촉진시켜 반동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쟁취할수 있는 사람은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

니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입니다. 근로단체들을 적극 발동시켜야만 당의 두리에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습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의 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그의 자립성을 높여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한다는것은 결코 당이 근로단체사업을 가로맡아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근로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잘해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근로단체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고 군중과의 사업에 근로단체들을 적극 내세우며 일을 대담하게 맡겨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에 사업조건을 잘 보장하여주고 그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제기된 과업의 수행방도를 똑똑히 가르쳐주어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군중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조직전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중속에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에서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동맹의 기본핵심인 간부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잘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이 핵심들을 발동하여 동맹원들을 적극 교양하고 잘 움직여 자기의 기본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근로단체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입니다.

근로단체들은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특히 모든 동맹원들을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조직들은 동맹내부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견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전투적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입니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미

대에 대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사로청조직들은 특히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언제나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사업과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사상사업은 당조직사업과 함께 중요한 당내부사업의 하나이며 이 두가지 사업은 서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조직사업과 당사상사업이 잘 배합되여야만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습니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당사상사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려는 반혁명적기회주의사상조류입니다. 수정주의의 가장 큰 해독성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고 계급투쟁을 반대하며 적아의 계선을 모호하게 하며 미제의 원자공갈정책에 겁을 집어먹고 그앞에 굴복하며 말로는 반제적립장에 서있다고 하면서도 제국주의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그와 타협하며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부르죠아평화주의사상, 제국주의와 반동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며 피압박인민들이 혁명하는것을 꺼려하고 방해하는데 있습니다. 수정주의의 해독성은 또한 혁명적조직규률을 반대하고 부르죠아자유주의를 고취하며 리기주의를 조장하고 사람들을 안일부화하고 일하기 싫어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수정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를 좀먹고 자본주의를 복구하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만일 맑스-레닌주의당이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지 않고 당안에 수정주의사상조류를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러한 당은 투쟁하는 당, 혁명하는 전투적당으로 될수 없고 결국 무기력한 소부르죠아적당으로 되고말것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그들에게 수정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당안에 수정주의적사상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수정주의는 부르죠아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나고 자라나며 그것을 매개물로 하여 널리 퍼집니다. 또한 수정주의는 부르죠아사상을 부활시키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정주의를 극복하자면 부르죠아사상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여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적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침해하는 건전치 못한 온갖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분렬되여있으며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만도 안일성도 해이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계속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적투쟁정신으로 충만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 혁명가답지 못한 모든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사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건전하게 발전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당원들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그리고 당면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옳게 결합시키고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배합하여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하며 그 기동성을 잘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사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포치하며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료해장악하여 총화하고 다시 포치하는 방법으로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할것입니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모든 간부들이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이 가는곳마다에서 강연, 담화, 해설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널리 선전하며 정치사상사업을 정상적

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한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현단계에서 우리 당의 기본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도 결국은 당의 전투력을 높여 우리앞에 나선 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경험은 당의 유일적인 지도밑에서만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나라의 국내외환경이 복잡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는것입니다. 당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며 해당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위원회들은 자기앞에 새롭게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아래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단체들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며 위원회에서 분공되고 결정된 문제들이 옳게 관철되도록 검열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경제사업지도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성, 관리국들과 경제기관, 기업소 일군들의 자립적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며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은 국가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더욱 과

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

당조직들은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들속에 신망이 높은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인민위원회가 자기 지역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주민들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원만히 하도록 정치적으로 도와주며 인민위원회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생활과 국가 및 사회 재산을 보호관리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책임을 직접 맡고있는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과 같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있는 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에서의 기본요구입니다. 인민군대는 오직 당의 령도밑에서만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총결기간 우리는 군대안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고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며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군벌관료주의를 부식시키려던 경향을 제때에 극복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군대안에서 당위원회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이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조직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대안에서 나서는 모든 군사, 정치적 문제들은 다 해당단위의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여야 하며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사일군들은 군사사업을 하고 정치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하며 후방일군들은 후방사업을 하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할것입니다. 군대안의 당위원회들은 특히 군사지휘관들이 언제나 당위원회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도록 당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군대안에서 당정치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치기관들과 정치일군들 특히 정치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치기관들과 정치일군들은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전투정치훈련과 부대의 전투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군대에 대한 당적지도와 함께 로농적위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로농적위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로농적위대 대원들속에서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전투준비와 지휘체계를 더욱 완성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안전사업과 사법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들은 사회안전사업과 사법검찰사업을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사업방향을 바로잡아주며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지도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정치적보위자로서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며 특히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해치려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철저히 진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 * *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고있습니다.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우리의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류례없는 번영기에 처하여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온 사회가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정열과 혁명적락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이 모든것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것이며 당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시위하는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많았으며 우리는 시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의 투쟁은 보다 더 힘있고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습니다. 당대회가 내세우는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

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이 강령의 실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할것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당대회가 내세우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의 령도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모두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우리 당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모두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소리, 장내가 떠나갈듯한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 오래 계속)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개회사

김 일 성

동지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당은 자기 대렬에서 김계림동지, 김경석동지, 강진건동지, 강영창동지, 김은순동지, 리봉수동지, 김갑순동지, 김태근동지, 안룡각동지, 강상호동지, 리주연동지, 김원빈동지를 비롯하여 당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한 여러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총결기간에 안재홍선생, 한동백선생, 정로식선생, 김옥성동지, 계응상선생, 홍명희선생, 태을민동지, 원홍구선생을 비롯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각 정당, 민주단체들, 과학, 문화, 예술 부문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한 저명한 민주인사들과 원사, 교수, 박사, 인민배우, 인민예술가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공화국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최백근동지, 조용수동지, 로복동동지, 박두진동지, 최영도동지, 김종태동지, 리문규동지, 윤상수동지, 권재혁동지, 민형기동지, 김종태동지, 권오종동지, 임판재동지, 윤의로동지, 전후경동지, 최원석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에 일본에서 미일반동들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한 리중광동지, 김민화동지, 김병소동지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이 기간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 대렬에서 호지명동지, 더. 엔. 아이디트동지, 모리스 토레즈동지, 빨미로 똘리아띠동지, 게오르기우 게오르게 데스동지, 체 게바라동지, 요한 코플레니히동지를 비롯한 여러 탁월한 활동가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본대회사업에 앞서 대회의 이름으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애를 바친 내외의 혁명동지들과 민주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 대회에는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리종혁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통일혁명당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는 최용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

였습니다.

나는 이 대회와 우리의 모든 당원들의 이름으로 남조선통일혁명당대표단과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 대회앞으로 개회직전까지 형제적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의 집권당들,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혁명조직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개별적정치활동가들로부터 수십통의 따뜻한 축하문과 축전이 왔습니다.

나는 우리 대회를 축하하여준 모든 나라 당들과 혁명조직들, 국제민주단체들과 개별적정치활동가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들끓는 환경속에서,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깊은 사랑속에서 제5차당대회를 맞이합니다.

올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기한전에 점령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갔으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습니다. (박수)

수풍발전소, 천리마황해제철소, 천리마강선제강소, 김책제철소, 남포제련소, 문평제련소, 무산광산, 천리마검덕광산, 성흥광산, 신창탄광, 흥남비료공장, 본궁화학공장, 2.8비날론공장, 청진화학섬유공장, 2.8세멘트공장, 승호리세멘트공장, 천리마룡성기계공장, 천리마대안전기공장, 기양뜨락또르공장,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평양방직공장, 신포수산사업소, 림업부문과 제염공업부문기업소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과학아동영화촬영소를 비롯한 많은 문화기관들이 이미 당대회전에 7개년계획과 올해 년간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군수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당대회전에 7개년계획과 올해 년간계획을 넘쳐완수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반년남짓한 기간에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 500여개를 포함하여 1,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당대회에 만풍년을 선물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올해에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도시와 농촌 건설자들은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게 건설하였으며 사리원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수십만세대의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을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빛나는 업적

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민군대, 경비대, 사회안전기관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전투정치훈련과제와 특히 대규모군사련습계획들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박수)

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한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경비대원들 그리고 당의 정치보위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있는 모든 사회안전일군들에게 대회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우리 당 제4차대회로부터 이번 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변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회는 제4차당대회와 당대표자회가 내세운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과업을 내세우게 될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당대회대표자선거세칙에 따라 각 도(직할시)당대표회에서 선출된 결의권을 가진 대표 1,734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1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의 열성적인 참가밑에 대회사업에서 높은 성과가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나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

김 일 성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폭풍같은 환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소리 장내를 뒤흔드는 가운데 김일성동지께서 등단하시였다.)

동지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소집되였으며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정열로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대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표동지들이 대회사업에 진지하게 참가하였습니다.

대회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대표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의정에 상정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끝마쳤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대회사업의 진행정과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나는 대회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대표동지들과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동지들! 이번 대회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총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앞을 가로막는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제4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부강한 사회주의 새 조국 건설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능히 물리치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자위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총결기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더욱 강화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공고화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빛나는 구현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대회는 주체사상이 오늘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전당에 맑스-레닌주의사상, 당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우리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기초우에서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 불리울수 있을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대회는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투쟁 방향과 목표를 밝혀주었으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대회가 내놓은 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 새로운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더욱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될것이며 우리의 혁명력량은 불패의것으로 장성강화될것이며 우리의 모든 생활은 보다 넉넉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 강령의 실현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지난 기간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말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혁명과 건설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난관에 굴하지 말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혁명적생활기풍으로 살아

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당대회가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투쟁하여야 하며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당대회결정을 관철하는데서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더욱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당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을 열심히 배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자기의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합니다. 모두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며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그리하여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평화적기분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원쑤들이 감히 무력으로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는 이를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우겠다는 전투적기백과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더 많은 물자예비를 마련하며 전시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한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성을 띠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아직 난관도 많을것이며 우리는 시련도 겪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확하며 그것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인민은 당을 믿고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 국제적인 지지성원이 있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그 어떤 힘도 우리 당과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대회는 새 중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선거하였습니다. 나는 새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대표동지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새로 선거된 중앙위원회앞에는 커다란 책임과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나는 새 중앙위원회가 대회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대회가 표시한 높은 신임에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동지들! 우리의 대회는 형제당들과 국제적벗들의 열렬한 축하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의 집권당들, 세계 여러 나라의 혁명조직들이 우리 대회앞으로 친절한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해주며 우리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이 대회와 우리의 전체 당원들의 이름으로 대회에 축하문과 축전을 보내준 형제적 공산당, 로동당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의 집권당들, 모든 나라의 혁명조직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지지성원을 주고있는 전세계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대회에는 남조선 통일혁명당대표들과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여 대회를 열렬히 축하해주고 우리를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나는 대회의 이름으로 우리 대회를 축하해준 남조선 통일혁명당대표들과 그들을 통하여 남조선 통일혁명당에 감사를 드리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우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나는 또한 우리 대회에 참가한 재일조선인축하단과 그들을 통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감사를 드리며 민족적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동지들!

대회가 끝나면 대표동지들은 자기 초소로 돌아갈것이며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

기 위한 새로운 투쟁에 달라붙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한 당신들은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별히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나는 여러 동지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모두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우리 당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나는 대회참가자들과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면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소리, 오래 계속)

근로자 제11호 (루계 34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11월 15일 발 행 • 1970년 11월 20일

ㄱ—03612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양 근로자사 197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345)

차 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를 심오히 학습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승리, 그 웅대한 혁명적강령

전당과 전체 조선인민이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넘치고 세계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선혁명과 우리 당 력사에서 새로운 커다란 리정표로 되는 당 제5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당 제5차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새로운 웅대한 혁명적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더욱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차전원회의는 전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심정을 반영하여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다시금 우리 당의 총비서로 모시게 된 무한한 기쁨과 자랑 속에서 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력사적인 보고와 대회의 성과를 열렬히 지지환영하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며 수령께서 이끄시는 오직 한길을 따라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억센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 또한 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우리 당 제5차대회의 성과와 특히는 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보고에 대한 국제적반향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참으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업적과 경험을 심오히 분석일반화한 불후의 력사적문헌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강령이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명리론을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인 맑스-레닌주의고전이다.

혁명과 건설의 심오한 사상과 천재적인 리론, 탁월한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수령의 보고를 깊이 파악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당원들과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전체 조선인민의 가장 큰 혁명적의무이며 자랑이며 영예이다.

1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준엄한 시련과 겹치는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 당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력사적승리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 승리하여온 로정의 영광스러운 총화이다.

보고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총결기간 우리 당이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하여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력사적승리가 전면적으로 총화되였으며 당이 쌓은 풍부한 리론실천적경험이 심오히 일반화되였다.

보고에서 명확히 분석일반화된바와 같이 당 제4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9년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로의 전진운동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적사변들로 가득찬 보람있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일찌기 없었던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페지)

지난날 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 이것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이 력사적승리로 하여 우리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게 되였으며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조국의 장래번영을 위한 확고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것으로 하여 우리는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 선진국가의 대렬에 떳떳하게 들어서게 되였다.

실로 총결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전면적기술혁명의 길을 따라 우리 공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왔으며 농촌경리를 포함한 모든 부문들이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오늘 우리는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 필요한것이라면 현대적공장의 설비도 종합적으로 마음대로 생산할수 있는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기지와 모든 부문이 다 갖추어진 자립적인 현대적경공업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언제나 높은 수확을 내는 알곡생산기지와 현대적기술토대우에 올라선 축산업을 비롯한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공업농업총생산액에서의 공업의 몫과 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의 공업의 몫, 인구 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 등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보여주는 주요지표들에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올라섰거나 뛰여넘어섰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를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단 14년동안에 빛나게 실현한것,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영웅조선이 세계의 공업화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긴 기적이다. 특히 우리의 이 성과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내외정세가 류례없이 긴장한 환경에서 이룩된것이며 전당과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룩한것임으로 하여 무한히 귀중하며 자랑스러운것이다.

그처럼 간고한 조건에서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빠른 속도로, 혁명적방법으로 공업화를 실현한 조선의 경험, 세기적락후를 영원히 털어버리고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난 새로운 사회주의공업국가, 조선의 위용은 만대를 두고 온 세상에 길이 빛날것이다.

실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력사적전환, 이는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이름으로 빛나는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에 일어난 세기적변혁이며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큰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공업화의 력사적승리와 함께 낡은 사회가 물려준 문화적락후성을 극복하고 우리 나라를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

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문명한 나라로 전변시킨 문화혁명의 자랑찬 성과와 온 사회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로 꾸리게 한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성과, 원쑤들의 거듭되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킨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확립, 정연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철저한 수립 등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력사적업적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다.

수령께서는 대회에서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서 이룩된 획기적전진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달성된 빛나는 업적을 심오히 분석하시였으며 특히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과정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하고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한 우리 당의 발전행로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심오히 천명하신바와 같이 총결기간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뿐아니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와 업적을 쌓아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 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빛나는 구현입니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 당자체의 공고화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승리이다.

총결기간은 모든 분야에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된 기간이며 주체사상의 생활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전면적으로 발휘된 기간이다.

당 제4차대회이후의 모든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한 수령의 보고와 당 제5차대회의 전과정이 뚜렷이 보여준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현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 우리 인민을 저주로운 망국의 사조인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의 구속에서 사상적으로 해방시켰고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주체의 조국》으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당 건설분야에서의 주되는 총화로 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의 원천으로, 근본요인으로 된다.

총결기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그 모든 찬란한 성과와 업적들은 바로 수령의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찬 열매들이다.

특히 당내에 유일사상체계의 철저한 확립,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한 통일단결의 실현,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화,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10페지)

수령의 이 위대한 선언, 이는 우리 당 발전의 새 력사를 선포하신것이며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뭉친 당, 전당이 수령의 혁명사상, 오직 하나의 사상체계로 꽉 들어찬 불패의 당,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과 비할바없는 위력을 명시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한 통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장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전당의 완전한 통일과 전체 인민의 확고한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한 우리 당의 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혁명력량의 강화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우리 당이 창조한 빛나는 모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에 있어서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우리 당의 대외활동에서도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였다.

총결기간 남조선혁명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현시대의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구현하는 영광스러운 새 력사적시대에 들어섰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결실을 보게 되였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준엄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오직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그이께서 밝히신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나아가는 길만이 승리를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체득하고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는 통일혁명당을 창건한것, 이것은 남조선혁명에서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의 시기가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조선혁명운동력사에서의 획기적전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당은 세계혁명을 촉진하는데서도 커다란 업적을 쌓았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히 하였다.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철두철미 반제적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인 자주적대외정책, 특히는 수령의 높으신 국제적권위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혁명의 최선두대렬의 기수로서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걸어왔으며 그 국제적위신과 영향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비할바없는 국제적위신,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위대한 전변으로 되며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실로 총결기간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한 기간이며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 변혁과 기적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바로 주체사상의 이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승리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당 제4차대회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은 참으로 많은 시련과 준엄한 난관들을 이겨내야 하였으며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 안되였다.

총결기간 혁명의 내외정세는 극도로 긴장하고 복잡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혁명적공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되였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

되였다. 당안에서도 숨어있던 수정주의분자, 부르죠아분자들이 머리를 추켜들려 하였다.

또한 우리 혁명과 건설은 그 누구도 밟지 못하였고 걸어보지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야 하였다.

오로지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었고 그이께서 우리 당과 인민을 가장 정확히 이끌어주셨기에 온갖 난관과 시련도, 전인미답의 길도 용감히 뚫고 그 모든 비약과 기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보고와 대회의 전과정은 우리의 모든 력사적승리와 빛나는 업적이 천재적인 주체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 과학적인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로 준엄한 시련도, 복잡하고 어려운 미해결문제도 거침없이 풀어나가시며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는것을 전면적으로 확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령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는 길만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길이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2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앞길을 더욱 새롭게 밝혀주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명시해준 위대한 혁명적강령이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더 큰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다.

수령의 보고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추진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새로운 투쟁단계의 웅대한 목표와 휘황한 전망,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이 그 해결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해명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천명하시면서 경제, 문화, 사상, 국방건설, 인민생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의 중심과업들, 새로운 전망계획인 6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와 전망을 전면적으로 펼쳐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페지)

수령께서는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에 근거하여 흑색야금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 채취공업, 경공업 등 공업부문의 중심과업과 농촌경리부문, 운수부문을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중심과업들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특히는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

(우와 같은 책, 47페지)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이 웅대한 목표와 과업은 우리 인민경제의 현실태와 그 발전전망, 생산과 기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이미 마련된 현대적공업을 더잘 정비하여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으로 만들며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것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시킬데 대한 수령의 일관한 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다음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높은 단계에 들어선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나라의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을 어떻게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로대를 어떻게 쌓을것인가를 과학적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다. 특히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과거사회가 물려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는 구체적방도를 력사상 처음으로 명시한 고전적사상이다. 또한 그것은 현대기술문명을 가정의 부엌에까지 깊이 침투시키고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준 천재적인 사상이다.

실로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모든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업국가의 위력을 모든 생활에 활짝 꽃피게 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한 천재적해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 등 사회주의문화건설의 투쟁과업을 천명하시면서 특히 밖으로부터의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돌리며 우리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으로서의 복고주의경향을 철저히 없앨데 대한 원칙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께서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앞에 내놓으신 강령적과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참말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화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특히 제국주의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사상문화분야에서 계급투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계급적임무에 맞게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회주의문화혁명의 근본문제를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천명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100만이상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며 온 나라의 텔레비존화를 실현하며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적, 사회적 부담으로 기르는 공산주의적시책을 완성할데 대한 휘황한 전망과 주체적인 과학, 혁명적인 문학예술, 대중적인 체육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며 아름다운 우리말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투쟁과업을 비롯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문화건설의 모든 방침은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기술문화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움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수령께서는 보고에서 사상혁명과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본질과 그 필연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행정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 등을 더욱 새롭게 전면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수령의 이 천재적인 사상과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구체적방침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을 전면적으로 벌리고 사상교양과 혁명적실천을 결합시키며 비판, 투쟁, 개조의 원칙밑에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고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 리론, 계급적차이소멸과 무계급사회의 건설에 관한 리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로 만들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신 탁월한 사상이다.

수령의 이 탁월한 사상과 리론, 과학적인 투쟁방침으로 하여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인 인간개조의 구체적로정과 그 실천적방도를 뚜렷이 알게 되였으며 그를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과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전쟁준비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기 위한것이다. 특히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전법과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위의 원칙을 현대전의 특성과 우리의 방위력의 근본사명과 목적에 맞게 철저히 구현한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건설리론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보고에서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고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축적과 소비, 경제 및 국방 건설과 인민생활향상간의 균형을 옳게 맞추면서 모든 인민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앨데 대한 웅대한 목표와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여기에는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축적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면서도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혁명의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게 최대한의 배려를 돌려주시는 수령의 우리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깃들어있으며 물질문화생활수준과 생활조건에서까지 로동계급과 농민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나아가시려는 그이의 웅대한 구상이 반영되여있다. 인민생활분야에 펼쳐주신 휘황한 강령은 바로 공업화를 실현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그 위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 국방건설과 인민생활, 축적과 소비를 어떻게 결합시키며 어떤 방향에서 근로자들간의 생활수준상차이를 없애고 물질문화생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면모를 완성해나갈것인가를 밝혀주고있으며 우리의 전체 인민을 한없는 흥분과 어버이수령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으로 휩싸이게 하고있다.

(우와 같은 책, 47페지)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이 웅대한 목표와 과업은 우리 인민경제의 현실태와 그 발전전망, 생산과 기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이미 마련된 현대적공업을 더잘 정비하여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으로 만들며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것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시킬데 대한 수령의 일관한 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다음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높은 단계에 들어선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나라의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을 어떻게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어떻게 쌓을것인가를 과학적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이다. 특히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과거 사회가 물려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는 구체적방도를 력사상 처음으로 명시한 고전적사상이다. 또한 그것은 현대기술문명을 가정의 부엌에까지 깊이 침투시키고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준 천재적인 사상이다.

실로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모든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업국가의 위력을 모든 생활에 활짝 꽃피게 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한 천재적해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 등 사회주의문화건설의 투쟁과업을 천명하시면서 특히 밖으로부터의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돌리며 우리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으로서의 복고주의경향을 철저히 없앨데 대한 원칙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께서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앞에 내놓으신 강령적과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참말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화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특히 제국주의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사상문화분야에서 계급투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계급적임무에 맞게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회주의문화혁명의 근본문제를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천명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100만이상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며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며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적, 사회적 부담으로 기르는 공산주의적시책을 완성할데 대한 휘황한 전망과 주체적인 과학, 혁명적인 문학예술, 대중적인 체육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며 아름다운 우리말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투쟁과업을 비롯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문화건설의 모든 방침은 우리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기술문화혁명을 적극 밀고 나가면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움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장기간의 반제혁명투쟁에서 형성된 아세아인민의 공동투쟁의 빛나는 전통과 그들의 공통된 처지, 날로 장성하는 아세아의 혁명력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진공적이고 적극적인 반제반미투쟁로선이다.

수령께서는 또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간의 호상관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폭로하시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과 방침을 밝히시였다.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한 온갖 환상과 기대를 배격하고 국제무대에서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이 탁월한 방침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전반적혁명운동을 더욱 추진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강령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당사업에서의 총적과업과 당사업의 기본, 당의 조직지도사업과 사상사업,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의 제고 등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119페지)

수령께서는 당사업의 이 총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 즉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 유일사상교양을 계속 강화하면서 수정주의와 그 바탕으로 되는 부르죠아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당사상사업의 중심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국가, 경제, 문화 기관과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당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투쟁이 더욱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조건에 맞게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욱 불패의 대오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것이며 긴장되고 복잡한 국제국내정세에 상응하게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할데 대한 요구를 진면적으로 반영한것이다.

보고에 천명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그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화를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삼을데 대한 문제,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편향을 배격하고 그를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당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의 배합작전을 잘할데 대한 문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옳게 하면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하여 그들의 계급적분해를 촉진하고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할데 대한 문제, 근로단체들의 자립성과 능동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전개하면서 수정주의,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높이고 인민정권기관과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많이 가지고있는 인민군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은 그이께서 심오한 혁명리론과 오랜 기간의 혁명실천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

초하시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문제와 당사업의 근본원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의 발전에 대한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제5차대회보고는 우리 당과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당자체의 공고화 등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나서는 강령적과업과 웅대한 투쟁목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현시대가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철저히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 길이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한 력사적대회로 기록된것이다.

대회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빛나는 승리를 온 세계에 시위하였으며 전당과 인민을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회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풍부한 경험을 심오히 분석일반화한 력사적문헌이며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주는 강령적문헌이며 현시대의 혁명리론을 집대성한 고전적문헌인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와 대회의 결정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혁명적자부심을 한없이 높여주며 그들을 더욱 큰 승리와 새로운 위훈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또한 그것은 세계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원쑤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실로 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보고는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무한한 용기와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투쟁의 기치, 광명한 등대로 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에게는 파멸과 죽음을 안겨주는 무시운 폭탄으로, 철추로 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교시와 대회결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과 인민의 전투적강령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며 세계혁명을 더욱 촉진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한층 더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 어떤 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정확한 로선을 받들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당의 주체적공업화로선의 빛나는 승리,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력사적전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총결기간 우리 당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력사적승리의 빛나는 총화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 전반적세계혁명승리의 길을 전면적으로 휘황히 밝혀주는 전투적강령이다.

우리 당 제4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과 인민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찬란한 승리와 고귀한 업적들을 이룩한 보람찬 시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페지)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획기적사변이며 세계가 아직 그 류례를 모르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새로운 독창적경험의 창조이며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주되는 총화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에서 내놓으신 력사적인 경제강령의 빛나는 실현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공업화로선의 전면적승리이며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공업화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심으로써 주권을 쥔 맑스-레닌주의당의 공업화강령을 완성하시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공업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업적을 드높은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돌이켜보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보다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였으며 7개년계획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이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수령의 이 교시에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필연성과 그 력사적지위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천명되여 있다.

사회주의공업화는 기계제작공업을 핵

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며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그것은 특히 지난날 근반세기에 걸친 일제통치의 후과로 식민지 농업국가의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았던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흥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개조방침에 의하여 전후시기에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빨리 실현됨에 따라 더욱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여야만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었다.

사회주의공업화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선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북반부혁명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도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에 따라 7개년계획기간에 전면적으로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5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가 닦아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된데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수령의 이 교시에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력사적시기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정확한 공업화로선을 작성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매개 나라들에서 민족공업건설의 방향을 규정하며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정확한 공업화로선의 작성은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종전까지 명확히 해명된것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성과 현시기 세계혁명이 진행되는 구체적환경,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공업화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해명을 주시였으며 실천적경험으로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민족공업창설에서 그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공업을 최신기술로 장비시킬뿐아니라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튼튼히 의거하여 발전할수 있도록 주체가 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 되게 하며 그에 기초

하여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할데 대한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매개 나라 민족공업으로 하여금 어떠한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안전한 기초우에서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대한 공업제품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공업화와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유일하게 옳은 혁명적로선이다. 이 로선은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혁명발전단계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을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중공업은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계속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증명된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10페지)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기본로선은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중심고리로 되는 기계제작공업과 그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인민생활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그것은 농업을 희생시키며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중공업을 건설하는 자본주의적공업화방법이나 중공업만을 강행적으로 발전시켜 공업화를 실현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적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해결에 절실히 필요한 부문들에 중점을 두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전행정에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이 독창적인 길을 따라 인민대중을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짧은 시일내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었으며 그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었다.

2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구현하시여 주체적공업화로선과 그 실현의 가장 빠른 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확고한 원칙성과 혁명적전개력,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뚫고나가야 할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관철하여나아갔으며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어렵

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옳게 령도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2~13페지)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벽돌한장, 세멘트 한그람 없는 빈터우에서 복구건설의 첫삽을 들어야 하였던 우리 인민은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가셔내고 인민경제의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중공업의 토대는 매우 미약하였다.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자랐으며 기술력량도 적었다. 게다가 당내에 숨어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민족공업창설로선을 반대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공업화의 전진속도에 박차를 가하는것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공업화의 길우에 가로놓인 난관은 이뿐이 아니였다. 우리 당은 또한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특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긴장하고 첨예한 정세하에서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과 그이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박차고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줄기차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았으며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주체와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과의 기본담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65~66페지)

주체와 자력갱생은 우리 당이 공업화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한 혁명적립장이며 원칙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공업화로선도 이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도 이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국가건설에서 부닥치게 되는 공업화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호상관계문제도 바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열어주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따라 사회주의공업화를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명확한 진로를 개척하시였으며 자금과 기술인재 문제도 이 원칙에 의거하여 빛나게 해결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자금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첨예한 성격을 띠고 제기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푸는데서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객관적조건,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과 혁명적열의를 전면적으로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공업화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축적과 소비의 호상관계를 해긴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생활의 장래향상을 위한 축적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그에 기초하여 인민생활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동시에 늘어나가도록 하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할 당시 축적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축적이 없이 그저 버는대로 다 때려먹고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앞날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공업화를 위해서 또한 사회주의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 축적을 끊임없이 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0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축적된 자금을 리용함에 있어서 역시 나라의 륭성반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 비생산적건설에 비해 생산적건설을 결정적으로 앞세우도록 하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고 공업부문에서는 나라의 공업화와 인민생활향상과 밀접히 련관된 중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자금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투자의 효과를 짧은 시일내에 낼수 있도록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규모중앙경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지방의 무진장한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적은 자금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는 한편 중공업건설에 더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공업화의 자금문제해결을 위한 이 모든 독창적인 방침은 공업화의 전기간 당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그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무릅쓰고 악전고투하여 자체의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공업화와 인민생활향상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가려는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반영한 혁명적로선이며 이때까지의 공업화력사가 알지 못하였던 공업화의 자금문제해결의 전혀 새로운 창조적로선이다. 우리 당은 이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짧은 시일내에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을 빨리 늘이고 국방건설과 인민생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면서도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 지원하면서 공업내부축적만으로 공업화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를 위한 투쟁에서 초미의 문제였던 기술인재문제도 철두철미 우리자체의 힘으로 풀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기술간부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랜 기술일군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복무하게 하는 한편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시고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대군을 빨리 길러내는 가장 현명한 방침을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문화혁명과 결부시키고 민족기술간부양성에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시였으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정치적으

로 준비되고 선진과학기술과 실천적경험을 겸비한 유능한 기술인재로 키우시였으며 공업화의 높은 속도에 맞게 늘어나는 기술인재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확고하게 견지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서 나서는 절실한 과학기술문제들을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업화의 길우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나설 때마다 늘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과 건설장을 찾으시여 대중속에 정치사업을 앞세우시고 걸린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풀어나가도록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시였으며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공업화의 류례없는 천리마속도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할것없이 수령의 직접적지도와 깊은 배려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으며 우리 나라에 새로 일떠선 공장과 광산,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계설비와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하나 그이의 직접적발기와 깊은 관심을 떠나서 이루어진것이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또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경제관리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는데서 반드시 풀어야 할 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기업관리운영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수행에 전면적으로 착수하였던 7개년계획시기에 우리 나라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아주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였으며 이 엄혹한 시련앞에서 우리 인민이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것인가에 대하여 주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제때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그처럼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수 있었다.

일단 정책을 세우신 다음에는 그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 부닥쳐도 강철의 의지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켜나가시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령도, 바로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보

롱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공업화로선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확고하게 전변되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인민경제에서 공업이 노는 지도적역할이 결정적으로 증대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공업화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 생산에서 공업은 더욱더 결정적 역할을 놀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비할바 없이 커졌다. 올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높아지게 되며 우리의 공업은 지금 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12일동안에 만들어내고있다.

공업의 빠른 발전과 그 규모의 확대로 하여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몫은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조건에서도 1956년의 34%로부터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에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된 국민소득가운데 공업의 몫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공업의 지도적역할은 더욱더 결정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이것은 전인민적소유를 확대강화하고 로동계급의 대렬을 더욱더 늘이게 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자립적공업체계확립을 위한 투쟁과 직접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원료기지에 튼튼히 발붙인 그리고 부문구조가 잘 조화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업제품을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생활력있고 자립적체계가 선 위력한 공업으로 발전되였다.

인민경제에서 공업이 노는 결정적역할은 사회주의공업화에서 기본으로 되는 중공업의 빠른 발전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전반적공업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공업이 더욱 빨리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여 갖출것을 기본적으로 다 갖춘 완비된 중공업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와 끊임없는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이 특히 매우 빨리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발전된 공업국가들에서도 다 만들지 못하는 6,000톤프레스와 중량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5,000톤급대형선박을 비롯한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만들게 되였으며 개별적기계설비들뿐아니라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해내게 되였다. 이것은 실로 우리 나라 공업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혁명이다. 올해에 우리의 중공업은 165억키로와트시의 전력, 2,750만톤의 석탄, 22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화학비료, 4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게 된다.

사회주의공업국가를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또한 중요공업제품의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지표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중요공업제품의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앞서고있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인구 한사람당 전력은 1,184키로와트시, 석탄은 1,975키로그람, 강철은 158키로그람, 화학비료는 108키로그람, 세멘트는 287키로그람에 이르게 된다.

경공업부문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일용잡화로부터 문화용품, 가정용품, 식료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훌륭히 생산보장하는 현대적인 소비품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중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이 또한 빛나게 수행되였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공업과 운수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전기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였다.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서도 비약적인 전진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수리화와 전기화의 력사적과업이 완성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모든 사실은 우리 당 제4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기간에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입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의 우리 나라 모습은 전후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였던 그때와는 너무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이 전변은 실로 인류의 진보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사변이며 력사에 인간이 창조할수 있는 최고의 기적으로,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빛나는 전변이다. 이 전변은 전후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간고분투하여 쌓아올린 기적이며, 그것도 순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놈들의 전쟁도발책동과 온갖 기회주의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손에는 총을 잡고 일으킨 전변이며, 한 나라가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같이 수행하며 세계혁명을 위하여서도 큰 힘을 넣어야 하는 조건에서 이룩한 전변이다. 이 전변은 또한 공업국가로 자랑하는 적지않은 나라들이 많은것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지만 우리는 자립적인 주체공업을 건설하면서 일으킨 전변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력사적전변은 그것이 순조로운 조건에서 이룩된것보다 더 값있고 고귀한것이며 몇백몇천배나 더 훌륭하고 자랑찬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전면적실현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으로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과학과 기술,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할수 있는 힘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우리는 보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그 어떤 원수들의 침략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금성철벽의 자위적국방력을 가지게 되였

으며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휘황한 래일을 앞당겨오시려는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으로 또한 전인민적소유의 지위가 강화되고 로동자들의 대렬이 훨씬 늘어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과 사회생활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작용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으며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 과정이 보다 촉진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으로 북반부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이 또한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남반부인민들에게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강력히 고무하는 추동력으로 된다. 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는 남반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이 통일된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빨리 복구발전시키며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세계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에는 그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되며 싸우는 나라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된다. 그것은 특히 이때까지 《구라파중심주의》를 떠벌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깔보는데 습관되였던 서방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썩어빠진 관점에 종지부를 찍은 무서운 폭탄으로 되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새 아프리카, 새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는 무한한 긍지와 승리의 신심, 끝없이 귀중한 경험을 주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공업력을 가진 힘있고 발전된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이 힘있는 밑천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령마루를 바라볼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촉진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휘황한 전망, 6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또하나의 빛나는 리정표이며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다. 이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더욱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될것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이 영광, 이 긍지를 안겨주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 끝까지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로운 보다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큰 승리와 휘황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새로운 투쟁강령-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앞에 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새로운 전투적강령,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은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웅대한 투쟁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발전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이 웅대한 강령에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경제토대의 커다란 생산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할데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그 실현방도가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에는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필연적으로 나서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데 대한 과업이 밝혀져있다.

수령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은 단꺼번에 할수 없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다.

물론 우리 당과 인민은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하나의 력사적단계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다는것을 의미할뿐이며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와 생산력이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더욱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무엇보다먼저 공업부문들에서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3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공업부문의 이 중심과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살을 붙이는 일을 계속하여 약한 부문들은 보강하고 없는 부문들은 갖추어 공업을 빨리 완비하는 한편 우리 나라 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게 된다. 이 기간에 공업부문에서는 그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을 이루는 자체의 동력기지, 연료기지, 원료기지들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큰 힘이 돌려지게 된다.

6개년계획기간에는 또한 원유가공공업, 석유화학공업, 합성고무공업, 경금속생산 등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고 특히 화학공업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아닐론, 데트론 등 새로운 합성섬유와 여러가지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일련의 원료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커다란 전망이 열리게 되며 공업의 원료기지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이 더욱 강화될것이다. 그리고 계획기간에 기계공업의 생산구조가 더한층 완비되고 공업의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의 기계화가 완성되며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시되여 우리 공업의 기술적토대는 획기적으로 강화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공업과 전반적인민경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안전한 기초우에서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이 강한 경제로 빨리 발전하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강화될것이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6개년계획기간에 경제건설분야앞에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수령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기술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밝힌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인민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창조적사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전면적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웠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업은 완전히 수행될수 없었다. 이 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운 다음단계에 와서 비로소 성숙된 문제로 나서게 된다. 6개년계획기간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과업은 기술혁명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새 전망계획기간에는 무엇보다먼저 공업부문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이 돌려지게 된다. 우선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과 생산공정들을 기계화하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게 되며 특히 고열 및 유해 로동이 비교적 많이 진행되는 금속, 화학, 세멘트 등 공업부문들에서 기술적개조를 다그쳐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공업부문들과 작업장들에서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며 고열 및 가스와 먼지, 습기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것이다.

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이 널리 벌어지는것과 함께 6개년계획기간에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농촌기술혁명이 더욱 전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농업생산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농촌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에로 점차 넘어가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줄이고 계급적차이의 소멸과정을 촉진하며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과정을 더욱 앞당기게 할것이다.

6개년계획기간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과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을수 있는 기술혁명의 전혀 새로운 독창적방침이며 사회주의하에서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경제강령이다. 그것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녀성들을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키시려는 어버이수령의 우리 녀성들에 대한 또하나의 육친적인 배려의 표시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우월성의 집중적발현이다.

실로 당대회에서 채택된 6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과업은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시며 인류의 리상을 현실로 만들고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생활로 만드는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이 구상될수 있고 실현될수 있는 웅대하고도 휘황한 혁명적경제강령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사업과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과업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길이며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가장 빨리 앞당겨 점령할수 있게 하는 장엄한 전투적강령이다.

* *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채택한 6개년전망계획에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은 무엇보다먼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빠른 장성을 예견하고있으며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계획이다.

우리 당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의 거대한 생산잠재력과 빨리 달려나아가려는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말에 가서 280억~3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5,000만~5,300만톤의 석탄, 350만~380만톤의 선철 및 립철, 380만~400만톤의 강철, 각각 280만~300만톤의 압연강재와 화학비료, 750만~800만톤이상의 세멘트, 5억~6억메터의 직물, 160만~180만톤의 수산물, 700만~75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게 될것이다.

계획기간에 또한 우리의 공업을 해마다 평균 14%의 높은 증가속도로 발전시켜 공업총생산액을 2.2배로 늘일것이며 기본건설투자는 지난 10년동안에 투자한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시할것이다.

생산과 건설에서의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와 경제발전에서의 높은 속도는 6개년계획의 전기간에 걸쳐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고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킬데 대한 방침에 따라 계획기간에는 또한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기술적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공업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은 거의 2배로 높아지게 된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경제사상과 리론을 가장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계획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6개년계획은 또한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하는 웅대한 설계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39페지)

위대한 수령께서 펼쳐주신 현명한 주체공업건설의 길을 따라 우리의 공업은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서 더욱 다방면적으로 꾸려지고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더욱 튼튼히 의거하여 힘차게 발전할것이다.

계획기간에 또한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업생산의 집약화와 현대화, 공업화에서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된다.

당의 옳은 방침에 따라 전망계획기간에 새 땅을 개간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한편 밭관개가 널리 실시되며 2모작면적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에 3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개체계를 실시함으로써 논에서뿐만아니라 밭농사에서까지 영원히 흉년을 모르게 될것이며 밭곡식의 정당수확은 훨씬 높아질것이다. 현대적농기계들 특히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이 더 많이 창안제작되고 토지정리를 널리 하여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며 농촌경리의 화학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또한 공업화된 닭공장들이 일어선것처럼 나라의 도처에 현대적인 돼지목장, 오리공장들이 일며서 우리 나라 축산업의 토대는 더욱 강화되게 된다.

논뿐만아니라 밭에 이르기까지의 전면적인 수리화,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 농촌경리의 대대적인 화학화—이 모든것은 농업생산을 전기와 기계, 화학의 힘으로 하게 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우리의 농촌을 자급자족하는 보다 공고한 식량기지, 믿음직한 공업원료기지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힘있는 터전으로 전변시킬것이며 우리 당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농업강령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창조성과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보여줄것이다.

6개년계획은 경제건설과 함께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 관한 수령의 독창적인 리론과 사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화, 참다운 인민적인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건설의 위대한 설계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기간 문화혁명분야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문화적침투를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 복고주의의 반맑스주의적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 그리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하고 독창적인 방침이다.

수령께서 내놓으신 이 혁명적인 방침에 따라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우리의 교육, 과학, 문학예술, 언어, 체육 등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은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가까운 앞날에 100만명이상의 인테리대군이 마련되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며 주체적인 과학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이 활짝 꽃피여나게 될것이다.

6개년계획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자위사상을 국방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온 강토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전투적인 계획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 《근로자》, 1970년 11호, 78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따라 6개년계획기간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전쟁준비를 다그침으로써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될것이다.

이와 함께 주체성과 자립성이 확고히 보장된 우리의 군수공업은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것이며 전민무장화와 전군현대화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기재를 더욱 충분히 생산공급할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전략사상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이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그 어떤 원쑤들의 불의의 공격과 침략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전쟁준비태세와 필승불패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갖추게 될것이다.

6개년계획은 또한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설계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축적하여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7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계속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옳은 방침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시려는 수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전망계획기간에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것으로 될것이다.

새 전망계획기간에는 무엇보다먼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데 힘을 넣게 된다.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군을 잘 꾸리고 공급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모든 군들에 식료가공공장과 랭동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공장들이 더 건설되고 상업망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수매사업과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이 결정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은 빨리 늘어나고 그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높아질것이다. 그리고 산간벽촌에까지 수도와 뻐스가 들어가고 병원과 아동병동이 꾸려지며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실현되여 우리 나라의 농촌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를 더욱더 닮아갈것이다.

계획기간에는 또한 농민들의 현물 및 화폐수입을 현저히 높이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하여짐으로써 그들의 월평균로임은 90원에 달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천, 내의, 신발을 비롯한 대중소비품의 값이 절반으로 떨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골고루 빨리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마다 방대한 규모로 문화주택이 건설되여 살림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는 보다 원만히 충족되게 될것이다.

3대기술혁명의 보람찬 길을 따라 공업과 농업은 물론 특히 식료 및 일용품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것이며 녀성들은 가정일의 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모든 힘든 일에서 벗어나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낼수 있게 될것이며 그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것이며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기 위한 이 모든 획기적인 시책들에는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증진을 언제나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덕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크나큰 배려가 깃들어있다.

실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은 혁명과 건설의 불멸의 기치,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욱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보람차고 희망찬 설계도이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6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은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전망을 빨리

현실로 만들어야 할 영예롭고 보람찬 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당대회가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투쟁하여야 하며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 《근로자》, 1970년 11호, 78페지)

6개년계획은 우리 인민에게 래일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보람찬 전망을 안겨주는 투쟁강령이다.

물론 새로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성을 띠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의 격화되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더욱 긴장하며 6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새로운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일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건설리론과 경제건설의 뚜렷한 목표가 있고 수령께서 창조하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위대한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시고 공고발전시키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한 토대가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가 있다.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것은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반드시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문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경제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점령을 위한 장엄한 전투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투쟁과 실천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함으로써만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경제지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2페지)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대안체계

의 요구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며 경제지도에서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지구계획위원회들과 국가계획부들이 자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 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요구를 옳게 관철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의 경제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우리 당의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경영학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특히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특수성과 조성된 혁명정세로 하여 로력사정이 의연히 긴장한 오늘의 조건에서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있는 로력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비생산부문과 간접부문의 로력을 줄여 생산부문과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더욱 높이며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생산자들의 작업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설비관리를 개선하고 그 리용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며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투적과업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난관에 굴하지 말며 계속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더욱 힘차게 달려나아가야 한다.

당면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명년도 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특히 6개년계획수행의 중심고리인 석탄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우고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6개년계획의 첫해 첫전투부터 생산을 정상화하며 그를 2년이상 앞당겨 점령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은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수령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흥겹고 넉넉하고 문명하게 될것이다. 새로운 전망계획의 수행은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더욱 빨리 달려나가야 한다.

모두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찬 투쟁을 벌려 수령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반드시 기한전에 완수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빨리 앞당기자.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당 제4차대회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온갖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웅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께서는 특히 총결기간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달성한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전투적과업들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보고에 집대성되고 체계화된 당건설과 당사업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리론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화하는데서 새로운 특출한 공헌으로 된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당이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렵고 복잡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위대하고 자랑찬 승리와 고귀하고도 풍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총화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 이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 한 기본요인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8페지)

지난 기간 우리 당 활동에서 이룩한 가장 위대하고 자랑찬 성과를 총화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정력적이고도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온 전로정에 대한 심오하고도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참으로 지난날 우리 당 활동의 내외적환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추호의 동요도 없이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다. 전당이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

장함으로써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오랜 기간에 걸친 정력적인 투쟁을 전반적으로 총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110페지)

실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의 실현, 이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 건설의 주되는 총화이며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그리고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이것은 또한 전투적이고도 혁명적인 당을 건설할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귀중한 밑천이다.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한 위대한 성과를 만족스럽게 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총결기간 우리 당 활동에서의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111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의 기본요구에 대하여 다시금 심오하고도 천재적인 해명을 주시면서 이 사상이 맑스-레닌주의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영생불멸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라는것을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 요인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사람들의 사상령역에서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시고 그 경험을 심오하게 분석일반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실로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과 생활에 깊이 뿌리박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렸으며 특히 내외의 정세가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을 세차게 다그쳐야 했던 지난 총결기간에 이 투쟁을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이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하고도 심각하게 벌린 결과 우선 사상에서 주체가 확립되여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완전히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이

록되였으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여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개화만발하는 민족문화와 강유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또한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로 되고있으며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촉진하는데서도 날과 더불어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이렇듯 총결기간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력사적시기였다.

경험은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인민과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이 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전진할 때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당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당적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우리 당의 꾸준한 투쟁과 이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심오하게 일반화하시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전당에 간부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1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특히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체화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고 당사업을 더욱 심화시킨 고귀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심오하게 분석총화하시였다.

전당에 전면적으로 확고히 수립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와 군중로선을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 이것은 시종일관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탁월한 혁명리론을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가장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훌륭히 해결한 가장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수령께서 창조하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혁명적사업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자기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의 하나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총결기간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에 학습기풍을 세워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인 자랑찬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에서 학습이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되고 완전히 생활화되고있으며 그것이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교양과 실무수준을 높이는 힘있는 무

거로 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열매이다. 수령께서 간부들과 당원들,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도록 정연한 체계를 세워주시고 끊임없는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시였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전당이 학습하고 전국이 학습하며 전군이 학습하는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배움의 나라》로 될수 있었다.

이 모든 자랑찬 성과와 빛나는 업적, 고귀한 경험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활동의 주객관적정세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새롭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과정에서 이룩된 끝없이 귀중한 열매이며 우리 당사업발전을 위한 고귀한 밑천이다.

우리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사업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서 자기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신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19페지)

당건설과 당사업의 총적방향을 명백히 규정한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교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이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오직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당의 사상의지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혁명의 최고뇌수이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해야만 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도 전투적인 조직으로 될수 있다.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안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따라서 김일성동지께서 명시해주신 당건설과 당사업의 총적과업에 관한 사상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여 당이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를 마련해준 가장 탁월한 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 존재의 전기간, 자기 사업의 모든 분야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

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당사업의 총적과업을 제시하신데 기초하여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당사업의 기본을 명백히 정식화하시였으며 당조직사상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19페지)

당사업의 기본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사업의 대상과 내용 및 본질을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완전히 부합되게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히 해명한 고전적인 정식화이며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함으로써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는 기회주의적견해에 타격을 주고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확고히 고수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이 무엇보다도먼저 간부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핵심력량이며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현시기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과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해주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9페지)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우와 같은 책, 120페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간부대렬이 기본적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졌으나 그들의 자질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현실정과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고있는 현실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한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주목을 돌려 간부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비판과 통제 속에서 단련하며 학습을 강화하고 집체적교양체계와 함께 개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워 간부들을 교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함께 간부선발배치사업을 옳게 하며 후비간부양성체계를 똑바로 세우는 사업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당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특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께서는 보고에서 당조직생활이 가지는 의의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 정치

생활이며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2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당생활의 본질적내용과 당사업과 당건설에서 당원들의 당생활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힌것으로서 당생활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행되여야 하며 당사업과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고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수령께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동시에 당생활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결합시킬데 대한 그이의 방침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의 선봉적이며 조직적인 부대인 우리 당의 성격에 완전히 부합되는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고 각급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간부들과 핵심당원들로 잘 배합하여 꾸림으로써 그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참모부로 만들며 각급 당위원회들의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간의 배합작전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군중과의 사업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계급적분해를 촉진시켜 반동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고 쟁취할수 있는 사람은 모두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근로단체들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사로청을 비롯한 모든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단체들앞에 제시하신 과업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단체들이 당의 인전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근로단체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당사상사업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당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

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3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뚜렷이 가르쳐준것으로서 당건설과 당사업의 총적과업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당사상사업의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의 내용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특히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수정주의적 사상조류가 혁명위업수행에 미치는 커다란 해독성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수정주의가 생겨날수 있고 그것을 매개할수 있는 바탕인 부르죠아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사상사업에서 이 방침을 철저히 구현할 때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수정주의의 해독이 미칠수 없게 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활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게 될것이며 우리 당이 영원히 혁명하는 당,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을뿐아니라 그 해결을 위한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간부들이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을 우리 혁명발전과 새로운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심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것으로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으로 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한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현단계에서 우리 당의 기본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도 결국은 당의 전투력을 높여 우리앞에 나선 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6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과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인 우리 당의 사명,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 등을 전면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제시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당위원회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키잡이를 잘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키잡이에 관한 리론의 창조성과 정당성은 그것이 혁명

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 그 요구를 옳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령도방법이며 당의 정치적지도와 행정기관들의 자립적이며 책임적인 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당사업에서 군중로선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탁월한 령도방법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인 각급 인민위원회와 그리고 인민군대와 로농적위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과 같은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많이 가지고있는 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며 우리 당과 혁명을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많이 가지고있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이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해주심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며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집대성하시였다.

그이께서 천재적으로 정식화하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들인 유일사상체계확립문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관한 문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에 관한 문제 등은 로동계급의 당을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부대로 강화발전시키며 그의 력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혁명리론이다. 이 모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온갖 기회주의편향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확고히 고수한 빛나는 모범이며 그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이며 당사업의 백과전서적인 교과서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인 당대회보고를 심오히 연구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당건설리론들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백전백승하는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투적기치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시면서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과 조국통일위업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조선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보고에서 천명된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전국적판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전투적 기치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침과 함께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시면서 지난 시기 어려운 시련을 뚫고 전진하여온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간고한 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만 자유와 해방,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어려운 시련속에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과정을 개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81페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놈들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은 특히 전후시기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더욱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도 쌓고 쓰라린 피의 교훈도 얻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계속 줄기차게 싸워온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내올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55년 12월 남조선

혁명가들의 합법적당인 진보당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투쟁의 결과였다.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남조선사회계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렸으며 끝내 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1960년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왔다.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남조선전지역에서는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조국통일의 기운이 급격히 높아졌다.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진출이 급속히 강화되자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번에는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토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사회대중당을 파괴하는 야수적인 탄압책동을 감행하여나섰다.

이와 같이 합법적당들인 진보당과 그후 4월인민봉기를 거쳐 출현한 사회대중당의 적극적인 활동과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운동,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개별적인사들의 진출에 대하여서도 원쑤들은 모조리 총검에 의한 야수적인 탄압과 테로, 학살로 대답하였으며 남조선혁명력량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과정은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더욱 높이였으며 간악한 원쑤를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피의 교훈과 가치있는 경험을 쌓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이러한 력사적과정을 분석하시면서 남조선에서 폭력혁명의 필연성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이행이란 있을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순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력량을 압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85페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방법이란 있을수 없고 순수 대중운동만으로써는 승리할수 없으며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에 의해서만 정권을 쟁취할수 있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경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혁명적폭력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수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어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명백히 실증된 과학적인 진리이며 그것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남조선에서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세계의 모든 혁명투쟁력사는 아직 그 어떤 침략세력이나 반동지배계층도 권력을 공순히 양보한 실례를 알지못한다. 원쑤들은 제놈들의 통치지반이 뒤흔들리게 되면 될수록 더욱 악랄하게

발악하며 숨통이 끊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제놈들의 반동통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반혁명적폭력에 매여달린다. 따라서 인민들이 원쑤들의 반혁명적폭력을 때려부시고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자면 결국 폭력적방법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다.

더우기 미제침략자들이 전례없는 악랄한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는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승리는 혁명적폭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급격히 강화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총칼로 탄압하고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구원하며 전쟁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그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파쑈적살인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꾸며내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어놓고있으며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 언론, 출판 기관들을 모조리 탄압하며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고있다.

계급적원쑤들이 반혁명적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승리가 심각한 폭력투쟁이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전인민적항쟁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혁명적폭력으로써 반혁명적폭력을 타승할 때에만 주권을 전취할수 있으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결정적인 폭력투쟁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 교훈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86페지)

사실상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은 맑스-레닌주의사상과 전략전술을 정확히 구현할수 있는 진정한 혁명적당이 없음으로 하여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쓰라린 실패를 되풀이하였다. 혁명적당이 없는 탓으로 뚜렷한 투쟁강령을 가지고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항쟁에 널리 인입할수 없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원쑤들에게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이 군부상층의 파쑈분자들에 의한 권력탈취를 가로막지 못하고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반대하여 힘있는 반격을 가하지 못한것도 바로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판건적고리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방침에서 찾았으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건설을 다그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전투적이고 단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할데 대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옳바른 당조직로선과 항일무장투쟁시기 당건설경험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어려운 지하당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당대렬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자방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적극적인 정치사상사업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더욱 심도있게 침투됨에 따라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닦아졌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수령께서 내놓으신 당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일적인 당결성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1969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들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언과 강령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그 강령과 선언에서 명백히 밝혀진바와 같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남조선혁명의 위력한 정치적조직이며 지난날의 진보당이나 사회대중당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이다.

남조선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출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쟁취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그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남조선혁명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지도리론, 명확한 투쟁강령과 불패의 전략전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지도력량을 가지게 되고 견실한 지도핵심, 체계정연한 당조직과 광범한 군중적지반을 가진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통일혁명당을 가지게 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목적지향성이 뚜렷해지고 더욱 조직화되였으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혁명운동의 본질적약점들이 극복되고 수령께서 내놓으신 탁월한 로선과 방침에 따라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급격히 높아가고있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바야흐로 더욱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태양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 혁명적기치로 되고있으며 이 불멸의 기치밑에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야수적인 탄압을 박차고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이것은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의 발현이며 남조선혁명발전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남조선혁명운동의 승리적인 전진은 우리 당과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여오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이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줌으로 하여 류례없는 군사파쑈의 광풍에도 드놀지 않았고 온갖 기회주의의 탁류에도 휩쓸리지 않았으며 필승의 신념드높이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전진할수 있었다.

＊ ＊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앞에 나선 투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8페지)

남조선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격파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원래 혁명이란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낡은 사회를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타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요정낼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이 마련되여야 한다. 혁명력량이 강해야 반혁명세력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혁명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것이며 이러한 혁명력량을 꾸리는 사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력량강화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규정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반혁명의 폭력과 저항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투쟁을 완강히 추진시켜나가며 전취한 혁명의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확대하면서 결정적시기에 반혁명의 아성을 무찌르고 원쑤들의 숨통을 끊어버릴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앞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그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킬수 있는 혁명투사들로 당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을 대중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그속에 깊이 뿌리박게 될 때 당의 령도적역할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당자체도 더욱 불패의것으로 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군중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통일전선에 결속하는것은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하며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중요한 담보이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으며 그들이 로동자, 농민들과 힘을 합할 때에는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하는 유력한 부대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우와 같은 책, 89페지)

혁명력량은 투쟁속에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그이께서 장구한 기간 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남조선사회의 현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수준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혁명의 핵심대렬을 더욱 장성강화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명시하시면서 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투쟁을 통하여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를 제시하심과 함께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로선과 그 실현방도를 다시금 명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은 나라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과정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한 가장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국토가 량단된 후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나도록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인민이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는 박정희역도와 같은 매국배족의 무리들때문이다. 만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책동이 없었더라면 조국의 통일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을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에서 명백히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미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매번 침략적도발책동으로 대답하였으며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고

침략과 전쟁준비에 더욱 광분하여왔다.

력사적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고 그 주구들이 날뛰고있는한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조국의 평화적통일문제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보장되는 조건이 아니고서는 론의될수도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떠들어대고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시면서 그것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자주적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제놈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모략선전임을 밝히시였다.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이란 말만 해도 인민들을 탄압, 처형하는 박정희역도가 통일문제를 운운한 그자체가 가증스럽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것이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승공통일》이니, 《유엔감시하의 선거》니 하는 망발도 역시 파멸에 직면한자의 비명으로서 그것은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된 식민지통치제도를 북반부에까지 확장하려는 놈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애걸하면서 나라의 영구한 분렬을 획책하며 오늘에 와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충실한 2중주구이며 매국노들이다.

이 모든것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식민지통치를 소탕하고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을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회보고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들을 집대성한 위대한 강령적문헌이며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인민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할 때에만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원쑤들이 덤벼들 때에는 언제든지 적과 맞받아싸울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할것이다.

오늘 국내외의 모든 정세는 날이 갈수록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혁명은 성숙되여가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원쑤격멸에 일떠선 우리 인민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박정희괴뢰악당을 타도하고야말것이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민족적념원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는 탁월한 전략적방침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지난 기간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현정세하에서 아세아와 세계의 전반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국제혁명운동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과 투쟁전략을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제고되고 그 영향력은 비할바없이 확대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실로 국제관계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업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과 탁월한 반제반미투쟁로선이 가져온 열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화보고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과 그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함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앙양시켜 미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힘있게 분쇄하고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화보고에서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있는 우리 당의 반제반미투쟁로선과 전략적방침들을 집대성하시고 그것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정세하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가장 절박한 선차적과업으로 제기하시고 반미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9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세계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에는 끝이 없다. 미제는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얻어맞아 녹아나고있으며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더욱 드러내놓으면서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놈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침략과 전쟁에서 칠성판에 오른 제놈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다.

최근년간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이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민족적독립을 흉악하게 교살하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민족국가들에 대한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실로 지구상에는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고있거나 놈들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으며 미제의 발길이 닿는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곳이 없다. 미제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이며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인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세계의 도처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방침은 이러저러한 지역과 나라들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침략적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투쟁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미제의 멸망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하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자기가 차지하고있는 매개 전선에서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무엇보다 윁남인민을 비롯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분렬된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반제력량이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할 때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특히 미제의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지역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일떠서서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는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속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놈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반제적립장이 견결하지 못한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는 한편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아세아침략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 해외군사《원조비》의 대부분을 쏟아붓고있으며 숱한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제놈들의 해외침략무력의 3분의 2를 직접 투입하면서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아세아의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함으로써 제놈들의 뒤흔들리고있는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미제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침략적교리에 따르는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매달려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교활한 침략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오늘 아세아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전반적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따라서 아세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에 의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은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습니다.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 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방침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워이긴 아세아인민들의 력사적경험과 미제의 침략을 직접 받고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공통된 처지와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현명한 투쟁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미제에 타격을 가하여 놈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을 저지파탄시킴으로써 국제적인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발전에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게 하는 혁명적인 반제반미투쟁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미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은 분쇄되고야말것이며 놈들은 아세아지역에서 종국적으로 쫓겨나고야말것이다.

지금 조선으로부터 중국, 웰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반제반미공동전선이 형성되고있으며 미제의 침략책동은 이 지역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놈들은 사면초가에 빠지고있다.

오늘 아세아지역에서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반미공동전선이 형성되고 반미공동투쟁이 강화되여 미제의 아세아침략책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의 이 집단적타격에 의하여 미제가 이 지역에서

날이 갈수록 녹아나고있는 현실은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진루적단결을 강화하여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다시금 밝히시고 특히 최근년간 더욱 로골화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반동적결탁의 위험성에 대처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1페지)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데 모든 반동세력들을 끌어들이는것은 미제의 침략정책에서 상투적인 수법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나라의 반동세력에 의거하고있으며 그놈들을 침략의 앞잡이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침략수법에 따라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켰으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본격적으로 아세아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면서 놈들을 군사적침략의 주되는 타격력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조선과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공공연히 내몰고있으며 오늘 일본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공급기지, 공격기지로 리용되고있다.

한편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이골이 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급속히 되살아났을뿐만아니라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대가로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려고 분별없이 날뛰면서 재무장책동과 침략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놈들은 나라의 군국화와 파쑈화를 다그치면서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놈들은 우리 나라를 해외침략의 첫 공격대상으로 정하고 이미 남조선에 재침마수를 깊이 뻗치였을뿐만아니라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곳에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서 발광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책동과 침략책동에 의하여 일본은 오늘 아세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일 두 강도배들의 범죄적인 공모결탁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은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3～104폐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야망을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한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때 놈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미제의 악랄한 아세아전략을 힘있게 분쇄할수 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되살아나 범죄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다시 들어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환상과 기대도 가져서는 안되며 놈들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놈들을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며 일치한 행동으로 놈들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한다.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놈들의 침략야망은 분쇄되고야말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총화보고에서 또한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미투쟁의 전략적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6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함께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탁월한 전략사상을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비록 적은 힘이라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놈들은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이다.

혁명하는 나라들,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에 걸쳐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인 반제투쟁전략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한 과학적인 투쟁전략이다.

그것은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을 치렬한 반미투쟁전선으로 만듦으로써 놈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놈들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지역에 힘을 집중할수 없게 하며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매개 전선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으로 미제를 때려눕힐수 있게 하는 명철한 투쟁전략이다. 또한 그것은 반제반미투쟁에서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혁명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에게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줌으로써 반미투쟁을 더욱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전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

하신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반미투쟁을 강화하게 할뿐아니라 그들간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적인 반미통일전선의 형성과 반미공동행동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에서 전면적으로 밝히신 우리 당의 일관한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적방침들, 현시기 세계혁명의 가장 초미의 문제인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투쟁할데 대한 전략적방침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투쟁방침들은 반미투쟁과 국제혁명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며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에서 밝히신 우리 당의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적방침들은 아세아와 세계의 전반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앙양시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더욱 촉진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아세아와 세계 모든곳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고 놈들의 최후멸망을 가일층 촉진하는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며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저해하는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실로 보고에 제시된 반제반미투쟁방침과 방도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반동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안겨주고있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반미사상과 그이께서 내놓으신 탁월하고 명확한 반미투쟁전략에서 무한한 고무를 받고있으며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세계혁명의 발전과 제국주의멸망을 촉진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천재적이며 과학적이며 리론실천적인 투쟁전략》, 《우리 시대의 파시즘과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위한 정확한 로선》, 《현 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의 등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김일성수상님의 혁명사상을 떠난 투쟁의 승리란 있을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우리자신의 전략으로 만들자.》고 확신에 찬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적방침은 아세아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동정을 더많이 얻음으로써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전반적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앙양시키는데 더욱 크게 이바지할것이며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코 실현하고야말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된 위력앞에서 놈들은 더욱 녹아나게 될것이며 결국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말것이다.

주체확립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된 강령적문헌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발표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된다.

그이의 천재적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문헌이다.

우리 당은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기초하여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의 사상조류를 뿌리빼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분야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없어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유일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완전히 이룩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비약을 이룩하였다.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하게 된 우리 당과 인민은 오늘 이 천재적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로작의 심오한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있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가 발표되던 당시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국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우리 당 사상사업에는 일련의 결함이 있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을 때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3년간의 전쟁에서 당한 심대한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에 또다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특히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따라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은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악랄한 《반공》소동을 일삼으면서 우리 인민의 건설투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 또한 날을 따라 더

욱 우심해갔다.

이러한 때 당안에서는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정책을 공공연하게 시비하여나섰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도 자재, 자금의 부족을 비롯하여 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실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한편으로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 당안에 숨은 종파분자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과 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난관을 이겨내는 치렬하고도 힘겨운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야 할 력사적과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후 우리 혁명이 처한 안팎의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어려운 혁명임무는 무엇보다도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고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었다. 오직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야만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당사상사업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로 말미암아 혁명정세와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자기의 주권과 당을 가지게 된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연구하지 않고 남의것만 기계적으로 본따려 하였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때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에 와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1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당사상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근로자들속에 깊이 해석침투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대신에 당사상사업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교조주의적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것을 극력 방해하였다.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특히 남만 쳐다보고 남이 하는것을 교조적으로 본따며 자체의 힘을 믿지 않고 자기의것을 덮어놓고 배척하는 민족허무주의를 류포시킴으로써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극도로 마비시키려 하였다.

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풀어나갈수 없고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었으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었다.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것은 특히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기회주의적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아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기회주의적사상조류에 편승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였으며 우리 당의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공공연하게 시비하여나섰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

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기회주의와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고수하기 위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내외의 형편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를 세우기 위한 원칙적요구와 과학적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력사적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는 실로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강령적지침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한 력사적문헌이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먼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 근본립장과 태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60~561페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조선혁명이며 모든 사상사업은 조선혁명수행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한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태도와 립장을 가장 정확히 명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최대의 임무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조선인민의 모든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완성하여야 한다.

당사상사업은 바로 이와 같은 근본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응당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며 그들의 애국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이와 같은 원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당시 사상사업에서 발로되였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신랄히 폭로비판하시고 우리 당 사상사업이 철저히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의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굳건히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가장 정확한 사상을 명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우리 당 사상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더잘 복무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주성의 원칙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훌륭히 이바지하도록 그 내용과 형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방향을 밝혀주시였다.

당사상사업이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되여야만 그것은 혁명적실천이 제기하는 현실적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줄수 있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만일 사상사업이 주체를 잃고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때에는 자기 나라의 혁명에 이바지할수 없을뿐아니라 세계혁명사업에 대한 국제주의적임무수행에도 기여할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가르치심은 사상사업의 근본사명을 천명해주는것인 동시에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천재적으로 밝힌 탁월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근본 립장과 더불어 주체확립의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백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체의것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그것에 통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행정에서 끊임없이 부닥치게 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6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당시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자기의것을 무시하고 남만 쳐다보면서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혹심한 민족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사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체의 우수한것, 특히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확고히 가진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배치되지 않을뿐아니라 완전히 일치한다는것을 밝히시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며 자기 당과 자기 인민을 사랑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분리할수 없습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국제주의에 충실할수 없으며 국제주의에 충실치 못한 사람이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게 충실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주의자는 곧 국제주의자이며 또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곧 애국주의자입니다.》(우와 같은 책, 571～57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 사상사업은 진정한 애국자, 조선의 공산주의자, 혁명가를 키움으로써 조선혁명에 이바지할뿐아니라 세계혁명사업에 대한 우리의 국제주의적임무도 옳게 수행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상사업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자체의 우수한것을 찾아내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에서 특히 선전일군들이 수령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풍습을 잘 알며 그것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옳게 교양하여야만 그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여줄수 있고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참다운 일군을 길러낼수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로작에서 또한 사상사업에서 맑스-레닌주의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한 교조적, 기계적 태도를 배격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창조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7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우리들에게 가장 일반적진리를 가르쳐줄뿐이다. 맑스-레닌주의학설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만 산 학설로 되며 거기에 교조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수 있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이 사회경제적, 력사적 및 민족적 제특성으로 하여 무한히 다양하

며, 맑스-레닌주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처방을 줄수 없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사대주의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소화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들대신에 교조적으로 대하며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도 않는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며 하는 교조주의적, 사대주의적 경향을 발로시키고있는 현상을 신랄히 비판폭로하시면서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를 배우되 그것을 통채로 삼킬것이 아니라 그 진수를 파악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적태도를 밝혀주시였다.

더우기 오늘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날에는 제기되지도 않았으며 또 해결할수도 없었던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허다히 제기되고있는 사정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적, 기계적 태도를 배격하고 그것에 대한 창조적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에만 혁명수행에서 주체를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이러한 원칙적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심으로써 혁명하는 당과 인민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한 교조적태도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하시였으며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주체확립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심과 함께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명확한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만간 혁명적인 대사변을 맞이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사변이든지간에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여있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8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남반부에 대한 정치사업을 잘하는 두가지 문제에 귀착된다고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남반부에 대한 정치사업이란 남반부인민들에 대한 북반부의 영향을 강화하여 남반부의 광범한 인민들을 해방투쟁에 궐기시키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혁명기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강화하며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에서 나서는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주체적으로 명시하시고 당 사상교양사업이 당면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그들이 옳은 군중관점에서도록 교양하며 그들을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의 전도에 대한 락관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우리 당 사상사업과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인 사상사업방침이며 우리 혁명승리를 위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　　*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는 우리 당 사상사업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 천재적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당의 일관한 투쟁은 더욱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0페지)

우리 당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또한 우리 인민의 머리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극복되고 그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일군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그들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통채로 삼키는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대하며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4페지)

주체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행정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기여하신 불멸의 업적과 공헌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게 되고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이와 같이 혁명적자부심과 긍지, 자주의식이 높아짐으로써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자체의 힘과 지혜, 자체의 기술로써 해결할수 있다는 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확고히 가지게 되였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가적기풍과 혁명적창발성을 전례없이 높이 발양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하게 하는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도 주체사상의 위대한 결실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일어난 획기적전환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빛나는 열매입니다.》(우와 같은 책, 535페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의 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자주로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비할바없이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은 대내외정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자신의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세워진 로선과 정책을 자체의 힘으로 확신성있게 관철해나갔다.

경제에서 자립로선이 관철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양된 결과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였다.

국방에서 우리 당의 자위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확립되고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빛나게 발현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주체사상은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였으며,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였으며 그 지도밑에 혁명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모범》,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로, 위력있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게 되였으며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던 우리 인민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이 천재적로작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발전에서 거대한 기여로 된다.

그이께서는 이 력사적로작에서 주체사상의 본질과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 주체를 세우기 위한 원칙과 방도, 혁명전통에 관한 문제 등 일련의 중요문제들에 대한 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이 불후의 로작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대두한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자기의 신념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책을 규정하고 자기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바로 이 모든것으로 하여 그이의 불후의 로작에 담겨져있는 천재적사상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는 날과 더불어 더욱 휘황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해야 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계속 심오히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불멸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더욱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방침

박 희 석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 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함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방침을 연구체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혁명적문학예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도 학생시절에 공청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을 망라하여 각본도 쓰고 작곡도 하고 연극도 꾸며가지고 선전대를 만들어 군중앞에서 공연도 하고 연설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혁명한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대중을 각성시킬수 있었으며 청년들을 많이 묶어세울수 있었습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2권, 128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서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몸소 창작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육친적인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방침을 내놓으시고 이 방침에 따라 문학예술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 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혁명문학, 혁명가요, 혁명연극, 혁명무용, 혁명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길쳐 커다란 교양적역할을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독창적인 혁명적문예사상과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지도방침, 그 지도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 등은 우리 당 문예정책의 력사적뿌리로 된다. 이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의 당적문학예술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매우 빨리 개화발전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예술의 모범으로 되는 《황금의 예술》로서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도 철저히 주체사상을 구현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의 본성과

임무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사업에서도 철저히 주체를 세움으로써만 그것이 조선혁명에 복무하며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게 발전할수 있다는 명확한 지도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연극, 혁명가요, 강연, 체육회, 문맹퇴치사업, 선전포스터, 격문 등 각종 형식으로써 그들의 비위에 알맞게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아주 리해하기 쉬운것을 취하되 반드시 명심할것은 말 한마디, 노래 한구절 할것없이 모두 일본제국주의타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목적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인식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현실적문제들을 사상주체적과업으로 하여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고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은 항일혁명문학예술창작에서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한 기본원칙의 하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문학예술이 조선혁명수행에 복무해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오.…

동무들의 노래를 듣고 춤을 보고나면 전사들은 원쑤들을 칠 전투사기가 오르고 인민들은 어떠한 곤난속에서도 동요와 락망을 모르고 락천적으로 일하며 적들의 《대토벌》로부터 용감히 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분발하도록 되여야 하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높은 공산주의적당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진실하게 구현하였으며 간악한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을 쳐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고야 말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맑스-레닌주의적립장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된 혁명적문학예술은 원쑤들에게는 서리발총창과도 같았으며 인민들에게는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고무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모든 창작활동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철저히 조선인민혁명군부대의 조직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였다. 한편의 작품창작이나 연예공연도 다 조직의 과업을 받고 조직의 지도통제밑에서 진행되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의 공산주의적당성은 철저한 계급성과 높은 인민성과 밀접히 결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은 언제든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적응하게 계급적내용을 담은 교양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선전선동수단의 하나인 혁명적문학예술은 당성과 함께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계급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의 로동계급성은 자본주의제도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온갖 적대계급의 사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발현되고 더욱 강화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는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뿐아니라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우리 조국을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의 계급교양적기능을 높이는것은 항일혁명문학예술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였다. 따라서 항일혁명문학예술에서는 철저한 계급의식과 반제혁명사상이 강하게 표현되였으며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당성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로동계급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한 인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밑에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오직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였으며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싸웠다.

항일유격대가 그처럼 간고한 조건에서 한두해도 아니고 15성상이란 기나긴 세월에 걸쳐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이길수 있은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인민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는 김일성동지의 인민성에 대한 심오한 사상은 항일혁명문학예술활동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문학예술도 포함한 선전선동사업이 인민의 요구에 맞는것이 되자면 인민들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인민들과 함께 숨쉬여야 하며 일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되여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이 절박한 문제인가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연구하여 제때에 해결해줄 대책을 세우는것이 우선 중요하다.…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이 제일 귀에 잘 들어가듯이 선전의 내용이 군중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예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것은 곧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때에 취급하고 그 문제해결의 구체적방책을 제시하며 명확한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인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희망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잘 알아들을수 있는 말로, 그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표현함으로써 언제나 인민대중의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대중자신의 문학예술로,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작하시고 지도하신 혁명연극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한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게 된것은 그것이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지향을 인민의 비위에 맞는 훌륭한 예술형식으로 표현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방침에서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혁명적문학예술을 조선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발전시킬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전선동사업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그를 조선사람들의 특성과 구미에 맞게 또 알기 쉬운 말로 진행하여나가야 한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조선사람의 민족적특성과 비위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조선공산주의자의 기본임무는 조선혁명을 잘하는데 있다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철저히 조선혁명의 요구에 복종되여야 하며 바로 조선인민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하는것만큼 그 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구현하며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는것이 합법칙적요구로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가요와 연극을 비롯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당시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사상주제적과업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밝혀내며 그것을 조선사람들의 감정에 맞게 민족적형식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철저히 조선혁명의 요구에 복종되였으며 이로부터 조선사람의 민족적특성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우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성격적특징을 체현한 다름아닌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이 서있었다. 따라서 그 주인공의 형상은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았으므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은 예로부터 문명하고 례의도덕이 밝은 나라로 알려져왔다. 지방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조선의 어느 곳, 어느 마을을 찾아봐도 모두다 맑고 푸른 산천과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있어서 처음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잊을수 없는 인상을 받게 한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것들은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피땀으로 이루어놓은것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것은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며 략탈당하고있다. 아름다운 민족문화와 슬기로운 력사대신에 일제의 《동조동근》이니 《내선일체》니 하는 등의 참을수 없는 치욕이 강요되고있으며 이를 반대하여 나선 애국자들은 학살되고있다.…우리는 만난을 극복하고 일제와 싸워서 조국을 반드시 해방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민족문화와 슬기로운 력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웅적으로 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애국전통과 민족문화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여주시면서 그 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특히 애국적이며 인민적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시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에서는 노래와 춤을 창작보급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인민에게 과거로부터 널리 알려진 노래곡조나 전통적인 민족예술의 형식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민족적바탕에서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사실주의적인 혁명적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며 작품에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도록 한것이다.

높은 예술성과 결합된 고상한 사상성은 혁명적문학예술의 가치를 규정하는 유일하게 옳은 기준으로 된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위력한 힘의 하나도 그 높은 사상성, 정치성이 언제나 작품의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밀접히 결합되였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 예술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진실을 쓰는것입니다. 좀 서툴어도 대중이 잘 리해할수 있으면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8~49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의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확고히 담보해 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대원들에게 모든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적진실성을 구현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작품을 쓰되 어떤 내용의 작품을 쓰며 전형을 창조하되 환경은 어떻게 설정하며 등장인물의 언어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연기자들에게 연기를 어떻게 수행하겠는가에 대하여서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극《피바다》의 누이역을 담당한 대원이 원쑤들에게 학살당한 동생의 시체를 붙안고 울면서 복수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가 생각을 잘못하는것 같소. 왜 울음이 나오지 않겠는가, 일제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동포형제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울분을 느끼지 않을수 있겠는가, 총살당한 을남이가 다름아닌 동무의 친동생이라고 생각할때 어찌 울지 않을수 있으며 주먹을 부르쥐고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동무의 그 눈물, 그 격분을 가지고 만강사람들을 교양하려고 하는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전선에 궐기시키려고 하는것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창조자들이 작품의 사상교양적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창조자들의 정신상태가 작품의 진실을 구현하는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일깨워주심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이 연극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였으며 커다란 사상적힘을 가지고 군중을 끌어당길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조할수 있게 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함으로써 성격의 전형적특질과 생활의 진실을 예리하게 밝힐수 있었으며 인민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만강에서 공연한 연극《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연극《피바다》는 생활의 진실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대중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연극을 보고난 관중들은 일제격멸의 혁명정신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흥분된 심정으로 유격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하여나섰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생활의 진실을 구현한 혁명적작품의 거대한 영향력을 깊이 자각하였기때문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창작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고한 행군과 가렬한 전투의 짬시간에도 대사를 외우고 집체적인 의견을 모아 연극과 춤과 노래들을 다듬어나갔다.

항일혁명문학예술에 대한 지도방침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신비주의를 없애고 문학예술을 군중의 집체적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창작하며 군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키도록 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작가도 없었고 작곡가도 없었지만 연극도 하고 노래도 짓고 잡지나 소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모여앉아 서로 의논해가지고 각본도 만들고 노래도 지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8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문학예술의 활발하고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수 없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의 기본동력이며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창조자이다. 문학예술은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며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재능을 적극 동원한다면 훌륭한 작품을 얼마든지 창작할수 있다. 혁명문학예술이 전문적작가예술가들이 아닌 항일유격대원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그처럼 훌륭히 창작된것도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사상을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집체적으로 노력하였기때문이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문학예술의 창조사업을 매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시였으며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지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훌륭한 창조적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예술을 군중자신이 창작할뿐만아니라 그들자신의것이 되도록 항상 지도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행군할 때나 휴식할때는 물론 지어 전투를 진행하는 고지우에서도 혁명가요를 불렀으며 인민이 있는곳이면 어디서나 그 정황에 맞게 예술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혁명문학예술활동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과 혁명투쟁의 한 부분으로 되여있었다.

＊ ＊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지도방침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로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이 발전하였으며 당적문학예술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이 이룩되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여러가지 예술적형식으로 해설선전하였으며 문학예술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해방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화폭의 중심에 그려내였으며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공산주의자—항일투사들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정치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모범으로 되였으며 문학, 연극, 음악, 무용을 비롯한 모든 예술부문에서 혁명하는 시대의 새로운 사상주제적과업을 실현하는데 알맞는 새로운 예술적형식들을 개척하고 발전풍부화시키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이 이룩되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지도와 배려밑에 개화발전한 항일혁명문학예술은 해방후 우리의 당적문학예술이 계승한 유일한 혁명전통으로서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사상문화적재부로 된다.

우리의 작가예술인들은 오직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에 따라 문학예술사업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를 끝까지 정확하게 관철할수 있으며 천리마시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근로자 제12호 (루계 34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11월 25일 발 행 • 1970년 12월 1일
ㄱ—03643 값 50전

1970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 명 전 통

당 건 설

정 치 사 상 문 제

경 제 건 설

남조선 및 국제 관계